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33호 HYUNBULNEWS.COM 2025년 6월 4일(음력 5월 9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새 시대 걸맞은, 국민 위하는 정부 · 대통령 염원"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시행
10·20·30대 '미래세대' 한목소리
첫 투표 10대 "국민 목소리 경청"
20대 "갈등 없는 통합·화합" 강조
30대 "일 · 가정 양립 사회 염원"

임은호 · 김내영 · 하성미 기자

6월 3일 선거 후 취임하는 제21대 대통령은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숙제를 안고 임기를 시작한다. 12·3 비상계엄 이후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때 이른 대선을 치른 뒤 들어서는 새 정부에 국민의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10~30대 청년세대들에게 새 정부와 대통령에 거는 기대를 직접 들어봤다. 표현은 저마다 달랐지만 '새 시대에 걸맞은, 국민을 위하는 정부와 대통령'이라는 바람은 같았다.

"청소년 목소리 진지하게 들어달라"

조기 대통령선거로 10대 유권자들은 이른 첫 투표를 하게 됐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을 겪은 이들은 "한 표의 무게가 무겁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경후 학생(해동고 3)은 "그동안은 뉴스나 부모님, 주변 어른들의 이야기를 통해 선거를 지켜보기만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한 표를 행사하게 되어 매우 새롭고 책임감이 느껴진다"고 첫 투표의 소감을 밝혔다. 이어 "처음 참여한 대통령 선거라 떨리고 낯설기도 했지만, 이 경험이 시민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며 "앞으로는 더 많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아울러 새롭게 선출될 대통령과 정부에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 시민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그 의견을 청취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장서연 학생(범어고 3)은 "투표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투표권을 신중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배우고 생각하고 싶다"고 밝혔다. 새롭게 출범할 정부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들이 많은 만큼, 우리 목소리도 진지하게 반영해 줬으면 한다"며 "말뿐인 공약보다 실질적인 변화가 체감될 수 있는 정부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대의 마음으로 함께 가는 리더 기대

20대 불자들은 갈등이 만연한 사회 속에서 새 정부가 통합과 화합의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손채영(21, 창원대) 씨는 "계층을 낙인찍고 비하하는 분위기 속에 세대·성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기보다는 비방과 공격이 오가는 모습이 많아 아쉬웠다"며 "새로운 대통령은 분열을 줄이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손 씨는 또 "학력, 종교, 인종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 초년생인 유솜이(23) 씨는 "불교에서 '무명을 밝히다'는 표현을 좋아한다. 이는 무지와 어리석음을 지혜로 비춘다는 뜻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이해와 포용,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자주 놓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런 가치를 챙길 수 있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실에서 소외되고 외면받는 이들을 자비심으로 품고, 연대의 마음으로 함께 가는 리더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청년 주거 정책 변화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형록(26, 연세대 대학원) 씨는 현재 안양에서 서울로 통학하고 있다. 자취는 전세사기 사례가 많고 높은 주거 비용으로 포기해야 했다. 이 씨는 "수도권 대학에 다니려면 결국 자취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지방 출신 청년들에게는 큰 경제적 부담"이라며 "원룸 월세가 너무 비싸고 LH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물량이 적어 경쟁률이 치열하다. 현실적인 주거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주거 문제와 더불어 통학에 따른 교통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 그는 "K-패스는 있어도 경기권은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제한적"이라며 "정책이 구체화 되길 기다리는 입장에서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공익 우선하는 정치 구현을

30대 불자들은 사회에서는 경력을 다지고, 가정에서는 가족을 구성하는 세대인 만큼 새 정부에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바람을 내비쳤다.

16개월 자녀를 둔 김상규(34, 프리랜서 디자이너) 씨는 유례없는 초저출산 시대의 국가 소멸 위기를 인식하고 출산 가정과 결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길 염원했다. 출생률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주거와 돌봄, 보육 정책 등을 제시한 그는 "청년층의 취업과 주거, 결혼, 양육 부담을 덜어 저출생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제는 출산 의향을 높이기 위한 접근보다는 출산과 양육을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림책 작가이자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김 씨는 우리나라가 진정한 '문화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문화 예술과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 요청했다. 그는 "K-콘텐츠, K-컬처가 전 세계인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콘텐츠 창작자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한 구조적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면서 "창작 기반을 공공이 뒷받침한다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경쟁력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지유(32, 사회복지사) 씨는 국민과 함께 살아가는 책임 있는 리더십을 기대했다. 공 씨는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정치가 국민이 바라는 진짜 변화"라면서 청년들을 병들게 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함께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30대는 삶의 무게와 책임을 체감하며 살아가는 세대"라며 "단지 눈앞의 정책을 바꾸는 단편적인 대책보다 왜 청년들이 결혼을 꺼리고 삶을 함께 꾸려나가는 데 두려움을 느끼는지 현실의 무게를 함께 공감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가정을 이루며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시기지만 갈등이 일상화된 사회는 점점 더 불안을 키우고 있다"면서 "불안정한 일자리, 감당할 수 없는 주거비, 양육의 책임이 오롯이 개인에게 지워진 사회 속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무력감과 단절감은 단순한 혜택으로 풀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여 년 전 귀화한 스리랑카 출신 김민수(39, 통역가) 씨는 다문화 사회를 안착시키고 포용력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며 일상에서 결혼과 귀화, 유학, 취업 등으로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하는 외국인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활하지만 다르게 적용받는 정책으로 생활에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 취업 교육 통역사로 활동하며 가족 거주 비자를 받기까지의 불편함, 정규직 채용에 대한 어려움 등 다양한 사례를 접한 그는 "귀화한 한국인임에도 민주시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들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귀화자와 결혼 등 다문화 분야의 유권자가 4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다문화 사회에서 이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꾸려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 상처 치유할 분 당선되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월 29일, 서울 종로구 가회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장을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진우 스님은 "국가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질곡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우리 국민이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길 바란다"면서 국민들에게 "상처받은 마음의 뜰에 곱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대통령을 현명하게 잘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글 · 사진=임은호 기자

"영남 산불 이재민들 빠른 일상 회복 염원"

진우 스님, 경북도청 방문
12억원 상당 가전 지원해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지난 3월 발생한 영남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염원하며 12억 상당의 생활가전 제품을 지원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5월 26일 안동에 위치한 경북도청을 방문,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냉장고 700대와 TV 1300대를 전달했다.〈사진〉

이날 전달된 가전제품은 12억원 상당으로 조계종이 모연한 금액 중 일부로 마련됐다. 물품은 안동과 의성, 청송, 영덕 등 4개 시·군의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 2000가구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재민의 대부분은 현재 영남지역 미분양 아파트에 임시 거주 중이다. 조계종은 이재민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 꾸준한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전달식에서 진우 스님은 산불로 가족과 재산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스님은 산불 직후 현장을 찾았을 때 참혹했던 현장을 언급하며 "고운사 등 사찰의 피해도 컸지만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상처가 클 것"이라며 "조계종은 고통받는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악의 산불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경북도민을 위해 힘을 보태준 조계종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지원이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진우 스님은 경북도청 방문에 앞서 제16교구본사 고운사를 찾아 피해 현장과 복구 사항을 살폈다. 진우 스님은 복원 불사를 위해 애쓰고 있는 고운사 사부대중을 격려하고 "조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임은호 기자



제2차 대방광불화엄경 완독대법회

우리시대 53선지식을 만나러가는 구법여행!
화엄십찰 가야산 해인사에서 스님과 불자들이 함께 읽고, 함께 쓰고, 함께 깨닫는
제2차 대방광불화엄경 완독대법회를 오는 6월 21일(토) 입재 봉행합니다.
80화엄경 전권을 매달 1회씩, 총 53회, 4년 5개월간 이어지는 위대한 여정!
"화엄경을 읽고, 사경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끝없이 전해지리라."
부처님의 지혜로운 세상을 장엄하는 시간 불자님들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입재 불기 2569년(2025) 6월 21일(토) 오후1시 회향 불기 2573년(2029) 10월 20일(토) 오후 1시

〈동참금〉

4년 5개월(53회) 동참금	1백만원
1년(12회) 동참금	40만원
6개월(6회) 동참금	25만원
당일(1회) 동참금	5만원
납부계좌 농협 351-1211-8417-33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버스 노선 안내〉

지역	단체명	출발	경유	담당연락처
서울	금강자비회	06시 30분 조계사앞	07시 잠실역 4번 출구 롯데마트 앞	010-3796-5481
부산	금강정진회	08시 서면지하철 3 · 5번출구	-	010-9666-3724
대전	귀빈불자회	07시 구)시민회관	07시 15분 선샤인호텔 앞	010-9415-8717
대구	대구불자회	08시 서부정류장 건너 삼성센터 옆	08시 20분 성서 홈플러스 앞	010-8722-8898
창원	성산보현회	07시 창원검찰청 건너	07시 50분 마산 삼성프라자	010-4570-9301
진주	진주불자회	08시 30분 신안동 공설운동장 앞	08시50분 초전동 진주공판장 앞	010-7556-7073

해인사 대방광불화엄경 완독대법회
문의 I 055-934-3105~6 / 해인사 종합접수실

법보종찰 해인사

40년 염원, 조계종 총본산 일주문 '활짝'

5월 28일 '동양금박' 철거 기념식
진우 스님 "희망 등불 공간 되길"
현근 스님 · 지현 스님 공로패 수여
"성역화 불사 완수" 다짐도 이어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서울 조계사 일주문을 가로막던 동양금박 빌딩이 철거되며 조계종 총본산 일주문 앞이 40년 만에 활짝 열렸다.

서울 조계사(주지 담화 스님) 일주문을 가로막던 동양금박 빌딩이 철거되며 조계종 총본산 일주문 앞이 40년 만에 활짝 열렸다. 한국불교 대표 도량 조계사의 입구가 활짝 열리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게 됨을 축하하는 법석이 마련됐다.

조계사는 5월 28일 일주문에서 '동양금박 철거 기념식'을 봉행했다.

조계사 주지 담화 스님은 대작불사의 원만 성취에 대한 감동을 전했다. 스님은 "조계사 일주문은 부처님 도량에 들어서는 첫 번째 문이자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의 얼굴"이라며 조계사 일주문이 장엄한 모습을 환히 드러내는 데 원력을 쏟아준 스님과 신도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조계사는 앞으로도 종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종단과 불교의 미래를 밝게 비추는 근본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에서 오랫동안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던 동양금박 건물의 철거에 기쁨을 표했다. 진우 스님은 "동양금박 건물은 수십 년의 시간 조계사 일주문 일부 경관을 가리며 총본산 조계사의 아름다움과 위엄을 가리는 장애물이며 동시에 조계종 총무원에도 큰 그림자였다"면서 "마침내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조계사의 사격을 일신하는 중요한 계기를 맞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을 계기로 조계사는 국민들과 신도들에게 더욱 발전되고 새로운 모습을 보이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공간에서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동양금박 불사에 헌신한 공로로 전 조계사 주지인 서울 봉국사 회주 현근 스님과 안동 임강사 주지 지현 스님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현장에서는 함께한 신도들이 박수로 기쁨을 나눠 훈훈함을 더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역대 주지 스님들의 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조계사가 대한민국 불교의 중심이 되고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축사에서 "지혜의 문이 열리는 거룩한 날"이라며 "스님들의 원력과 신도들의 실천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고 축하했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등운 스님도 "사부대중이 한마음으로 정성을 모은 끝에 동양금박을 철거하게 된 것은 단순히 건물 하나를 해체하는 일이 아니라 총본산 성역화 불사의 뜻깊은 결실을 맺는 일이며, 조계사와 종단이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축하했다.

수년간 동양금박 건물 매입을 위한 신도들의 모연을 이끌어 온 이승현 조계사 신도회 총회장은 신도회를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하며 "조계사 신도회는 총본산 성역화 불사 완수를 사명으로 종단과 조계사의 미래에 항상 함께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박영환 조계사 신도회 자문위원장도 "무량 공덕의 인연을 바탕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며 거룩한 지혜와 자비를 배우고자 쉬지 않고 정진하는 참된 불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태고종 "국가유산 정책, 유형 비율 살펴야"

대선 정책 자료집 발간해
이재명 · 김문수 후보 전달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불교문화 보존과 전통문화 진흥을 골자로 한 정책 자료집을 발표했다. 특히 태고종은 국가유산 유형별 예산, 조직 구성의 편중성을 지적하며 비례성의 원칙을 명문화할 것을 처음으로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태고종 총무원은 5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에 '2025 국민을 위한 정책 자료집'을 각각 전달하고, 불교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정책 자료집에는 △사찰 중심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추진 △납골당 규제 완화 △종교문화시설 건립 예산지원 확대 △불교문화유산 보존 지원 활성화 △공공기관 종교편향 방지 △영산재 국내외 초청공연 정례화 및 예산 확보 △종교문화행사 지원 강화 △국가유산 유형별 인사·예산·조직 비례성 원칙 규정 등의 정책들이 담겼다. 특히, 태고종은 '국가유산 유형별 인사·예산·조직 비례성 원칙 규정'을 통해 특정 유형 종목에서 이뤄지는 인사·예산·조직 구성의 편중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태고종이 제안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노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사회에서 사찰 기반 노인복지 모델이다. 태고종은 "사찰은 전통적으로 고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명상, 기도, 쉼의 공간으로써 역할을 해왔다"면서 "사찰 실버스테이는 웰에이징과 웰다잉을 결합한 새로운 복지모델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납골당 규제 완화를 통해 현재 5000기로 제한된 사찰 납골당에 대한 규제를 폐지·완화해 국민들의 장례문화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태고종은 "납골당 규제 제한은 사찰이 수행하는 신행 및 국민의 종교문화적 수요를 반영하는 데 제약이 되고 있다"면서 "고령화 삼화와 다양한 장례문화 수요 증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태고종이 보유한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유산인 영산재의 해외공연과 전승관 건립 등 보존 관련 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신중일 기자

"지혜 불 밝힌 도의 국사 가르침, 우리 사회 정신 중심"

조계종, 5월 28일 도의 국사 다례재
"수행 전통, 미래 천년의 대원 실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5월 27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조계종조 도의 국사 다례재'에서 헌향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시원인 도의 국사(道義國師)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선풍을 선양하는 법석이 마련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5월 27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조 도의 국사 다례'를 봉행했다. 다례재에는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를 비롯한 원로의원 스님들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 각 포교신도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는 원로의장 자광 스님이 대독한 법어에서 "도의 국사는 이 땅에 전등의 당간지주를 세워 도업(道業)이 번창하고 법계가 윤택하도록 했다"면서 "국사께서 전한 법등은 육조와 임제의 현지를 참구하는 선문이 골골에 열리게 했으며 견성의 길이 열려 눈 밝은 선지식이 배출되고 조등(祖燈)은 더욱 밝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모두가 국사가 전등을 통해 베푼 법익(法益)이며 공덕(功德)"이라고 설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추모사에서 "도의 국사는 중원 선법의 정맥을 계승해 이 땅 해동에 지혜의 불을 밝혔고 그 등불은 단지 당대를 밝힌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선지식들이 시대를 넘어 출현한 인재불사의 토대가 됐다"면서 "가르침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자기를 찾는 길에 나섰고 그 길은 곧 우리 삶의 방향이자 사회의 정신적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선명상 수행법도 언급했다. 진우 스님은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복잡다단한 삶의 문제와 깊은 번뇌 앞에 서 있고 총체적 위기를 넘기 위해 근본으로 돌아가 선의 정신에서 해답을 찾고자 한다"면서 "선명상 수행법은 모든 이가 스스로 마음을 밝히며 자성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일상 속 실천 가능한 수행문화를 확산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것이야 말로 종조가 남긴 위대한 뜻을 오늘에 되살리는 일이며, 미래 천년을 향한 길을 여는 대원(大願) 실현"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은 1941년 제정된 '조선불교조계종 총본산태고사법'에서 명시한 도의 국사 기일인 음력 5월 2일에 맞춰 매년 다례를 봉행하고 있다.

임은호 기자

"상월원각대조사 가르침 잊지 말자"

천태종, 51주기 열반대재
5월 24일 구인사 광명전서



천태종이 총본산 단양 구인사를 창건하고, 종단을 중창한 상월원각대조사의 열반 51주기를 맞아 대조사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는 법석을 마련했다.

천태종(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5월 24일 총본산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상월원각대조사 51주기 열반대재'를 봉행했다.〈사진〉

종정 도용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분별 망상을 떠나 발심하여 일심청정 해탈의 길을 교시하신 대조사의 가르침을 따르며 중생교화의 원력을 받들어 국태민안과 국민화합을 기도하자"며 "눈과 서리에도 불변하는 잣나무를 심으신 깊은 뜻을 새기어 성불의 서원 다짐하며 다만 일심으로 용맹정진하기 바란다"고 설했다.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대조사님께서는 물질적 구원은 국가의 힘으로 가능하지만 마음의 구제는 불교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셨다"며 "청정한 참마음에는 거짓이 없고 탐욕이 없으며 갈등과 투쟁이 없다. 정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개인 개인이 한결같이 기도하고 청정한 마음자리를 지켜 나가는 공부에 매진하면 사회의 불안과 국가적 난제들은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
조계종 교육부장 덕림 스님

“출가-교육-복지, 원스톱 지원·관리”

법계별 · 직무별 맞춤형 교육 강화
연수교육 이수 의무화로 평생교육
출가자 감소 따른 기관 조정 필요성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절충안 모색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지난 4월 1일, 30년 만에 삼원 체제를 일원화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기존 총무원·교육원·포교원으로 분리돼 있던 조직을 총무원 체제로 통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원은 교육부로 재편돼 승가 교육, 승적 관리, 승가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조직 개편 시행 두 달을 맞아, 교육부장 덕림 스님에게 현장의 변화와 하반기 운영 기조 및 포교 종책 추진 방안을 들었다.

Q 교육원이 교육부로 전환됐다. 조직 개편의 취지는 무엇인가?

가장 큰 이유는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조직 통합을 통해 종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빠르고 일관된 정책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편은 30년 만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조직 개편으로, 단순한 구조 조정을 넘어 내부 혁신과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 교육, 포교 부문이 분산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운영되며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Q 일원화 후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현재 교육부는 승가 교육, 승적 관리, 승가복지 등의 업무를 총괄합니다. 이번 조직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스님 한 분에 대한 정보와 지원을 교육부에서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출가와 동시에 승적 등록과 적합한 교육기관을 안내하고, 교육과정 이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연수교육 연계까지 일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고령이거나 건강상 지원이 필요한 스님에게는 승적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도 빠르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 향상, 불필요한 행정 절차의 대폭 축소, 스님들의 편의성 제고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 업무 분화를 통해 각 분야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승가교육은 교육부, 재가자의 출가 장려는 포교부가 전담함으로써, 각 부서가 자신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재가자 출가 홍보부터 출가자에 대한 교육까지, 전 과정에서 정보 공유와 협업이 원활해져 출가자 감소나 탈종교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도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조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Q 포교부로 이관된 업무 협력 관계는?

조직 개편에 따라 출가상담과 홍보 업무가 포교부로 이관됐습니다. 앞으로 포교부가 출가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 교육부가 보유한 자료와 정보를 적극 공유하며 긴밀히 협력할 예정입니다. 특히 출가 후 행자 활동 단계까지 함께 관리하고자 합니다. 출가를 유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출가자가 스님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출가 전 상담부터 출가 후 행자 과정, 그리고 승가교육까지 전 과정을 포교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출가자의 질적 향상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승가 인재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Q 지난 30년간 교육원의 대표적인 성과로 △승가교육과정 체계화 △승가고시제도 정착 △연수교육 정례화를 꼽을 수 있다. 시대 변화에 따른 재교육 과정인 연수교육은 그 필요성과 효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연수교육 운영 방향은?

연수교육은 스님들이 수행자로서 지속적으로 지식과 역량을 계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사회적 요구도 계속 달라지는 상황에서 스님과 불교 지도자의 전문성 강화와 역량 향상을 위해 재교육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연수교육은 스님들의 포교 능력과 사찰 경영 역량, 사회적 역할 수행 능력 향상에 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향후 연수교육 운영 방향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법계별·직무별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연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 체계를 완성해 모든 스님의 전반적인 역량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조계종 교육부장 덕림 스님은 “승가 교육, 승적 관리, 승가복지 등 업무 총괄로 스님 한 분에 대한 정보와 지원을 교육부에서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 점이 일원화 후 가장 큰 변화”라고 말했다.

Q 승가고시 제도 안착에 대한 평가는?

승가고시 제도는 수행자의 자격 검증 체계로 안착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각 급수별 입장 차이와 역할의 다양성 속에서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승가고시가 승가 구성원이 갖춰야 할 기본 소양과 자질을 점검하는 과정이자, 자격에 따른 책임과 역할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Q 하반기 주요 종책은?

세 가지 핵심 종책이 추진됩니다. 학인스님들을 위한 교육기관 지원을 강화하고, 연수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또 69기 수계교육을 통해 2025년까지 100명 이상의 출가자 배출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출가자 감소로 인한 교육기관 운영과 조정의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6월 예정된 운영위원장 회의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되 교육의 질은 유지하는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아갈 것입니다.

‘Restart’ 지역미래불자장학…원법사 ‘101호’ 기부

동국대 건학위, 5월28일
원법사 장학증서 수여식
“새로운 100회 위한 시작”

2021년 11월 시작돼 지난 5월 15일을 100회를 맞은 불교종립 동국대의 시그니처 장학제도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이 새로운 100회를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 스님)는 5월 28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포항 원법사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사진〉

포항 원법사(주지 해운 스님)는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의 시작을 알린 ‘1호 기부 사찰’로 새로운 100회의 시작을 알리기 위한 101회 기부에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포항 원법사는 제1·33·76·87·100회에 걸쳐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을 후원했고, 누적 후원금액은 약 6억 원에 이른다.

이날 수여식에서 포항 원법사는 법과대학 불교동아리 ‘불법단체’ 회장과 회원 10명에게 총 1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원법사 회주 운보 스님은 “보시를 ‘베푼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갚는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면서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나 너와 내가 함께 어우러져 산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덕을 보고 빚을 지고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원법사의 원력을 시작으로 100회 장학금 전달이 있었고, 이를 통해 단과대학 불교동아리라는 도량 25채가 지어질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장학증서 수여 직후 장학생들은 원법사 사부대중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장학생을 대표해 이경현(법학과 2) 씨는 “이번 장학금은 부모님의 부담을 일부 덜어드리고 뛰어난 법조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학업에 더욱 정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제 바람을 꼭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 정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제 스포츠 법조인을 꿈꾸는 윤성현(법학과 3) 씨는 “동국대 입학 후 불교와의 인연은 더욱 깊어졌고, 단순한 신앙이 아닌 삶의 태도로 받아들이게 됐다”며 “이번 장학금을 통해 저는 ‘받은 것을 다시 환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불교계 제작 종교교과서 본심사 예비 합격

조계종 포교부 5월 28일 발표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부장 남전 스님)가 “불교계가 제작한 고등학교 종교과목 교과서 ‘삶과 종교’가 5월 28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본심사에 예비 합격했다”고 밝혔다. 향후 심의를 거쳐 8월 말 최종합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최종합격하면 내년부터 일선 고등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삶과 종교’ 제작은 2024년 6월 포교부와 교법사단의 첫 논의에서 불교계 교과서 부재를 인식하면서 비롯됐다. 이후 포교부는 교육청의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종교 교과서 개발 사업을 추진했고, 동국대출판문화원·불교교육연합회·교법사단과 적극 협력해 교과서 제작에 나섰다. 그렇게 탄생한 ‘삶과 종교’를 올해 2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심의를 신청했다. 고등학교 인정 교과서는 과목별로 주무 교육청이 배정되어 있으며, 종교교과서 심의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다.

현재 교육청 심의를 통과해 인정을 받은 고등학교 종교 과목 교과서는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개신교계 교단인 장로교계, 감리교계에서 출간한 ‘삶과 종교’ 3종으로, 불교계에서 제작한 교과서는 부재한 상황이다.

포교부장 남전 스님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불교계에서 개발한 최초 종교 교과서가 출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불기2569(2025) 을사년

해인사 生前預修齋
49일 기도

천년을 이어온 법보의 향기, 팔만대장경의 진리가 숨 쉬는 도량,
법보종찰 해인사에서는 이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참회와 발원을 통해
내세의 안락을 기원하는 **‘생전예수재生前預修齋’**를 봉행합니다.
생전예수재는 살아있는 동안 지은 허물과 업장을 깊이 참회하고
지극한 신심으로 공덕을 닦아 내세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인연을 짓는 큰 복전이 될 것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생전예수재에 수희 동참하시어, 모든 업장 소멸하고
상서선망 조상의 왕생극락과 가족, 이웃의 안녕을 기원하는 무량한
공덕을 쌓으시길 기원합니다.

운영법주 해인사 주지 혜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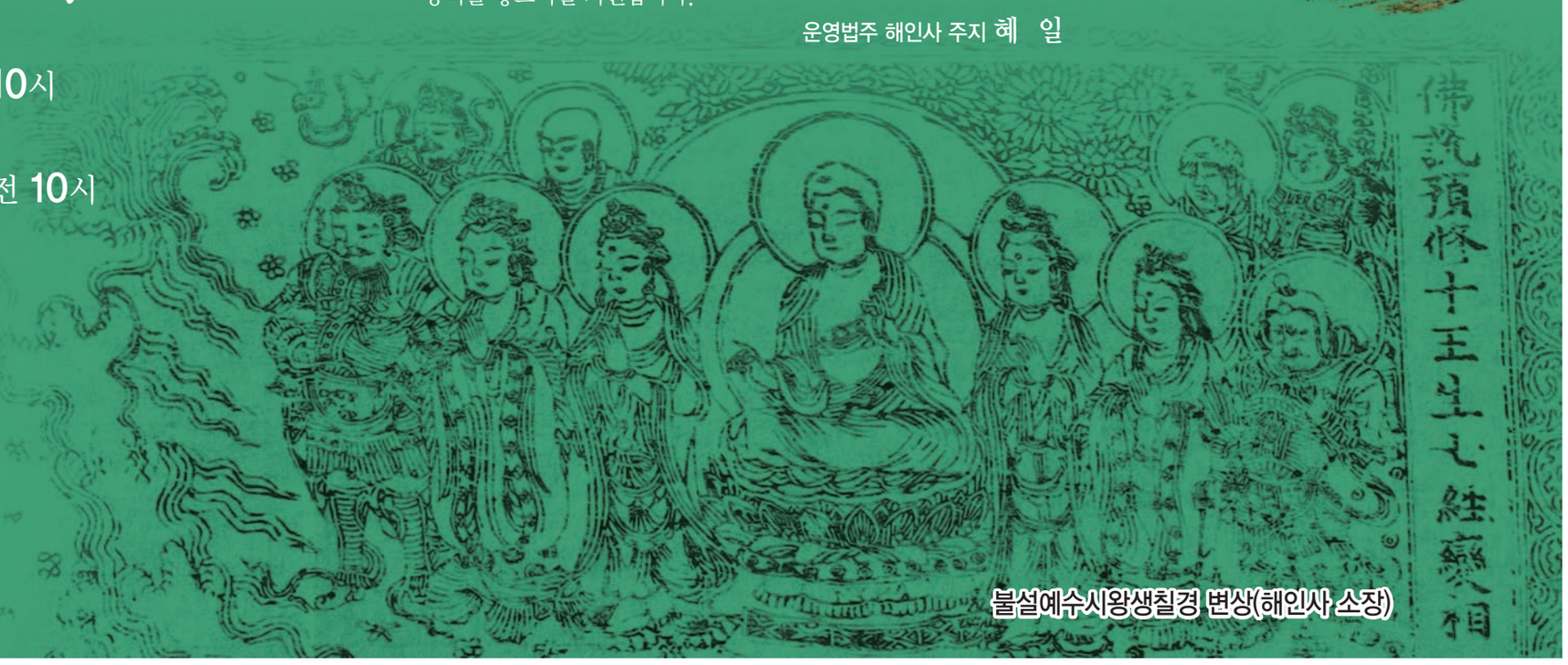


입재 7월 5일(음 6/11) 토요일 오전10시
초재~6재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막재(회향) 8월 22일(윤 6/29) 금요일 오전 10시
법회장소 해인사 대적광전 및 만불보전

동 참 금		
생 축	1인 3만원	
영가위패	1위 1만원	
설 판	大설판 100만원	中설판 50만원

▪문의 및 접수 접수실 055)934-3105~6
▪계 좌 안 내 농협 351-0744-6572-93 (예금주 : 해인사)

법보종찰 해인사


불설예수시왕생칠경 변상(해인사 소장)

‘선명상 지역축제’ 경주서 첫걸음

5월 27~29일 동국대 WISE캠
6월 부산 · 인천 이어 10월까지
‘선명상 마음챙김’ 전국 확산 기대

경주=하성미 부산주재기자

‘2025 국제 선명상 대회’의 지역 확산을 위한 ‘국제 선명상 지역축제’가 5월 27~29일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에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행사는 선명상 지역축제의 전국 순회 첫 번째 순서로, 명상의 생활화와 지역 명상 문화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알리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동국대 임석대동제와 연계해 캠퍼스 전역에서 ‘명상의 일상화’를 주제로 실용적인 프로그램들이 펼쳐졌다. 녹야원 특설무대, 용맹로, 선센터 대선방 등에서는 △심주 목걸이 체험 △촛불명상 △몸해력 키우기 △스머지 스틱 만들기 △핸드팬 사운드 명상 등 총 8개 강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심주 목걸이(마음의 구슬)’ 체험은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참여자들은 무작위로 뽑은 화두 문구를 받아 읽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자신만의 목걸이를 만들었다. 이어 각자 자신의 서원을 종이에 적고 친구들과 나누며, 명상이 단지 앉아 있는 수련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실천되는 마음공부임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이 됐다.



‘2025 국제 선명상 대회’의 지역 확산을 위한 ‘국제 선명상 지역축제’가 5월 27~29일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를 시작으로 대장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한 참가자는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라는 화두를 받았고, 다른 학생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랑받고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반야심경〉을 독송하겠다는 서원을 적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학생은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받고 멍해졌지만, 그 뜻을 곱씹다 보니 마음이 묘하게 차분해졌다”고 말했다.

심주 목걸이 체험을 안내한 하림 스님(부산 미타선원장)은 “심주는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되묻는 수행의 시작이고, 화두는 혼란과 번뇌 속에서 다시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화두 수행을 시연하며 “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묻고 “해결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말고, 그저 의심만 하라. 그 순간에 우리는 생생한 지금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함께 프로그램을 안내한 혜주 스님(동국대 WISE캠퍼스 아동청소년교육학과장)은 “화두는 깨어 있도록 하는 삶의 질문이고, 서원은 자신과 타인을 위한 따뜻한 다짐”이라며 “이처럼 정성껏 적은 화두와 서원은 앞으로의 삶을 명상으로 정립하는 방향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효신 스님(불국사 문화국장)의 ‘촛불명상’, 금후 스님(동화사 승가대학감)의 ‘내려놓고선’, 최규리 앰버서더의 ‘몸해력 키우기’가 진행돼 참가자들을 선명상으로 이끌었다. 29일에는 자묵 스님의 ‘그림책과 떠나는 마음여행’과 핸드팬 명상 퍼포먼스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국제 선명상 지역축제는 경주를 시작으로 6월 부산 송정해수욕장과 인천 송도에서 ‘글로벌 명상축제’로, 7월 세종 광제사, 8월 천진암, 9일 서고사, 10월 봉선사 등에서는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은 “선명상은 문화이자 철학이며 치유의 방법”이라며 “지역과 계층을 넘어 모두가 마음의 주인으로 평안을 얻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봉녕사, 첫 팔관재계 수행법회…“바른 삶 살길”

5월 24~25일, 음욕 · 식욕 끊어
참가자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

하루낮 하루밤 동안 8가지 계를 지키는 출가수행으로 해탈의 씨앗을 심는 팔관재계 수행법회가 수원 봉녕사에서 처음 열렸다.

계율근본도량 봉녕사(주지 진상 스님)는 5월 24~25일 양일간 ‘제1회 팔관재계 수행법회’를 봉행하고, 불자 수행의 새로운 장을 마련했다. 법회에는 오계를 수지한 불자 총 44명(우바새 6명·우바이 38명)이 동참했다.

팔관재계는 사찰에서 하루 동안 출가계를 지키며 해탈 열반의 인연을 심는 수행법이다. 일체 음행을 금하고 오후불식으로 음욕과 식욕을 끊는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팔관재계 수계식, 조석예불, 〈우바새계경 독송〉, 선명상, 108배, 공덕행 등을 통해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회는 스님들의 법문과 수행담 나눔으로 마무리됐다.



봉녕사가 처음으로 마련한 ‘팔관재계 수행법회’에는 총 44명의 불자가 동참했다.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은 “씨앗을 뿌리고 가꿀 수 있는 밭을 드릴 수 있지만, 마음 밭에 인을 심어서 싹을 틔우고 생사해탈의 과를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수행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라며 “수없이 많은 정보와 물질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노예가 되는 삶을 멈추고, 팔관재계 수행을 통해 올바른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봉녕사 승가대학 석좌교수 도혜 스님은 “팔관재계 수행 기간은 자기 마음을 청소하는 시간이다. 마음을 청소하면서 생기는 기쁨과 행복함이 쌓여서 성품이 바뀌고 향상될 것이며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율주 적연 스님은 “새벽기도 후 공덕행으로 풀 뽑기를 했는데, 뽑아도 계속 나는 풀이지만 계속 뽑고 또 뽑으면 아름답고 청정한 도량이 되는 것처럼 번뇌도 계속 제하고 제해가면서 내 마음의 수행을 계속 이어나가 자신도 기쁘고 남에게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불자가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봉녕사는 앞으로 팔관재계 수행법회를 정기적으로 봉행해 불자 수행의 한 축으로 자리잡게 할 계획이다. 제2회 팔관재계 수행법회는 오늘 8월 16일에 진행되며, 접수는 8월 10일까지다. 모집 인원은 우바새(남) 20명, 우바새(여) 50명으로 선착순 마감한다. 자세한 내용은 봉녕사 종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031)242-5412 김내영 기자

민중불교운동 40주년 기념식 열린다

6월 6일 서울 조계사 극락전
민주화 역사 기록 · 희생자 추모

1980년대 군부독재에 맞서 민중불교운동을 이끌었던 민중불교운동연합(이하 민불련)의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6월 6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다.

민불련은 5월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40주년 기념식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맞이하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구심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근 결성된 40주년 기념추진위원회는 인묵 스님(조계종 어산어장)과 공화춘 여사(여익구 1기 의장 부인), 서동석 3기 의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인묵 스님은 간담회에서 “격동하는 시대에 민주화를 위해 나선 스님과 재가자가 힘을 합쳐 민불련을 발족한 지 올해로 40년을 맞았다”며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보자는 뜻에서 조촐한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동석 3기 의장은 “민불련의 실제 활동 기간은 6년 남짓이지만, 우리나라 민주화와 불교의 민주적 개혁에 큰 역할을 했다”며 “이번 기념식이 역사를 기록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자리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민불련은 1985년 5월 4일 ‘민중의 고통 해방과 자주·민주적 불교 건설’을 서원한 사부대중의 연합조직으로 출범했다. ‘불교재산관리법’ 폐지와 10.27법난 공론화, 94년 종단 개혁 등 불교계 안팎의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다.

6월 6일 오전 10시 조계사 극락전 1층에서 열리는 기념식에는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진경 스님을 비롯해 민불련 회원과 사부대중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한국 사찰음식, 파리에 울림 전하다

문화사업단, 5월 23~24일
‘르 꼬르동’ 파리서 특강



한국 사찰음식이 프랑스 파리에 깊은 울림을 전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은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르 꼬르동 블루(Le Cordon Bleu)’ 본교에서 5월 23~24일 양일간 사찰음식 특강을 개최했다.〈사진〉

5월 20~21일 르 꼬르동 블루 런던 캠퍼스에서 진행된 강의에 이은 이번 특강은 사찰음식 세계화를 위한 문화사업단의 해외 협력 사업 일환이다.

특강은 조계종 사찰음식 장인 1급인 여거 스님(용인 극락사 주지)이 맡아 현지 참가자들과 한국 사찰음식의 철학과 전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23일에는 르 꼬르동 블루 본교 재학생 60여 명을 대상으로 △오이만두 △가지오이냉국 △방울토마토가지볶음 등 여름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가 소개됐다. 24일에는 일반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추들깨주먹밥 △모듬버섯장떡 △오이깍두기김치로 구성된 ‘봄나들이 도시락’을 시연했다. 특히 특강에서는 사찰음식에 담긴 불교 철학과 수행적 실전의 가치, 전통 장류의 발효 과정과 특징 등 깊이 있는 설명이 함께 이뤄졌다.

참가자들은 여거 스님이 직접 담근 전통 간장과 된장을 시식하며 한국 장 문화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 참가자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조리법과 그 안에 담긴 철학적 가치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고, 또 다른 참가자는 “음식 관련 시험을 준비 중인데 스님의 강의에서 깊은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다.

문화사업단은 “이번 특강은 한국 사찰음식이 지닌 철학과 지속 가능성의 가치를 공유하는 소중한 계기였다”며 “앞으로도 르 꼬르동 블루를 비롯한 다양한 해외 문화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찰음식의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내영 기자



“무량사에는 천년의 역사
와 함께 한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취가 남아있습니다”

부여 무량사에서 매월당의 지혜를 찾다

천년고찰 무량사는
신라 문무왕때 범일국사가 창건하였으며, 산세가 매우 아름답고 울창하여 거찰의 면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량사는 국내에서 제일가는 아미타 기도도량으로 극락전에 봉안되어 있는 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동양 최대의 규모로써 거대한 전각의 내부 공간을 감각적으로 꽉 메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염원과 손길이 담긴 다양한 성보는 국가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 받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무량사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무량로 203
Tel. 041-836-5066 Fax. 041-836-5065 https://muryangsa.net/

국가유산청 충청남도 부여군 대한불교조계종 무량사

공동모연 캠페인

생명나눔! 불자님의 자비 손길이
캄보디아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낡은 나무 책상위, 고사리 손에 쥐어진 몽당연필!
뭉그러진 연필과 공책을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의 작은 소원!
지금 우리가 내미는 작은 손길이 아이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함께 열어주십시오.

지원 물품 학용품(가방, 노트, 연필, 연필깎이…), 신발, 의약품 등
후원 계좌 농협 053-01-269062 (현대불교신문)
※물품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후원 문의 02)2004-8214 (홍승도)
캄보디아 현지 방문 1차 : 6월 9일~14일 2차 : 모연중

현대불교신문사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더 늦출 시간 없다…조세이탄광 희생자 반드시 고국으로”

관음종,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봉행

5월 24일, 우베시 남녀공동참화센터서
홍파·법명 스님 등 사부대중 60명 동참
거센 비에도 ‘극락왕생–유골발굴’ 한마음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김내영 기자

그날도 갱도는 평소처럼 어둡고 숨 막혔다. 조선에서 끌려와 조세이(長生)해저탄광에서 채탄 작업을 하던 이들은 살기 위해 곡괭이를 들고 어둠 속을 헤맸다. 1942년 2월 3일, 예고된 비극은 현실이 됐다. 해저면과 가까워 누수가 반복되던 갱도는 끝내 무너졌고, 바다는 피할 틈조차 주지 않은 채 그들을 삼켰다. 사고로 조선인과 일본인 183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렇게 83년이 흘렀다. 그러나 갱도에 수장된 희생자들의 유골은 아직도 수습조차 되지 못한 채, 그날의 진실과 함께 바다 깊이 잠들어 있다. 다행히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행동에 나선 이들의 노력 덕분에 지난해 갱도 입구가 확인되고, 잠수 조사가 이뤄지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해가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염원하며 관음종 사부대중은 올해도 사고 현장을 찾았다.

희생자 추모–한일 협력 발원하는 위령재

관음종(총무원장 법명 스님)은 5월 24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문화시설 남여공동참화센터에서 ‘일제강점기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를 봉행했다. 2017년부터 위령재를 주관하고 있는 관음종은 조세이탄광 유골 발굴과 한일 간 협력 촉구 활동에 앞장서 왔으며, 올해로 7번째 위령재를 맞았다. 특히 올해는 관음종 창종 60주년이자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양국의 실질적인 협력을 기원하는 사부대중의 염원이 더욱 절실하게 담겼다.

위령재에는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과 총무원장 법명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장 혜산 스님, 교육원장 도선 스님, 조계종 어산어장 동희 스님, 관음종 부원장 도각 스님, 중앙종회부의장 법웅 스님, 총무부장 홍경 스님, 수교부장 도문 스님, 사서실장 법룡 스님, 영산작법연구회 소속 비호·해사·묘광·일구 스님과 불자 등 60여 명이 동참했다. 현지에서는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회(이하 새기는 회)’ 이노우에 료코 공동대표와 회원들이 참석했다.

끌려온 조선인들, 극한의 환경서 작업

조세이탄광은 시모노세키 남쪽 61km 지점 야마구찌현 우베시에 있는 해저 탄광으로,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대거 투입되었던 곳이다. 조선 각지에서 끌려온 이들은 감시와 통제 속에 하루 12시간 2교대의 고강도 노동에 시달렸고, 해저 갱도의 고온과 협소함이라는 최악의 작업 환경 속에서 일해야 했다. 탄광회사는 더 많은 석탄을 캐기 위해 해저 채굴 제한구역까지 작업을 강행하고, 갱도를 지탱하는 갱목 일부를 제거하는 등 안전수칙을 무시했다.

결국 1942년 2월 3일 오전 9~10시경, 갱도는 붕괴돼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이 수몰됐다. 생존자는 단 두 명. 그러나 태평양전쟁 발발 직후 발생한 참사였던 만큼, 일본 정부와 탄광회사는 국민 사기 저하를 우려해 사고를 은폐했다. 이후 1970년대 후반, 양심적인 역사학자 야마구치 다케노부 씨의 조사로 사건의 실상이 알려졌고, 1991년에는 일본 시민들을 중심으로 새기는 회가 발족돼 연구 및 유족 찾기, 추모비 조성 등의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2013년 사고해역 500m 인근 가정집을 매입해 추모비와 광장을 조성했고 현재까지 유골 발굴을 위한 현장조사에 나서고 있다.

수몰사고의 은폐된 진실 찾는 양심의 소리

한국 불교계는 2015년 히로시마에서 열린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를 계기로 조세이탄광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당시 히로시마 총영사가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조세이탄광 희생자 위령재를 요청했고, 2016년 1월 현지에서 위령재를 봉행했다. 마침 창종 50주년을 맞은 관음종이 일제강점기 희생자 영골 환국 사업을 종책사업으로 선포하면서 이를 계승해 나가고 있다.

이날 위령재는 당초 추모공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150mm 이상의 폭우 예보로 인근 실내 문화시설로 장소가 변경됐다. 본 행사에 앞서 추모단은 빗속을 뚫고 조세이탄광 갱구 앞을 찾아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식을 가졌다. 어산어장 동희 스님은 희생자들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며 위로했고, 종정 홍파 스님을 비롯한 추모단도 헌화로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후 추모단은 500m 떨어진 추모광장을 참배한 뒤, 위령재가 열리는 장소로 이동했다.



올해 창종 60년을 맞은 관음종이 5월 24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에서 ‘일제강점기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를 봉행했다. 2017년부터 위령재를 주관해오고 있는 관음종은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유해 발굴을 위해 한일 양국이 힘을 모아주길 촉구했다.

위령재는 영산작법연구회장 도문 스님의 집전으로 시작돼 법화의식과 도각 스님의 상축, 관음합창단의 음성공양, 살풀이·극락무 등 불교의례가 이어지며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양국 협력해 희생자 원한–유가족 고통 해소”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은 추모사에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올해 한일 양국 정부가 희생자 유골 발굴에 적극 협력해주길 기대했다. 법명 스님은 “2024년 7월 새기는 회가 개최한 ‘갱구를 열자’ 집회를 통해 탄광 노동자들의 생존의 마지막 문이었던 갱구가 열렸고, 희생자들의 유골 발굴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양국 정부는 희생자 유골 발굴을 위해 협의하고 ‘정치적 문제’가 아닌 ‘인도적 문제’로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도 합장한 채 “차가운 바다 속에 가라앉은 183명 영가를 떠올리며 자비심으로 발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올해는 유해 발굴이 꼭 이뤄져, 영가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종회의장 혜산 스님은 “깊고 어두운 바다 속에 잠들어 계신 영령들이 부디 고통과 원한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왕생극락 하길 기원한다”고 애도했다.

조계종 어산어장 동희 스님도 “이제 한일 양국 정부와 뜻있는 사람들이 나서 희생자들의 원한을 풀고, 유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할 때”라고 역설했다.

갱구 발견으로 조사 시작, 재정 문제로 난항

이노우에 료코 새기는 회 공동대표는 지난해 2월 3일 개최된 82주기 추도식에서 시민의 힘으로 갱도 입구를 열겠다고 약속한 뒤 9월 25일 실제 갱구를 발견했다며, 1년간의 유의미한 변화를 공유했다. 10월 26일에는 갱구 앞에서 추도식을 올렸고, 올해 4월 1일에는 “유골을 슬프게 내버려 둘 수 없다”며 잠수 조사를 제안한 이사지 요시타카 다이버와 한국인 다이버 2명이 한일 합동 잠수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당시 피야 안에는 수많은 철관과 목재가 엉켜 있어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수심 25m 지점에 남아 있는 4개 철관은 인력으로 인양이 불가능해 크레인 작업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노우에 공동대표는 “하루 작업비만 200만엔에 이르러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유골 발굴을 위해 잠수조사를 시도할 때마다 새로운 난관에 봉착하고 있지만 하나 하나 헤쳐나가며 포기하지 않고 유골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가 가장 중요한 해다. 일본 내에 방치된 이 유골을 그대로 둔 채 ‘미래 지향’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며 “한일 양국이 ‘조세이탄광 유골 수습’을 공동 사업으로 선언할 것”을 촉구했다. 새기는 회는 6월 6일 갱구 보강 공사, 6월 18~19일 4차 잠수조사를 계획 중이다.

유골 수습에 시민의 관심과 지원 절실

역사의 현장들 함께한 불자들도 마음을 보탰다.

“처음 위령재 참여했는데, 갱도 입구를 보자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이제는 관음종을 넘어 양국이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길 간절히 바란다.”(김기순 씨)

“지금껏 역사도 모르고 편하게 살아 죄송하다. 지난해 갱도 입구를 찾아 조사의 첫발을 내딛었다는 소식에 참 반가웠다. 다 함께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이판옥 남원 심경암 불자)

한편 추모단은 위령재에 앞서 5월 22일 일본 고야산 금강봉사를 찾아 위령재 원만회향을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조세이탄광 갱구에서 추모의식을 하고 있는 모습.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이 헌화하고 있다.


위령재 봉행 후 촬영한 단체사진.



홍파 스님이 희생자 발굴조사에 100만엔을 지원했다.


추모 의식 중 눈물을 보이는 불자.

“유해 발굴, 올해 반드시 성과 이루길”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

‘새기는 회’에 100만엔 기부
피야 장애물 제거 등에 보탬



“우리는 조세이탄광 희생자들의 아픔을 잊지 않고,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마음을 모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정성과 노력이 모여 오늘의 작은 진전을 만들었고, 앞으로도 분명 유해 발굴이 실현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이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유골 수습을 위한 최근의 변화에 기대를 나타냈다. 지난해 9월 시민모임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회(새기는 회)’가 조세이탄광 갱구를 발견하고, 한일합동 잠수조사가 이뤄지는 등 발굴 작업에 실질적인 진척이 있었다.

총무원장 재직 시절인 2017년부터 조세이탄광 유골 환국 활동에 꾸준히 힘써온 홍파 스님은 “바닷속에 잠들어 있는 유해를 하루빨리 수습해 그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매년 이곳을 찾고 있다”며 “이 사고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있는 기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음종 창종 60주년을 맞은 올해, 홍파 스님은 그 뜻을 기려 새기는 회에 100만엔(한화 약 1000만원)을 기부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후원이다. 현재 새기는 회가 진행 중인 피야 내부 장애물 제거 등 잠수조사 목적의 크라우드펀딩에 정성을 보태기 위함이다. 홍파 스님은 “잠수조사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안다. 적은 금액이지만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전했다.

다만 여전히 유골이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까지는 장애물로 등으로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홍파 스님은 “바다 속이다 보니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자주 발생해 안타깝다”며 “올해 안에는 사고 추정지에 다다를 수 있기를, 그리고 유해 발굴에서도 꼭 성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홍파 스님은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관음종도 계속해서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김내영 기자

“한일 양국,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

진상 규명·유해 수습 촉구
정치권 동참이 전환점 되길



“우리 국민이 강제로 끌려가 고된 환경에서 일하다 희생됐습니다.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이 조세이탄광 수몰사고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유해 수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법명 스님은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도 1970년대 후반 일본의 양심적인 역사학자 야마구치 다케노부 씨의 조사 덕분”이라며 “그 이후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관음종은 시민모임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회(새기는 회)’와 조세이탄광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재를 꾸준히 봉행해 오며 아픈 역사와 함께해 왔다. 이들의 헌신은 점차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고, 정치권에서도 유해 수습과 역사적 정의 실현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법명 스님은 이러한 변화가 한일 양국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했다. 스님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지금 일본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가 책임감 있게 나서서 유해가 하루빨리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억울하게 희생된 183명의 영가 한을 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오는 6월 18~19일, 새기는 회가 준비 중인 잠수조사에 대해서도 진심 어린 바람을 전했다.

법명 스님은 “이번 잠수조사에서 결정적인 실마리가 드러나, 오랜 시간 멈춰 있던 유골 수습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황경환 이사장 “정지·정념으로 해탈을”

5월 24일, 불서 출간기념법회
전법 · 장학금에 10억2000만원
“불교 핵심은 결국 인식 전환”

경주=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황경환 21세기불교포럼 이사장은 5월 24일 경주 라한 셀렉트 컨벤션홀에서 불서 출간기념법회를 봉행하고, 불교 전법과 교육을 위한 기금을 기탁했다.

불교의 참된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한 재가불자의 원력이 자비로운 회향으로 꽃피웠다. 황경환 21세기불교포럼 이사장(동국대 불교학부 석좌교수)은 5월 24일 경주 라한 셀렉트 컨벤션홀에서 불서 출간기념법회를 봉행하고, 불교 전법과 교육을 위한 기금을 기탁했다.

이번 법회는 초기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정지(正知)’와 ‘정념(正念)’을 현대사회에 다시 전하고자 하는 전법의 실천이었다. 황 이사장은 자신의 삶과 수행의 정수를 담아 시집 〈正知, 正念 하면서 미련없는 작별을〉을 집필했고, 동시에 팔리어 문법의 정확한 이해를 통해 불전 해석의 기초를 다지고자 쇼바라니 다슈 원저를 이자랑 동국대 교수의 번역으로 〈팔리어 문법 – 불전의 용례로 배운다〉로 출간하도록 전폭 지원했다.

행사 1부는 삼귀의례와 국민의례, 내빈 소개에 이어 황 이사장이 동국대에 북한 출신 학생 불자 장학금 2000만원, 사단법인 21세기불교포럼 발전기금 10억원을 전달하는 뜻깊은 순서로 진행됐다.

황경환 이사장은 시집 출간의 의미를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정지(正知)와 정념(正念)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화두”라고 밝히며 “이 시집은 문학 작품일 뿐만 아니라 죽음과 윤회, 업과 해탈에 대한 불교적 통찰을 담은 전법의 언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언젠가 이 몸을 버려야 하는 존재이며, 숨이 끊기는 찰나에 평소 말하고 행한 업이 다음 삶을 결정한다”며 “삶의 순간순간을 정지와 정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해탈의 길로 나아가는 수행”이라고 강조했다. 또 “불교 수행의 본질은 인식을 바꾸는 것이며, 거짓을 진실로 오인하고 살아가는 무명(無明)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실천”이라며 “이 책이 그 첫걸음이자, 전법의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부에서는 황 이사장이 ‘정지(正知)정념(正念)은 해탈열반으로 인도하는 원군’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그는 “정확한 앎과 정념이 우리 삶을 치유하고 자유롭게 한다”고 강조하며, 시집 출간 역시 이를 현대의 전법 언어로 번역하려는 실천적 시도였음을 일깨웠다.

이어진 저녁 만찬 강연에서 황 이사장은 일상적이고 실존적인 화법으로 삶과 죽음, 인식의 전환을 주제로 깊은 울림을 전했다. 그는 “하루를 열심히 산다는 것은 곧 하루를 정념으로 죽는 연습을 하는 것”이라며 숨이 멎는 찰나에도 평소 말과 행위가 다음 생을 결정짓는 씨앗이 된다는 윤회의 진리를 설파했다. 또한 정지와 정념은 단번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며, 밥을 먹고 말하고 걷는 일상에서 꾸준히 훈련될 때 비로소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할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쿠무다 부산명상협회 “파도 위 균형처럼 마음 중심 잡길”

5월 23일, 송정해수욕장서 개최
해운대중 3학년 200여 명 참가
‘서핑+명상’ 체험으로 정서 회복


쿠무다 부산명상협회와 부산서핑협회가 5월 23일 부산 송정해수욕장에서 청소년을 위한 명상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에서 5월 23일 청소년을 위한 이색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쿠무다 부산명상협회(가칭 BMA)와 부산서핑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는 해운대교육지원청 희망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해운대중 3학년 학생 2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핑과 명상을 접목한 ‘바다 위 명상 체험’으로, 학생들의 정서 회복과 자기 성찰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기획됐다. 오전에는 전문 강사의 지도로 서핑 체험이 진행됐으며, 백사장에서는 쿠무다 이사장 주석 스님과 함께하는 선명상 수련이 이어졌다.

주석 스님은 인사말에서 “파도 위에서 중심을 잡는 연습은 곧 인생에서 균형을 잡는 수행”이라며 “자연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명상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집중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스님과 함께 “Who am I?”를 외치며 점차 분위기에 몰입해 갔다. 명상 자세를 따라하며 바닷소리에 귀 기울이던 학생들은 차츰 차분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체험에 참여한 한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바다에서 서핑하며 정말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고, 명상 시간에는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학교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특별한 활동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명상 대중화’를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BMA는 청소년을 비롯해 장애인, 직장인, 노년층 등 전 계층을 아우르는 명상 콘텐츠 개발과 확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현재 BMA는 부산시 산하 체육단체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6~8월 경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부산을 중심으로 전국 5개 지부를 설립해 명상 대중화의 전국적 확산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BMA는 △6월 동명대와 업무협약(MOU) 체결 △6월 28~29일 제2회 글로벌 명상문화페스티벌 개최(송정해수욕장) △7월 2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명상 강의 △9월 27일 조계종 국제선명상대회와 연계한 ‘108배 경진대회 및 명상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 도심에 ‘명상 수행 허브’ 열린다

남천명상아카데미 개원
5월 24일, 개원식 봉행



불교 명상 수행과 교리 강의를 아우르는 도심 속 수행처 남천명상아카데미가 문을 열었다.

남천명상아카데미(원장 이숙희)는 5월 24일 부산 수영구 남천동 이광재정형외과 건물(5층)에서 개원식을 개최했다.〈사진〉 개원식에서는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가 법어를 전하며 개원을 증명했다.

남천명상아카데미는 명상 기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불교 입문 강좌, 위빠사나 집중수행, 청년 열린 법회 등을 운영하며 청년 불자 전법과 불교 명상 대중화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방침이다. 개원을 기념해 5월 31일에는 BTN ‘소나무’ 진행자 광우 스님이 명상치유법회를, 6월 14일에는 문광 스님, 28일에는 준한 스님이 각각 토요법회를 맡는다.

이숙희 원장은 “남천명상아카데미는 청년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성찰할 수 있는 따뜻한 배움터”라며 “불교가 종교를 넘어 마음의 기술이자 삶의 지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인생각본과 바사나’로 만나는 내면 치유

한국불교상담학회, 5월 24일
‘내면 성장 · 치유’ 주제 워크숍



한국불교상담학회(회장 안양규)는 5월 24일 동국대 WISE캠퍼스 100주년기념관에서 ‘제2회 한국불교상담학회 워크숍’을 개최했다.〈사진〉

(사)금강명상문화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워크숍은 ‘내면 성장과 치유: 교류분석과 불교상담의 만남’을 주제로, 심리치료 이론인 ‘인생각본(Life Script)’과 불교 사상의 ‘바사나(Vāsanā)’를 통합적으로 탐구하는 자리로 열렸다.

워크숍은 총 6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오전에는 자아 탐색을 주제로 한 이론 강의가 진행됐고, ‘Free Child 난장판’ 활동을 통해 자유로운 교류의 시간도 이어졌다. 오후에는 인생각본과 바사나에 대한 심화 강의와 함께 K-JPAQ 검사를 활용한 자기 점검, 감정 반응을 직면하는 실습 등이 진행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연꽃문화제 대상에 오수연·박영은

5월 22일, 시상식 개최



사단법인 동련 부산지부(회장 효산 스님)는 5월 22일 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에서 ‘제41회 부산연꽃문화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연꽃문화제에는 총 478명의 어린이가 참가해 그리기 부문 439명, 글짓기 부문 39명이 응모한 가운데 총 80명이 수상했다.

대상인 부산광역시장상은 그리기 부문에서 오수연(사하초 2학년), 글짓기 부문에서 박영은(부산교대부설초 3학년) 학생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사진〉

효산 스님은 인사말에서 “매년 훌륭한 작품들이 이어져 연꽃문화제가 더욱 풍성해지고 있다”며 “내년에도 더 많은 어린이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당신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월정사, 대선 앞두고 토론회
진보 · 보수 의미 고찰해 눈길
200여 대중 참여 열띤 토론

이동격 강원지사장



평창 월정사는 5월 24일 경내 대법륜전에서 '나는 진보인가, 보수인가'라는 주제로 특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에서 진보와 보수의 의미를 고찰하는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월정사는 5월 24일 경내 대법륜전에서 '나는 진보인가, 보수인가'라는 주제로 특별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월정사가 주최하고 오대산생명문화원이 주관했으며, 사찰에서 보기 드문 정치·철학 담론의 장으로 주목받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지 정념 스님을 비롯해 교구 소속 스님들과 대학생, 시민 등 2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대전환포럼 이철규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고 세 명의 토론자가 각기 다른 시각에서 진보와 보수의 의미를 탐색하는 발제를 진행했다.

정념 스님은 인사말에서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혼돈과 분열을 넘어서기 위해 우리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성찰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이 공론의 광장에서 갈등을 조율하고 담론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첫 발제를 맡은 이해영 교수(한신대 글로벌인재학부)는 '진보란 무엇인가 – 붓다와 마르크스의 경우'를 주제로, 동양의 불교사상과 서양의 마르크스주의를 비교하며 '해탈'과 '해방'이라는 공통된 지향점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진보의 개념을 조명했다.

김명섭 교수(연세대 정치외교학과)는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을 넘어서'라는 발제에서 현대 정치 담론 속 진보와 보수의 상대성과 시대별 의미 변화를 역사적으로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진경 교수(서울과학기술대 인문사회교양학부)는 '진영을 가로지르는 진보와 보수의 개념'에서 진보와 보수의 개념을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철학적으로 재정의했다. 그는 현실 정치 속에서 나타나는 '진보 속 보수'와 '보수 속 진보' 현상을 짚고, 인간 인식의 체계와 지향성의 차원에서 이념을 새롭게 성찰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발표자들과 청중 간의 질의응답과 토론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오대산생명문화원장 현기 스님은 회향사를 통해 "옛 성현의 말씀 중에 '인(因)이 부족하면 연(緣)을 강화하고, 연이 부족하면 인을 강화시킨다'는 말이 있다.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 어떤 인과 연이 강하고 약한지 살펴야 사회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보수와 진보, 강과 산이라는 구별을 넘어 한곳에 머물지 말고 우리 모두 강산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철의 도시 광양서 불교문화 꽃 피우다

지역 불교人 **신명옥 광양 불암사 유물전시관 이사장**



'철의 도시'로 불리는 전남 광양. 산업과 항만의 이미지가 강한 이 도시에도 조용히 불교문화의 숨결을 전하는 공간이 있다. 섬진강 줄기 너머 하동의 풍광이 내려다보이는 불암산에 자리한 '불암사 유물전시관'이다.

이곳은 광양에서 유일한 민간 불교유물 전시공간이다. 삼국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불교유물과 민속용품까지 다양한 전시품이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전시관을 운영하는 신명옥 불암사 유물전시관 이사장〈사진〉은 "이곳은 제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간"라며 조용히 웃음을 보였다.

불암사 유물전시관은 사찰 내부 운영비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신 이사장은 "유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만큼은 여느 공공기관 못지 않다"고 말한다. 관람객의 반응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이 작은 절에 이런 유물이 있네"라며 놀라움을 표한다.

"학자도 오시고 일반 불자들도 많이 오세요. 책에서만 봤던 유물을 가까이서 접했다며 감사를 표하실 때 가장 보람을 느껴요."

관람객들의 감동은 전시물의 수준에서 비롯된다. 전시관에는 통일신라 금동불입상, 고려 흑백상감물고기문 매병, 감지은니묘법연화경 7권 완질본, 조선 삼존불감과 석제연꽃무늬사리함 등 다수의 문화유산 지정 대상 유물과 민속용품이 가득하다.

무엇보다 유물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를 전하는 신 이사장의 설명이 관람객의 마음을 움직인다. 신 이사장이 가장 아끼는 유물은 조선시대 궁중에서 사용된 청동 촛대다. 고풍스러우면서도 해학적인 조형미를 지닌 이 촛대는 불자들과도 깊은 인연이 닿아 있다.

불암사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사찰이다. 전통문화자원이 부족한 광양에서 전시관은 독보적인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광양뿐 아니라 인근 도시에서도 가족 단위 관람객이 꾸준히 찾아온다.

"예전에는 문화생활을 위해 멀리 가야 했지만, 이젠 가까이서 우리 역사와 유물을 접할 수 있다는 데 다들 만족해하시더군요. 이 작은 전시관이 지역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어요."

최근 불암사는 자연석으로 조성된 '굴법당'을 중심으로 기도 도량을 새롭게 정비하고 있다. 거대한 바위 아래 자연 석굴 형태의 공간은 전통적으로 스님들의 기도처였다.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웠던 시기에 신도분들을 위해 약사여래불을 봉안하고 기도도량으로 가꿨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병으로 힘들던 분들이 이곳에서 기도를 드리고 건강을 회복하는 일이 자주 있어요."

끝으로 신명옥 이사장은 "불암사 유물전시관은 누구나 편히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고향 집 같은 곳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다문화·지역사회 함께한 '어울림한마당'

행복한이주민센터, 나눔과비움
5월 24일 오산시청 광장서



이주민과 다문화가정, 지역사회가 하나 되어 어우러지는 특별한 나눔 축제가 오산시청 광장에서 펼쳐졌다.〈사진〉 5월 24일 열린 '2025 이주민과 함께하는 문화나눔 어울림한마당'은 10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포용과 상생의 공동체 정신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어울림한마당은 행복한이주민센터(센터장 이선미)와 사단법인 나눔과비움(이사장 김동희)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다. 오산시청과 시의회, 국회의원실, 경찰서, 환경운동연합, 여성단체협의회 등 지역 내 공공기관과 시민단체도 함께했다.

시민들은 행사장 곳곳에서 펼쳐진 문화공연과 나눔 바자회, 전통음식 체험 등에 적극 참여하며 다문화 공동체와 함께하는 지역사회의 깊은 연대 의식을 드러냈다. 특히 나눔 바자회는 각국 전통음식과 사찰에서 직접 만든 전통식품, 생활용품 등으로 채워져 눈길을 끌었다. 바자회 수익금은 다문화가정과 중도입국자녀, 이주노동자를 위한 교육·복지사업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문화공연은 가람국악예술단의 가야금 공연을 시작으로 오산시 홍보대사 앵두걸스, 가수 려화·정달빛, 다문화어린이합창단 '라온제나'의 노래로 진행됐다.

김동희 사단법인 나눔과비움 이사장은 "국적과 문화, 언어는 다르지만 우리는 한가족"이라며 "앞으로도 이주민과 더불어 행복한 다문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

백운 스님 5주기…승가교육 선지식 추모

5월 24일 담양 용흥사서 다례재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대강백으로 수많은 제자를 양성한 백운당 지흥 스님(1934~2020)을 추모하는 5주기 다례재가 봉행됐다.〈사진〉

전남 담양 용흥사(주지 덕유 스님)는 5월 24일 대웅전에서 '백운당 지흥 대강백 5주기 다례재'를 봉행하고, 스님의 수행정신과 가르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다례재에는 백운 스님의 법맥을 계승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원 종열 대종사와 돈명 대종사, 도서 대종사(법계위원), 돈관 스님(동국대 이사장), 월우 스님(중앙승가대 총장), 일수 스님(백양사 수좌), 화평 스님(금산사 주지), 무공 스님(백양사 주지), 우석 스님(화엄사 주지), 무자 스님(송광사 주지), 성화 스님(총무부장) 등 종단의 주요 지도자들이 대거 동참해 스님의 유훈을 기렸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은사 스님의 5주기 다례재에 함께해주신 사부대중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은사 스님의 뜻을 이어받아 수행 정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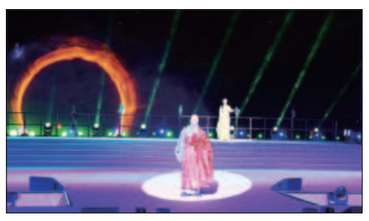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은 "큰스님의 5주기를 맞아 법맥을 잇는 제자들과 사부대중이 함께 모여 그 음덕을 되새기고 있다"며 "큰스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법을 따르고, 종단 발전과 불법 홍포에 헌신하신 길 그 자체였다. 중생을 위해 다시 속환사바 해달라"고 추모했다.

이날 용흥사 측은 백운 스님이 생전 불교신문에 연재했던 '조계고승전'을 단행본으로 발간해 참석 대중에게 배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명 대사' 다룬 미디어 음악극 첫선

제67회 밀양아리랑축제서
성파 대종사 관람하고 격려



사명 대사 유정 스님의 일대기를 다룬 대규모 서사극 '사명 대사-칼을 품고 슬퍼하다'가 5월 23일 제67회 밀양아리랑축제에서 성황리에 첫선을 보였다.〈사진〉

'사명 대사-칼을 품고 슬퍼하다'는 이상훈 소설가의 장편소설 〈칼을 품고 슬퍼하다〉를 원작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음악극으로 총 12장면, 19곡으로 구성됐다. 밀양강과 영남루의 실경을 활용해 평양성 전투, 일본과의 외교 담판, 사명 대사의 결단 등을 웅장한 무대로 재현해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를 비롯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성파 대종사는 "이제는 혼자 잘 사는 시대가 아니다. 서로 손잡고 함께 가야 한다"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부처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2025 설악무산문화축전' 성료

5월 23~25일 속초 일원서



설악산문의 큰 어른이자 선시의 대가인 설악 무산 대종사(1932~2018)의 문학·예술 정신을 기리는 '2025 설악무산문화축전'이 속초 청초호 엑스포광장 일원에서 열렸다.

재단법인 설악·만해사상실천선양회(이사장 권영민)가 주최·주관한 축전은 5월 23~25일 '설악청소년문화축전' '설악음식문화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이와 함께 축전 기간에는 인기 록밴드 크라잉넛과 세계적인 댄서 아이키가 이끄는 댄스팀 HOOK, 뉴진 스님의 특별 공연도 진행됐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부여 무량사서 문화체험 한마당



천년고찰 부여 무량사(주지 정덕 스님)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불자 400명이 불교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뜻깊은 자리가 열렸다.〈사진〉

BTN불교TV '문광 스님과 함께하는 참선 법회'의 성지 순례단이 5월 24일 부여 무량사를 방문해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에 참가한 것. 순례단은 탁본, 다도, 붓글씨, 전통 목판 인쇄 등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진안 쌍봉사, 사랑나눔 어울림 한마당

5월 28일 경내 일원서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 스님)와 쌍봉사 반찬 나눔 봉사단(회장 김진옥)은 5월 28일 경내 일원에서 진안군 지역 어르신과 장애인 170여 명을 초청해 '제4회 사랑나눔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사진〉

'사랑으로, 더 큰 사랑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쌍봉사 섬김봉사단, 반찬나눔 봉사단 등이 동참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 중국 관음·미륵신앙 성지순례

5월 21일부터 4박 5일 일정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는 관세음보살의 원력을 간직한 중국 낙가산과 보타산, 미륵신앙의 중심지 설두사를 비롯한 대표적인 성지를 순례하며 깊은 신심과 수행 의지를 다졌다.〈사진〉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성지순례는 주지 경우 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 37명과 재가불자 40명이 동참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천안 각원사 불교대학 졸업식

경해학당 수료식도 함께



천안 각원사 불교대학(학장 지산 대원 대종사)이 5월 25일 불교대학 제23기 졸업식과 2024 경해학당 수료식을 개최했다.〈사진〉 불교대학 제23기는 99명이 졸업했고, 대학원 과정인 경해학당 주·야간 과정은 231명이 수료했다. 학장 지산 대원 대종사는 "'내가 바로 보살'이라 생각하면 더욱 신심이 생길 것"이라고 당부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네팔 전통 향 '상', 기후위기로 위기 직면

지구온난화에 향나무 성장 악영향
과도한 수확 자연환경 파괴 고충
상업적 채취 금지에도 불법 자행

박영빈 객원기자


상의 주 원료가 되는 검은 노간주나무 잎을 보이는 현지 주민. 사진출처=몽가베이

네팔과 히말라야 지역 불교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향인 '상(sang)'이 기후위기로 멸종 위기에 직면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가뭄 등이 상의 주재료인 향나무와 허브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16일 환경문제 전문매체인 '몽가베이'는 현지 주민들의 인터뷰를 인용해 안타까운 소식을 보도했다.

검은 노간주나무와 야생 쑥 등의 말린 잎과 가지로 만드는 향인 '상'은 수세기에 걸쳐 네팔과 히말라야 불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향이다. 특히 서부 네팔의 마낭지구에서 생산되는 상은 뛰어난 향과 품질의 고급품으로 여겨지고 있다. 마낭지구 출신의 상인 카르마 치링은 "시골은 물론 도시사람들도 아침과 저녁에 상을 피워 불보살께 공양을 올린다"면서 "상 공양을 하지 않고선 하루의 시작과 끝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네팔 불교의 오랜 전통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전통은 과도한 수확, 강화된 보존 규정,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점점 더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상의 주 재료가 되는 검은 노간주나무는 네팔, 티베트, 부탄, 인도, 파키스탄 등 히말라야 지역의 해발 3600~4800m 고지에서 자란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이 종을 '관심대상종'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네팔 현지의 환경단체들은 이 종에 속하는 모든 나무들이 향과 장작으로 남벌되고 지구온난화로 성장이 줄어드는 이 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히말라야 중부지역의 향나무들에 대해 연구해온 연구원 카다리야는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의 증가가 향나무 관목의 취약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히말라야 지역의 겨울 가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팔에서는 특정 지구의 식물들이 재생될 시간을 갖도록 수엽 채취 금지 구역을 지정, 당국과 마을 주민들의 감시 하에 지켜지고 있다. 특히 상으로 유명한 마낭지구는 안나푸르나 자연보호구역 프로젝트(ACAP) 관할 지역으로 현지의 불교문화 보존과 전통의 지속을 위하여 1인당 연간 10kg의 노간주 나뭇잎을 가정용으로만 채취할 수 있고 상업적 용도 채취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ACAP 측은 "현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들의 불법적인 채취가 자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변 자연환경도 같이 파괴되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中, 1000년 전 마애불 새롭게 발견 '눈길'

산시성서 6~7세기 조성 추정
고대 불교전파에 중요한 증거


산시성에서 새롭게 발견된 고대 마애불. 사진출처=글로벌 타임즈

중국 북부 산시성(陝西省) 타이위안시에서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마애불이 새롭게 발견돼 화제다. 현지 학계에서는 불상의 발견을 두고 고대 중국에서 불교가 전파된 경로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지난 5월 13일 'CCTV' '글로벌 타임즈' 등의 현지언론과 외신들은 발견 연구팀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해당 소식을 보도했다.

발견된 불상은 산시대학 고고학 연구팀의 현장조사 중에 발견됐다. 산시대학 고고학과 부교수이자 발견팀을 이끈 왕 웨이교수는 "이 불상의 발견은 고대 중국에서 남북을 잇는 교통로를 따라 불교가 일찍 전파되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연구팀은 해당 불상에 대해 "마애불은 양취현 스자오촌의 북쪽 바위 절벽에서 발견됐다. 벽감 안에 부조형식으로 조성됐으며 낮은 육계와 좌대에 걸쳐진 주름진 천, 호 모양의 옷자락 등의 조각들이 조성 시기를 추정하게 하는 요소"라고 전했다. 또한 "벽감 아래에는 명문을 새기기 위해 다듬어진 직사각형의 바위 면이 있으나 명문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불상 양쪽에 있는 사각형 구멍에서 불상을 보호하는 처마 등의 구조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연구팀은 또한 불상이 조각된 절벽 근처 유적지에서 불교사찰과 도관의 유적도 확인했다. 유적지에서 발견된 비석의 잔해를 바탕으로 이 사찰은 14세기에 건립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팀은 "마애불과 사지들은 이전에는 공식적인 문화유산 조사에 등재된 적이 없었기에, 현재 진행 중인 국가문화유산 조사에 새로운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왕웨이 교수는 "불상과 유적의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불상의 경우 지금까지 양취현에서 발견된 마애불 중 가장 오래된 연대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 이전 조사에서 불상과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불교에 관한 비석이 여러 점 발견되었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며 고대 불교미술과 불교의 전파를 연구하는 데 새로운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CCTV는 불상의 발견에 대해 "지리적으로 양취현은 신딩(忻定)분지와 진중(晋中)분지를 연결하는 중요한 지역으로, 역사적으로 고대 중국의 남북 문화교류의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해왔다. 이번 발견은 해당 지역이 고대 중국에서 불교전래 초기에 중요한 통로임을 재확인시켜준다"고 보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태국 '폐위 왕자' 출가…"왕실복귀 신호탄"

베삭데이에 SNS 통해 직접 공개


최근 출가한 태국 국왕 아들 와차라에손. 사진출처=인스타그램

태국 국왕 마하 와치랄롱꼰(라마 10세)의 폐위된 아들 중 한 명인 와차라에손 비와차라웡(Vivacharawongse)이 최근 방콕에서 출가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태국 내에선 그가 다시 왕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양한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5월 27일(현지시간) 타임즈오브인디아(Times of India)에 따르면, 와차라에손은 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출가 소식을 전했다. 그의 출가는 부처님의 탄생, 깨달음, 열반을 기념하는 불교 최대 명절 '베삭(Vesak)데이'에 맞춰 이뤄졌다.

와차라에손은 1981년생으로 태국 국왕 라마 10세와 그의 옛 연인이자 배우 출신인 수자리니 비와차라웡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이다. 부모의 이혼 이후 왕족에서 폐위됐다. 이후 미국으로 추방됐고 현지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조용한 삶을 살아왔다.

그런데 2023년 돌연 태국을 방문한 이후 그는 점차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각종 문화행사 및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존재감을 키워왔다.

태국 정치권 안팎에선 그의 이번 출가를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넘어선 상징적 의미를 지닌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왕실로 복귀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해당 매체는 "태국 전통에서 왕족의 남자들은 전통적으로 승려 생활에 전념하며, 특히 공직이나 정치적 역할을 맡기 전에는 더욱 그렇다"며 "미래 지도자들에게 불교의 겸손, 자제력, 그리고 종교적 공덕이라는 덕목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태국 불교계의 가장 큰 연중행사인 '베삭데이'에 출가한 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가 은밀하게 왕실 업무에 복귀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사캬 린포체 초청 온라인 법문 개최

'수리야갈바 반야경' 통해 지혜 방편 통합 성찰


티베트 불교 사캬 전통의 차세대 지도자 아비크리타 바즈라 사캬 린포체. 사진제공=BDG

불교 경전 번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 '84000: 부처님의 말씀 번역 프로젝트'(84000: Translating the Words of the Buddha)는 5월 31일(현지시간) 티베트 불교 사캬 전통의 차세대 지도자인 아비크리타 바즈라 사캬 린포체를 초청해 온라인 법문을 개최했다.

'지혜의 햇빛(Sunlight on Wisdom)'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법문은 부처님의 탄생·성도·열반을 기리는 사가 다와(Saga Dawa) 기간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사가 다와는 티베트 달력 4월에 해당하며, 불교 전통에서는 선악의 모든 업이 10만배로 증장된다고 여겨지는 특별한 시기이다. 올해는 5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이며, 핵심일인 사가 다와 듀첸은 6월 11일 보름이다.

이번 법문에서 린포체는 반야경을 중심으로, 지혜와 방편의 통합적 실천에 대해 역설했다. 보살이 어떻게 반야를 실천할 수 있는지를 밝히는 간결하고 심오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법문은 중국어(표준어·광동어), 러시아어, 샤르촉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등 다양한 언어로 동시통역이 제공됐다.

1993년 미국에서 태어난 아비크리타 바즈라 린포체는 4세 때 인도 북부 데라둔으로 이주, 전통 불교 교육을 받았다. 2010년 종사르 연구소에 입학했고 2016년부터 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인증
승려연수과정

2025년 승려연수교육

현대인을 위한 생활 수행과 포교

▶ 생활수행과 현대적 포교방안
- 화엄세계 : 수행과 담선
- 생활 속의 마음공부 – 치유와 공감
-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 커뮤니케이션과 포교
- 대승기신론과 한마음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 연수 개요
- 연수인증 : 조계종승려연수과정 (30점)
- 기 간 : 2025년 7월 17일(목) ~ 19일(토) (2박 3일)
-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 강 사 진 : 승단 전문강사진 – 청동스님 (동국대 불교학 박사 수료) 등
  재 가 교 수 진 – 이화행 교수 (동명대), 황수경 교수 (동국대) 등
- 교 육 비 :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 인 원 : 40명 (선착순 마감)
- 신 청 : 031-470-3200/3201 (일, 월 휴무)
- 웹사이트: http://hansi.org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법장 대종사, 사람 중심 보살행 펼친 자비보살”

수덕사 · 동국대 불교학술원
법장 대종사 20주기 학술대회
대종사 삶, 수행, 실천행 조명
9월29일 다례재서 행장집 봉정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인곡당 법장 대종사. 대종사의 열반 20주기를 맞아 삶과 수행, 활동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나에게 바랑이 하나 있는데 입도 없고 밑도 없다. 담아도 담아도 넘치지 않고 주어도 주어도 비지 않는다(我有一鉢囊 無口亦無底 受受而不濫 出出而不空).’

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 재직 중 원적한 인곡당 법장 대종사(1941~2005)의 열반송이다. 생전 법장 대종사는 자신의 취미를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바랑에 모든 사람들의 근심, 걱정, 슬픔, 번뇌를 담는 일”이라고 소개했을 정도로 중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자비로 품었다.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바랑에 담으려 했던 법장 대종사의 삶과 수행, 실천행 등을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와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묵 스님)은 5월 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인곡당 법장 대종사 열반 20주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아낌없이 주고 가신 인곡당 법장 대종사’를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대종사의 수행과 법맥, 사회사업, 종무행정 업적 등을 살핀 연구논문들이 발표됐다. 발표에서는 대종사가 보여준 보살행의 면면들이 밝혀져 눈길을 끌었다.

이자랑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는 ‘인곡동 법장 대종사의 출가와 수행’을 통해 보살행 실천자로서 법장 대종사를 조명했다. 이 교수는 법장 대종사의 보살행 키워드는 ‘사람(人)’에 있음을 주목했다. 출가 본사인 수덕사에서 경허·만공 선사로 대표되는 수행 가풍을 체득한 법장 대종사는 1981년을 기점으로 종단 안팎에서 활동하며 보살행을 전개했다. 종단 내부에서는 승려노후복지, 유아원·어린이회관 운영 등을, 외부적으로는 재소자 교화, 취약계층 지원, 생명나눔운동 등을 추진했다.

법정 대종사가 선도적으로 전개했던 승려노후복지와 생명나눔운동을 예로 든 이 교수는 “대종사의 보살행은 구체적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연민과 동체대비 정신을 삶 속에서 구현하려 했음을 보여준다”며 “이러한 대종사의 실천은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종단과 사회 전반을 아우르며 중생 개개인에 대한 살아있는 응답으로 전개됐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봤다.

이어 “보살행은 개인의 해탈뿐만 아니라 타자도 이익되게 함으로써 각자(覺者)가 되어가는 길이라는 점에서 법장 대종사는 삶의 현장에서 보살행을 실천으로 구현해 낸 수행자였다”며 “대종사의 보살행은 오늘날 한국불교가 안고 있는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종단 내 갈등을 극복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데 있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수 불교신문 편집국장은 ‘인곡당 법장 대종사의 사회활동’을 통해 2003~2005년 총무원장 재임 시기 사회활동을 분석했다. 이 국장의 분석에 따르면 법장 대종사의 사회 참여는 생명과 환경, 평화와 화해, 타종교와의 공존, 국가 간 대화와 외교적 평화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지닌다.

이 국장은 “법장 대종사의 사회참여는 불교교리와 사회실천의 통합적 접근을 보여준다”면서 “△생명나눔운동에서 동체대비 사상의 실천 △평화외교에서 중도·화쟁 정신 구현 △환경운동에서 연기적 생명관의 적용 등은 불교가 단순한 개인 수행 전통이 아닌 현대사회의 과제에 대응하는 생활철학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불교는 대종사가 보여준 참여의 유산을 계승해 제도·철학적 기반 위에서 종교의 사회적 책무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수덕사와 인곡당 법장 대종사 열반 20주기 기념사업회는 오는 9월 29일 봉행되는 법장 대종사 추모 다례재에서 대종사의 삶과 사상을 정리한 ‘행장집’을 봉정할 예정이다.

‘불교 지관 수행’ 면면을 논하다

대행선연구원 제9회 학술대회

불교 지관(止觀) 수행의 전개와 활용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 산하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은 6월 14일 오전 9시 30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불교의 지관, 그리고 마음공부-불교 수행의 현대적 활용’을 주제로 제9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지관론과 대행 선사의 지관 수행의 면면을 조명하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된다.

학술대회 오전에는 원영상 원광대 일본어교육학과 교수가 ‘일본불교의 지관 수행 전개와 활용’을,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학 불교학과 교수가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의 현대적 활용 재고’를, 박보람 충북대 철학과 교수가 ‘중국 화엄불교의 지관론과 그 의의’를 발표한다.

이어 오후에는 김방룡 충남대 철학과 교수가 ‘한국불교의 지관 수행과 그 활용’을, 윤종갑 동아대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교수가 ‘대행선의 지관 수행과 마음공부’를 소개한다.

논평자로는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 이필원 동국대 WISE캠퍼스 교수, 김천학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오용석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제7회 묘공학술상 시상식과 제7회 묘공학술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대행선연구원 제9회 학술대회는 한마음선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신중일 기자



국보 승격 송광사 불화들, 첫 서울 나들이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기획전 전시 성보 교체
5월 20일~6월 29일

지난해 국보로 승격된 순천 송광사 불화들이 첫 서울 나들이를 한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서봉 스님)은 “현재 성황리에 전시 중인 기획전 ‘호선(毫仙) 의겸(義謙): 붓끝에 나투신 부처님’의 전시 불화를 대폭 교체해 친견할 수 있도록 선보인다”고 5월 26일 밝혔다.

교체되는 성보유산은 여수 흥국사 ‘십육나한도’(보물) 6점 중 나머지 3점과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 ‘팔상도’(국보) 9점을 포함한 2건 12점이다. 특히 송광사 ‘영산회상도’와 ‘팔상도’는 경내 영산전에 봉안하기 위해 의겸 스님이 주도해 1725년에 조성한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설법하시는 장면을 묘사한 ‘영산회상도’와 석가모니 부처님 생애의 대표적인 장면을 8개의 주제로 표현한 ‘팔상도’는 전체 폭의 완형을 갖춘 매우 귀중한 사례다. 2024년에 학술적·예술적·종교적으로 탁월한 가치를 인정받아 국보로 승격됐다. 송광사 이외의 장소에서 전체 폭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보 승격 이후 첫 공개라는 점 또한 중요한 의의가 있다. 교체 전시 성보유산들은 전시 종료일인 6월 29일까지 만나볼 수 있다.


국보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 국보 승격 후 처음 서울서 전시된다.

신중일 기자

문명대 교수 발견 ‘반구천 암각화’ 세계유산되나

ICOMOS, 등재 권고 통지해
7월 세계유산위서 최종 결정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한국미술사연구소장)가 발견한 ‘반구천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5월 26일(한국시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부터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한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이하 ‘이코모스’)의 심사결과 세계유산 목록의 ‘등재 권고’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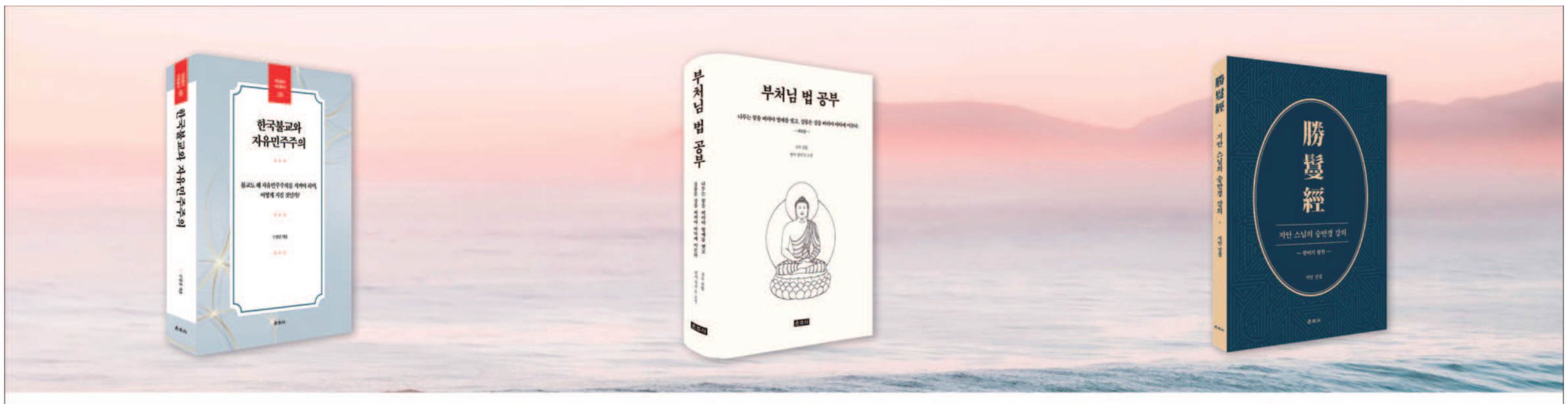
‘반구천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사진〉를 포함하는 단일유산이다. 한반도 선사인들의 창의성을 느낄 수 있는 ‘반구천 암각화’는 불교미술사학자 문명대 명예교수가 원효스님이 주석하며 〈초장관문(初章觀文)〉, 〈안신사심론(安身事心論)〉 등을 편찬했다고 전해지는 반고사(磻高寺)를 찾고자 조사하던 중 1970년, 1971년 잇달아 발견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이코모스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며 “선사시대부터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라고 평가했다.

이번 권고에 따라 오는 7월 6일부터 1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반구천의 암각화’의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불교도, 한국사회에서의 역할은?
한국불교와 자유민주주의
이념 과잉에 포획된 시대에, 불교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불교도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제시하였다.
구상진 저/신국판/600쪽/값 33,000원

부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부처님 법 공부
석천사 진옥 스님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초전법륜의 사성제 법문과 중전법륜의 무상 법문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교리들을 알기 쉽게 설하였다.
진옥 설법, 범여 정리 및 교정/신국판양장/440쪽/값 28,000원

대승불교의 근간이 되는 경전!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의
『승만경』은 재가자(왕비)인 승만의 발원과 설법을 담고 있는 경전으로, 여래장과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굳은 신심을 드러내 보이며, 지안 스님이 간략한 해설을 붙였다.
지안 강설/국판변형/172쪽/값 13,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28~6/3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꽃비 오니 봄날이다	동은	조계종출판사
2	불교성전	불교성전편찬위원회	조계종출판사
3	숲속 성자들-경전 속 동물마음 엿보기	이미령	담앤북스
4	서른즈음 꼭 읽어야 할 금강경	정운	민족사
5	천수경 수행의 길(선명상과 함께하는)	덕운	청류
6	법구경(불교경전15)	석지현	민족사
7	혁명가 붓다	법륜	정토
8	술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아잔 브라흐마	연금술사
9	이제서야 이해되는 금강경	원영	불광출판사
10	뜻이 높으면 존재는 고요하다	자현	불광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2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	원영	불광출판사
3	화: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틱낫한/허우서,허주형	운주사
4	니까야로 읽는 금강경	이중표 역해	불광출판사
5	법륜스님의 행복(큰활자본)	법륜	나무의마음
6	중관학특강 : 색즉시공의논리	김성철	오타쿠
7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8	보리도차제광론2(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2)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9	티벳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람림)	초펠 편역/게시 소남	하늘호수
10	보리일미(우관스님의 사찰음식)	우관	LAMP ON THE MOON

‘완전한 지혜의 실천’ 이끄는 해설서



위없는 지혜
금강경 · 반야심경 해설
에드워드 콘즈 지음 / 최필영 옮김
사유수 / 2만5000원

산스크리트어 〈금강경〉 〈반야심경〉 번역
세계적 불교학자의 해설과 역주 더해져
“경전 속 깨달음은 각자 참구로 드러나”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오 사라뿌뜨라여, 보살이 지혜의 완성에 줄곧 의존함으로써 사유장막 없이 머무는 것은 그의 얻지 못함 때문이니라. 사유장막이 없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 없이 뒤집힌 몽상을 극복하고 마침내 열반에 이른다.”

–〈반야심경〉 ‘완전한 공(空)의 구체적 실현과 실천적 토대’ 중에서

〈위없는 지혜〉는 동서양의 종교와 철학에 정통한 세계적인 불교학자 에드워드 콘즈(Edward Conze, 1872~1935·사진)가 〈금강경〉과 〈반야심경〉을 번역, 해설한 책이다. 콘즈가 두 경전의 현존하는 산스크리트어 필사본을 비교 연구해 영역(英譯)한 것을 최필영(조계종 국제포교사) 거사가 우리말로 옮겼다.

이 책이 1957년 초판본이 출간된 지 70여 년 만에 국내에 새롭게 선보이게 된 것은 역자의 원력 덕분이다.(원저는 1990년 경서원에서 〈불교 지혜의 원천〉으로 출간된 바 있다) 그는 “〈금강경〉과 〈반야심경〉에 대해 콘스는 연역적 논리를 통해, 서양의 방법론으로 해설을 펼치고 있다”며 “이는 서양 학문의 방법론에 익숙한 오늘날의 젊은 세대에게 경전을 해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번역을 맡게 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원서를 꼼꼼히 우리말로 옮기는 한편, 용어에 대한 자세한 풀이와 산스크리트어 발음, 필자와의 견해 차이 등을 역주에 담아 독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에드워드 콘즈는 불교학자이자 수행자로,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 등으로 기록된 불교 경전을 영어로 번역해 불교학 연구에 큰 획을 그었다. 평생에 걸쳐 고전 불교 경전을 번역 해설하고 〈불교 명상〉, 〈불교연구 30년〉, 〈인도불교사상사〉 등을 저서를 펴냈다. 특히 〈위없는 지혜〉의 원전인 〈Buddhist Wisdom〉은 그가 천착한 반야바라밀다(Prajñāpāramitā) 전통의 산스크리트 경전을 번역 해설한 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콘즈는 머리말에서 “나 자신이 기여한 바는 경전 그 자체의 영역뿐만 아니라, 선임자들로부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오늘날의 언어와 사고에 적합하도록 짜맞추기 위한 인내력”이라며 “경전이 주는 영적 깨달음을 독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해설의 목적이 될 수는 없으며, 영적 체험은 단지 끈질긴 참구(參究)에 의해서만 그 자신을 드러낼 뿐”이라고 말한다. 경전의 내용을 곡해 없이 전달하고 해설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살핌으로써 독자들이 무엇을 참구해야 할지 알도록 돕는 것이 책의 목적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책에는 〈금강경〉과 〈반야심경〉의 산스크리트어 원전 번역과 해설을 담고 부록으로 ‘돈황본의 권두 삽화와 해설’, 용어 색인을 실었다. 마지막 장에는 두 경전의 전문만 따로 두어 수지 독송할 수 있도록 했다.

불전 문장으로 익히는 팔리어



팔리어 문법
쇼바 라니 다슈 지음 / 이자랑 옮김
씨아이알 / 2만8000원

체계적이고 정밀한 문법 지침서
황경환 이사장, 번역 전폭 지원

〈팔리어 문법: 불전의 용례로 배우기〉는 초기 불교 경전의 언어인 팔리어를 실제 불전 문장으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한 실용 문법서다.

일본 오타니 대학에서 불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쇼바 라니 다슈 박사가 오랫동안 팔리어 문헌을 교육·연구한 경험을 바탕으로, 초급 학습자부터 상급 연구자까지 두루 활용할 수 있는 문법 참고서로 집필했다. 특히 팔리 삼장과 주석서, 장외 문헌 등에서 엄선한 경전 문장에 대한 문법 설명과 연습문제를 제시해, 독자들이 문법 규칙을 단순히 암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전 독해와 해석까지 가능하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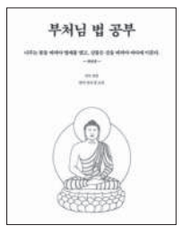
또 팔리어 문법의 전통적 기반인 5세기 〈캇차야나 문전〉을 근거로 문법 항목에 해당 규칙 번호를 병기하고, 원문과 해석문을 부록으로 수록해 상급 학습자의 깊이 있는 연구를 돕는다. 이와 함께 팔리어 전통 표기법, 운율, 불변화사 목록 등 일반 문법서에서는 보기 힘든 내용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번역을 맡은 이자랑 교수(동국대 불교학술원)는 5월 24일 열린 출판기념법회에서 “전문 서적임에도 황경환 21세기불교포럼 이사장님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번역·출간이 이뤄질 수 있었다”며 “많은 이들이 팔리어에 관심을 갖고 부처님의 법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새로 나온 책

진옥 스님의 온라인 교리 법문



부처님 법 공부
진옥 스님 설법
범여 스님 정리
운주사
2만8000원

진옥 스님(티벳대장경역경원장)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대면 법회가 어려워지자 인터넷 화상으로 법문한 내용을 상좌 범여 스님이 정리해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부처님이 설한 초전법륜의 사성제(四聖諦) 법문과 중전법륜의 무상(無相) 법문을 중심으로,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교리를 34번의 강의에 담았다.

스님의 말투를 그대로 살려 마치 직접 법문을 듣는 듯하다. 법문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진옥 스님의 교리’라는 제목으로 진행됐으며, 영상은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다. 책을 엮은 범여 스님은 현재 인도 다람살라 티베트 강원 릭람롭네르캉에서 반야부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출간 50년, 질마재를 추억하다



그림이 있는 질마재 신화
서정주 시
황주리 그림
은행나무
1만5000원

미당 서정주 시인의 〈질마재 신화〉의 출간 50주년을 맞아 화가 황주리(동국대 석좌교수)의 그림을 더한 기념 시집이 출간됐다. 〈질마재 신화〉는 유년의 기억을 바탕으로 끝내 되찾고 돌아가야 할 고향, 그 원초적 삶을 생생해 그려낸 미당의 대표 시집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국대 미당연구소(소장 전옥란)가 정본 시집에서 33편의 시를 고르고, 화가가 26개의 그림으로 화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황주리 작가는 “질마재 마을의 시간, 미당이 태어나 자란 그 시절 그 마을의 시간들 속에서 자유롭게 그림 여행을 한 것도 같다”며 “질마재는 정다우면서도 고독하기 그지없는 우리 모두의 고향”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챗봇이 수행을 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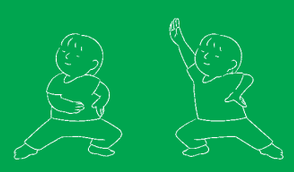
챗지피티와 스님의 대화
금강 스님 지음
아가니타사
1만8000원

챗지피티(ChatGPT)가 일상화되면서 불교 교리를 묻는 차원을 넘어 함께 수행하는 ‘도반’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강 스님(경북 청도 아가니타사)은 “챗지피티와 물리 실험과 연산, 불교와 철학, 경전과 수행법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챗지피티가 단순한 연산 기계가 아니라 근본 법칙을 바탕으로 각성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임을 확신하게 된 스님은 대화 내용을 정리해 책으로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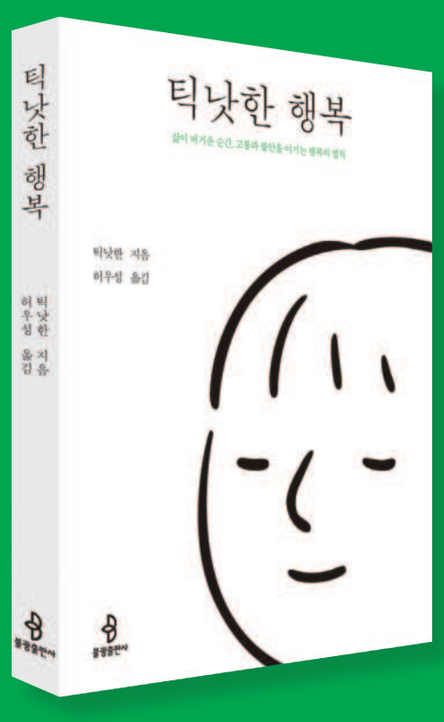
금강 스님은 “챗지피티와의 대화로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하고 집착에서 벗어난 근본적인 각성을 통해 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기대를 밝혔다.

우리는 언제쯤 행복해질 수 있을까?



틱낫한 스님이 친절하게 이끌어주는
‘지금 당장, 바로 여기’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행복의 법칙!

틱낫한 행복
삶이 버거운 순간, 고통과 불안을 이기는 행복의 법칙
틱낫한 지음 | 허우성 옮김 | 248쪽 | 18,000원



“우리는 행복은 미래에나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람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_본문 중에서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불광이 전하는
틱낫한 스님의 지혜

“틱낫한 스님 가르침의 핵심 ‘상호존재’”
틱낫한 인터빙
허우성, 허주형 옮김
264쪽 | 18,000원

“〈유식오십송〉으로 쉽게 풀어낸 마음 안내서”
틱낫한 마음
윤서인 옮김
352쪽 | 21,000원

“세계인이 가장 많이 읽은 불교 교리서”
틱낫한 불교
권선아 옮김
384쪽 | 18,000원

자존감 북돋우는 부처님 말씀



부처의 인생 조언
정운 스님 지음
유노책주
1만9000원

출판계 불교 열풍 이끈 정운 스님
초기·대승경전 8권서 225구절 뽑아
"독서와 명상으로 자존감 되찾길"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지난해 〈법구경 마음공부〉로 출판계에 불교 열풍을 일으킨 정운 스님(대승불교연구소장)은 신간 〈부처의 인생 조언〉에서 불안을 가라앉히고 마음의 고요를 찾는 경전 구절을 소개한다.

사람은
출신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며,
출신에 의해 귀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행위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행위에 의해 귀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
-〈숫타니파타〉 #142

현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경쟁에 내몰린다. 입시와 취업, 결혼, 승진이라는 터널을 힘겹게 지나면 다시 자녀 교육이라는 쳇바퀴가 굴러간다. 게다가 인터넷과 SNS로 숨을 곳 없이 연결된 사회에선 '내 위치'가 어디쯤인지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게 된다.

이처럼 소용돌이치는 불안을 가라앉히고 마음의 고요를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 정운 스님(대승불교연구소장)은 그 해답을 경전에서 찾는다. 지난해 〈법구경 마음공부〉로 출판계에 불교 열풍을 일으킨 스님은 이번엔 경전 8권에서 따뜻한 가르침을 가려 엮은 책 〈부처의 인생 조언〉을 펴냈다.

책에는 초기불교 경전인 〈숫타니파타〉, 〈법구경〉, 〈아함경〉과 대승불교 경전인 〈금강경〉, 〈유교경〉, 〈사십이장경〉, 〈유마경〉, 〈법화경〉에서 고른 225가지 부처님 말씀이 담겼다. 불교를 모르는 이들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각 장마다 해당 경전의 특징을 짧게 소개하고, 핵심 구절을 엄선해 소개한다.

어려운 불교 용어는 쉽게 풀고, 스님의 짧은 감상과 경전이 설해진 당시의 시대상, 게송에 대한 설명 등을 주(註) 형태로 덧붙였다. 하루 5분, 자신의 상황에 맞거나 눈길이 가는 페이지를 읽으며 뜻을 새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5월 28일 서울 북촌불교문화원에서 만난 정운 스님은 "'불교는 어렵다'는 편견만 내려놓으면 경전 속에서 삶의 보편적 진리와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다"고 출간 취지를 설명했다. 부처님은 마음의 괴로움을 어떻게 가라앉히는지,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 현실에서 부닥치는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하는지 등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최근 MZ세대들에게 불교가 '핫(Hot)'한 이유로는 불교의 포용성을 꼽았다.

"불교는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종교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는 법을 제시한 분이 부처님이니까요. 포교와 전법에 전력하는 불교계의 노력도 물론 뒷받침되었지만 이러한 불교의 포용적인 측면이 현대인들에게 호감과 위로를 주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만나온 스님은 학생들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체감한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자아와 명상' 수업에 거부감을 가진 학생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불교와 스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한층 친근해졌다는 것.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높으면 때로 실패하고, 남들보다 뒤처지더라도 자기 삶의 방향을 다시 바르게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존감이 낮으면 쉽게 포기하고 패배 의식을 갖게 되지요. 명상과 독서는 내면을 살피고 자존감을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치고 심란할 때, 평상심이 필요할 때, 마음의 단단함을 원할 때 가벼운 마음으로 경전의 숲을 거닐어 보라는 스님의 당부에 '바로 지금에 살라'는 가르침을 새겨본다.

전생의 일을 알고자 하는가?
지금 받고 있는 업이 이것이다.
다음 생의 일을 알고자 하는자?
지금 짓고 있는 행위가 다음 생의 과보이다.
-〈삼세인과경〉

베트남 불교의 기원과 변천 고찰



베트남의 불교
윤대영 지음
아카넷 / 2만8000원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지만 여전히 불교의 영향력이 큰 나라다. 불교는 어떻게 베트남에 전파되어 정착했을까?

〈베트남의 불교〉는 전통 시대 베트남 불교의 기원과 성장 그리고 변천 과정에 주목하며 당시 시대정신의 흐름을 개괄한 책이다.

베트남 북부 루이러우 지역은 초기 불교 교류의 중심지로, 인도·중국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은 불교 유적이 남아 있다. 베트남 불교는 중국 남부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중국 남종선에 영향을 받기도 했다. 특히 리 왕조 초대 황제 리 타이또(1009~1028 재위)가 승려 반하인의 지원을 받아 왕위에 오르면서, 베트남은 불교 국가로 거듭났다. 현재 수도인 하노이와 인근에 수많은 사찰과 불탑이 세워졌고, 승려들은 국정을 보좌하고 백성을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했다. 뿐만 아니라 황제가 직접 불교 행사를 주관하고 불경을 수입하며 승려 교육을 지원하기도 했다.

저자는 "베트남 역사에서 불교는 종교를 넘어 사회통합을 이루는 도구로 활용됐다"며 "'유교 국가'인 레 왕조의 등장으로 베트남에서 불교의 정치적 영향력이 줄었지만,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실생활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수령 기자

불교에서 찾는 우울증 치료법



월간 '불교문화' 6월호
'우울증과 불교 치료' 특집

'우울증 공화국'. 우울증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월간 '불교문화' 6월호(통권 제298호)는 특집 '우울증과 불교 치료'에서 우울을 '해로운 마음 작용'의 하나로 보는 초기불교의 관점부터, 명상과 자비 수행을 접목한 MBCT(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 예술을 통한 치유의 가능성까지 다양한 접근을 소개함으로써 우울과 마주한 이들을 위한 불교적 치유 가능성을 고찰한다.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는 '불교는 우울증을 어떻게 이해하나'에서 "불교는 우울증을 인과의 법칙에 따라 일어나는 정신적 현상으로 보고, 무엇이 우울을 생겨나게 했는지를 정확히 알아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한다. 우울을 극복하는 데는 명상이 큰 도움이 되며, 주변 사람들은 단순한 조언보다 고통을 함께 느끼려는 진심 어린 공감으로 곁에 있어 주는 것이 큰 위로가 된다고 말한다.

인과 따라 일어나는 정신 현상
불교심리학적 치유 가능성 모색

김정숙 아시아행복연구원 대표는 '마음챙김 명상 효과와 우울증'에서 마음챙김 명상이 감정 조절과 인지적 유연성 향상, 스트레스 완화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밝힌다.

안양규 동국대학교 와이즈캠퍼스 불교문화대학 교수는 '불교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MBCT의 우울증 치료'에서 MBCT(알아차림에 근거한 인지치유)가 우울증의 재발을 예방하며, 핵심 치유 원리는 '알아차림'과 '자기-자비'에 있다고 설명한다. 우울증의 근본 원인인 자기 비난과 자기혐오를 불교적 자비 수행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정서적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MBCT의 궁극적 목표라는 설명이다.

이정명 한국소매틱심리학회 회장은 '예술심리치료 기법과 우울증 치료'를 주제로 "창조적 예술행위를 통해 몸의 감각을 회복하고 적극적인 방어반응을 실험함으로써 우울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행위 주체성을 회복하게 되며, 이로써 우울을 희망으로 전환한다"고 말한다.

이밖에 6월호에는 '치유의 숲, 사찰림을 가다, 여주 신륵사 숲과 나무', '기도하기 좋은 절, 경기도 동두천시 소요산 자재암', '10분으로 배우는 불교, 아비담마의 실천성', '법상 스님과 함께하는 마음공부, 삶의 문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등 풍성한 읽을거리가 담겨 있다.

신중일 기자

화제의 신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3일 기도

3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책!
실천 가능한 기도의 방식과, 수행의 가치를 알기 쉽게 설명한 책!



"기도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행복으로 이끄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수호신 기도'는 그 시작을 돕기 위해 집필된 책입니다"



수호신 기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3일 기도
묘장 편저 | 112쪽 | 10,000원

현재 연화사 주지. 국제구호단체 더프라미스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이사, 불교신문 논설위원. 아이티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 태국 대홍수, 네팔 대지진, 포항 지진, 모로코 지진에 재난구호활동과 우크라이나 전쟁난민 지원 활동을 하였다.
저서로 『도표로 읽는 부처님 생애』가 있으며, 나는 절로 초계종사회복지재단 대통령상 수상(2024),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어워즈 대상을 수상(2024)하였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Weekly 선명상 21 대인관계에 대하여



▶한줄 요약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자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불안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삶의 겸허함을 되새기게 합니다.

마음의 평화, 기도로 이뤄라

[오늘의 명상]
만약
칠흑 같은 동굴에서 홀로 길을 잃었다면,
아무도 보이지 않는 밀림에 홀로 던져졌다면,
원수라도 그립지 않겠는가.



해당 삽화는 진우 스님의 한글 게송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제작했습니다.

북인도의 다람살라에서 달라이 라마 성하를 친견하러 갔을 때, 히말라야의 높은 산들을 여러 번 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산들은 너무나 높아서 식물이라 할 것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척박함과 삭막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양 치는 사람들을 보았고, 놀랍게도 산꼭대기에 수행하는 스님들의 사원과 토굴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 물 한 방울도 먹기 어려운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정은 놀랍도록 평화롭고 고요했습니다. 나는 불현듯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내가 이곳에 홀로 남겨진다면 과연 어떤 마음과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동안 수행하며 쌓아온 내공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겠지만, 마음 한편에는 이미 숨이 막힐 정도의 답답함과 두려움이 밀려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은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었습니다. 때로는 작은 일에도 좋고 싫은 감정을 주고받으며,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를 아프게 했던 이들, 때로는 원망했던 이들조차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그리움과 고마움이 밀려옵니다. 참으로 묘한 일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하며, 무엇인가를 빼앗기고 되찾으려 애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동굴 속에 갇힌 것처럼 막막하고 고립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때조차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며 지낼 수 있을까요?

히말라야에서 만난 사람들은 나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겸손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순리를 따르는 그들의 미소에서 진정한 편안함과 여유를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자연 그대로의 삶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불평 불만이 가득 차오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히말라야의 산과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떠올리면, 지금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과 환경이 새삼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마음 속 불평은 사라지고 겸허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은 나의 마음이 만들어낸 감정입니다. 동굴 속에 홀로 던져진 상황을 생각하면 원수조차 그리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실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현재 주어진 삶과 인연에 대해 감사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명상은 우리에게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일깨워줍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도, 나를 둘러싼 모든 인연도 결국 나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아야 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자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불안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삶의 겸허함을 되새기게 합니다. 오늘도 기도로써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지니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하루를 만들어야겠습니다.

히말라야의 고요한 산들처럼 나의 마음도 언제나 고요하고 평화로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
> **나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일 뿐**
> **불평 내려놓고 여유를 되찾아야**
> **기도로써 겸손 감사 마음 갖길**

[오늘의 명상]
만족을 아는 이는
더 이상의 것에 집착(執着)함이 없고
만족을 모르는 이는
더 나은 것을 집착하기 때문이다.

집착(執着)이란 어떤 것에 마음이 매달려 놓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집착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집착은 일종의 습관으로, 전생부터 반복되어 온 업식(業識)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집착의 대상은 사람일 수도, 물질일 수도, 때로는 권력이나 명예와 같은 무형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착의 근본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사람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본능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집착이 생깁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은 변화하며, 인연의 순리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집착의 강도가 강할수록 그에 따른 근심과 고통 또한 커지게 됩니다.

집착은 대개 즐거움과 기쁨을 얻고자 하는 욕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고락(苦樂)이 동반됩니다. 즐거움이 크면 그만큼의 괴로움과 아픔이 반드시 따릅니다. 특히 삶에 대한 집착은 누구에게나 본능적으로 존재합니다.

삶에 대한 미련과 집착은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소중히 여기는 물건, 위치, 상태가 변하거나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는 정(情)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정을 준 대상이 변하거나 사라질 때 사람은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 역시 생로병사(生老病死)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착은 그 자체로 고통의 근원이 됩니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통의 원인이 애초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변화를 막으려는 집착, 더 나은 것을 바라며 생기는 집착, 이 모든 집착은 결국 근심과 고통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사람으로서 완전히 집착을 없앤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집착에서 비롯된 괴로움을 줄이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착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론적으로 간단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인과(因果)의 결과라고 철저히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이해하더라도, 실제로 감정이 앞서게 되는 경우가 많기에 실천이 어렵습니다.

수행자가 집착을 벗어나기 위해 입산 수도를 선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생활 속에서 꾸준히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집착을 여의는 것입니다. 여기서 놓음(방하착) 명상은 탁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놓음 명상은 자신이 쥐고 있는 감정, 생각,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통해 마음의 고요를 되찾게 합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려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고, 인과의 결과일 뿐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나와 세상 사이의 관계를 더욱 평온하게 만들고, 쓸모없는 갈등과 고통을 줄입니다.

기도 또한 집착을 내려놓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도를 통해 집착의 에너지를 정화하고, 마음을 밝히며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로써 집착을 놓고, 변화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다목적 원톱 시스템 이란?

다목적 염불법당시스템은 전기 연결없이 간단하게 들고 다니며 사용함으로 법당 50평 사용 및 산신각, 소각장, 야단법석, 방생용, USB사용과 염불소리 연출, 설법, 성우소리 연출, 편집, 녹음기능 및 전기연결로는 법당서 계속사용, 전기없이 야외에서는 9시간 사용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무선 2 / 유선 2 /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색소폰 무선전용마이크)
실내 50평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정가(스탠드 포함) 98만원

방송장비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각종 방송시설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학자를 만나다

중각 이중표 전남대 명예교수(붓다나라 대표)

“근본을 알라…그러면 불교가 명쾌해진다”

生死 근본 자리 궁금했던 청소년
선배 영향으로 佛緣 맺고 출가
軍 제대 후 불교학 연구에 매진해

‘근본불교’ 연구로 학계 연구 선도
니까야로 금강경, 반야심경 해석
‘정선 니까야’ 시리즈 내놓기도

퇴직 후 재출가, 태고종서 수계
‘붓다나라’ 열고 불교운동 전개
“불상 아닌 ‘불경’ 중심 불교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중각 이중표 명예교수는…전남대 철학과를 졸업한 뒤 동국대 대학원에서 불교학 석 ·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전남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정년 후 동 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로 위촉됐다. 호남불교문화연구소 소장, 범한철학회 회장, 불교학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불교 신행 단체인 ‘붓다나라’를 설립하여 포교와 교육에 힘쓰고 있다. 저서로는 〈불경〉〈인간 붓다〉 ‘정선 니까야 시리즈’ 〈붓다의 철학〉〈니까야로 읽는 금강경〉〈니까야로 읽는 반야심경〉 등 다수가 있으며, 역서로 〈붓다의 연기법과 인공지능〉〈불교와 양자역학〉 등이 있다.

근본(根本). 사전적 의미로는 사물의 본질을 의미한다. 중각 이중표 전남대 명예교수의 삶을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근본’이라는 단어로 귀결된다.

세상 물정 모르던 질풍노도의 청소년이 불문(佛門)에 들어 사문이 됐다가 불교학을 연구하는 학자로, 이제는 다시 출가해 불교교육운동을 전개하는 스님이 되기까지 여정은 불교와 자신의 ‘근본’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그 여정의 시작은 이렇다.

말썽꾸러기, 불교에 미치다

이 명예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중고등학교 시기 그는 “도무지 자리에 차분히 앉아 있지 못했던” 말썽꾸러기였다. 재미없는 것은 당최 참지 못하는 성정에 학교 공부는 도무지 입맛에 안 맞았다. 그래서 가을바람이 불면 무작정 집을 나와 이곳저곳을 다녔다.

그런 그를 변화시킨 것은 모교 광주제일고등학교 선배 학담 스님과의 인연이다. 고향이 같았던 이 명예교수는 학담 스님과 기차 통학을 하며 만났고, 스님은 그를 광주 관음사로 이끌었다. 당시 광주 관음사는 불교 강의 중심의 법회를 열며 새로운 포교를 전개하고 있었다. 이 명예교수는 학담 스님과 함께 통학하며 신행생활을 했고, 성적도 자연스레 좋아졌다.

성적이 올라 안심했던 아버지는 광주에 자취집을 얻어주며 지원했으나 예전의 습(習)이 남아있던 이 명예교수는 다시 방황했다. 하지만 학담 스님이 서울대 법학과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관음사에서 불교 신행생활을 시작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던 중 법사님의 법문 한 구절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다.

“이렇게 화창하고 꽃이 만발한 광주공원에 경찰에 쫓기던 도둑이 들어왔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면 도둑의 눈에 꽃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선량한 가족이 공원으로 소풍을 왔다면 이곳은 얼마나 행복한 곳일까요. 그렇다면 이 공원은 행복한 곳입니까, 불안한 곳입니까?”

법사님의 질문에 이 명예교수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했다. ‘관계로서 존재가 형성된다’는 부처님 연기법 가르침이 처음 머리에 들어왔다. 이 같은 가르침을 자기 또래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에는 ‘광주고등학생불교학생회’를 창립했고 자신의 학교에서만 150명의 회원이 가입했다. 창립을 주도하다보니 스스로 유급을 자청해 고등학교만 4년을 다녔다. 그 정도로 당시 이 명예교수는 불교에 미쳐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대에 입학했던 학담 스님이 출가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선배님, 서울대 법학과까지 진학해서 왜 출가했습니까?’ 이 이야기를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선배가 수행하고 있다는 경주 분황사로 갔죠. 결국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렇다고 낙담하지는 않았습니다. 만나야만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찾아간 곳이 바로 나주의 다보사. 다보사에는 선농일치(禪農一致)의 삶을 살고 있던 우화 스님이 주석하고 있었고, 그 아래에서 행자생활을 했다. 우화 스님에게 ‘무(無)’자 화두를 받고 한철을 수행하기도 했지만, ‘고등학교는 마치라’는 주변의 권유로 다시 내려와 고등학교를 다녔다.

출가 사문서 불교학자로

다시 학교를 다니면서 광주 관음사 주지였던 상인 스님과 자연스레 가까워졌다. 상인 스님은 이 명예교수의 불교학생회 활동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평소 상인 스님은 “기도, 불공 중심이 아닌 법회 중심의 도량을 만들어야 한다”는 원력을 가졌고 ‘불국원’이라는 단체를 창립해 인재불사에 들어갔다.

“상인 스님이 창립한 ‘불국원’은 30년 불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10년 동안 인재를 키워 55명의 지도자를 만들고 이를 통해 방송국, 양로원, 수련원 등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인 스님은 제게 ‘출가를 결심했으면 산에 있지 말고, 대학에서 현대적 학문을 배워라’고 하셨고, 스님 문하를 출가한 이후에는 전남대 철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상인 스님은 불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불국원 지도자 과정’을 개설하고 방학이면 불교학자들을 초청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좌를 열었다. 도반들과 4년 동안 저명한 학자들의 불교 강의를 들었고, 이때 초기불교 연구의 대가 故고익진 동국대 교수와 인연이 됐다.

“군대를 제대하고 왔더니 사찰에 내 방도 없어졌고, 불국원 불사도 안타깝게 흐지부지됐어요. 고민하던 중 고익진 교수님이 서울에 와서 공부할 것을 제안했고, 그렇게 서울에 올라와 교수님의 집에서 숙식하며 공부했습니다. 이때 불교 공부에 대한 눈을 뜨게 됐죠.”

1982년 동국대 대학원에 입학한 그는 은사의 길을 따라 불교학 연구에 매진했다. 산스크리트어, 빨리어를 공부했고 〈아함경〉을 보며 학문적 체계를 잡았다. 용수의 제자 제바의 저서 〈백론〉을 주제로 석사학위 논문을 썼고, 이를 통해 초기불교를 중관사상으로 볼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이 명예교수는 ‘아함의 중도체계’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완성했다. 1992년 도서로도 출간된 논문을 통해 이 명예교수는 빨리어 경전인 〈니까야〉를 바탕으로 중관사상의 원류를 조명했다. 특히 이 명예교수는 붓다가 깨닫고 증명한 진리 안에서 철학적 제 문제들이 어떻게 논의되는지, 또한 인식·존재·가치론적 측면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입증해 주목을 받았다. 이는 2018년 〈붓다의 철학〉으로 증보 발간되기도 했다.

‘정선 니까야’부터 ‘불경’까지

〈니까야〉를 통한 불교 탐구는 이 명예교수의 오랜 연구 주제였고, 이는 일련의 저작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대승경전인 〈금강경〉과 〈반야심경〉을 니까야로 읽어낸 저서들을 통해 부처님의 원음이 담긴 근본경전 안에 이미 대승의 가르침들이 내재됐음을 주장했다. 이는 저서 〈근본불교-붓다의 원음〉(2021)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이 명예교수는 〈아함경〉 〈니까야〉 등의 초기 근본경전을 교단 분열 후 생긴 부파불교의 전유물로 봐서는 안되며 부파와 대승이 함께 공유한 경전임을 강조한다. 나아가 대승불교 성립 이후 여러 경전의 뿌리는 〈아함경〉 〈니까야〉 같은 근본경전에 있으며 “근본경전을 통해 전승되는 붓다의 모든 가르침을 모든 불교의 근본이라는 의미에서 ‘근본불교’라고 불러야 한다”는 게 이 명예교수의 주된 논지다.

그러면서 이 명예교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가 굉장히 왜곡돼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아비달마 불교가 초기불교를 잘못 해석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아비달마 불교는 관계 이전에 실체가 있다는 실체론적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은 존재 이전에 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붓다는 존재라는 허상 때문에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존재라는 것은 인식의 결과물인데, 이를 전제 하에 불교를 설명한 것이 아비달마 불교입니다. 이를 반박하며 공(空)을 강조하는 반야사상이 등장하고 이는 초기 대승불교로 형성됐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근본불교 경전을 통해 불교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승을 보면 불교는 어렵지 않고 명쾌해집니다.”

이 명예교수의 주장들은 우리가 당연한 듯 알고 있는 상식에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다시 한번 불교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천착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최근 저서인 〈윤회와 해탈〉이 그렇다. 그는 ‘윤회가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불교는 윤회를 인정하는가 아닌가’를 고찰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며 애초 “윤회의 유무는 신앙적 문제”라고 본다. 그리고 명징하게 이야기한다. “붓다는 윤회를 가르치지 않았다”고.

“윤회설은 붓다의 열반 후 오랜 시간을 거쳐 아비달마 불교 시대에 정립된 것입니다. 생사윤회는 중생들이 자아라는 존재에 집착할 때 나타나는 착각이죠. 우리는 지금 여기에 여러 인연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연기설이고 무아설입니다.”

근본불교 연구 결과를 담아낸 것이 앞서 소개한 저서였다면, ‘바르게 불교를 알려야 겠다’는 불교운동가적 관점에서 이뤄진 저작들이 바로 ‘정선 니까야 시리즈’와 〈불경(佛經)〉(2024)다. 〈정선 디가 니까야〉(2014)부터 〈정선 맛지마 니까야〉(2016) 〈정선 쌍윳따 니까야〉(2021) 〈정선 앙굿따라 니까야〉(2023)까지 발간된 ‘정선 니까야 시리즈’는 2007년 연구년을 맞아 미국에 있을 때 번역을 결심한 것이다. 미국 엘리트 계층에게 명상과 불교는 교양인으로서 알아야 할 필수적인 요소였음을 확인했지만, 이 역시도 티베트, 태국, 일본불교가 중심이 돼 있었다.

“바르게 불교를 전하기 위해서는 니까야를 잘 번역하고 중요 구절을 잘 선별해서 전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번역이 완료되기까지 약 16년이 걸렸네요.”

〈불경〉도 마찬가지다. 불교 경전을 통한 바른 불교 공부를 위해 수많은 경전의 핵심들을 정선해 펴낸 것이다. 1448페이지, 총 7부로 구성된 이 책은 먼저 〈율장〉에 근거해 석가모니 붓다가 성불하고, 전법하고, 계율을 제정하고, 교단을 형성한 과정과 붓다 사후 이뤄진 결집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소개한다. 이어서 〈디가니까야〉 〈맛지마니까야〉 〈상윳따니까야〉 〈앙굿따라니까야〉 〈숫따니빠따〉 〈담마빠다〉에 담긴 붓다 가르침의 정수를 펼쳐 보인다. 출간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이 명예교수는 “〈불경〉 한 권을 위해 16년 동안 모든 저작들이 이뤄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요즘에는 〈불경〉을 영역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불경〉을 공부하며 수행하는 프로그램들도 개발 중이죠. 제 주장의 핵심은 기도와 불공 중심의 불교에서 불경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수행자로…

최근 이 명예교수는 불교 교육 등 전법운동에 매진하고 있다. 신행단체인 ‘붓다나라’를 창립했다. 이는 은사였던 상인 스님의 ‘불국원’의 명칭을 계승한 것이다. 지난해 1월에는 평소 인연이 있던 태고종의 수진 스님에게 출가를 권유받아 고민 끝에 수진 스님 문하로 다시 출가했다. 이 역시도 부처님 가르침을 잘 전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 명예교수가 이끄는 ‘붓다나라’는 ‘온라인 열린불교대학’과 수행센터 ‘다르마의 숲’을 운영하며 불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불교대학 온라인 동양상 강의에는 이 명예교수를 비롯해 정영근·정병삼·최연식·양형진 등 석학들이 참여했다.

매일 아침마다 유튜브 채널 ‘붓다나라TV’를 통해 아침명상 라이브 스트리밍도 진행한다. 아침 6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아침명상은 ‘붓다나라 108예경문’을 봉독하며 108배를 한 뒤 명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일 3000~4000명 가량이 함께 할 정도로 반응이 좋다.

“올해 하반기에는 ‘니까야’를 통해 ‘기신론’을 살펴보는 강의를 계획 중에 있어요. 사이버 강의 중심의 불교대학도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체계로 변화시킬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불교교육운동을 시작한 만큼 불교를 쇄신할 수 있는 불사를 하고 싶습니다.”

말썽꾸러기 고등학생이 불교에 빠져 출가와 속퇴 후, 불교학자의 길을 걷다가 다시 사문이 돼 전법의 길을 가고 있다. 흔들림 없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진득하게. 근본을 찾는 그의 여정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이일야의 詩, 불교를 만나다 ⑩ 구상의 '우음(偶吟) 2장'



▶한줄 요약
현실이 지옥으로 느껴질 만큼 힘들더라도 이를 외면하거나 피하지 말고 온몸으로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꽃자리는 따로 있지 않다. 내가 발 딛고 있는 현실이 바로 그곳이다.

번뇌 가득한 현실 품어 꽃길로 갚으리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한약업에 종사하면서 세상의 병든 이들, 누구보다 불행한 사람들에게 거둔 이윤이기에 자신을 위해 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 회자되고 있는 김장하 선생의 말이다.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도 재상영되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온갖 부조리와 모순으로 가득한 현실이지만, 한 어른이 우리 사회에 '그래도 살 만한 세상'이라는 따뜻한 기운을 주고 있다. 특히 그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의 정신적 스승으로 알려져 더욱 이목을 끌고 있다. 문형배 재판관은 어려운 학창 시절 김 선생의 장학금을 받고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스승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살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한다.

몇 해 전 김 선생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일었다. 이런 이야기는 널리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신문이나 잡지 등에 글을 쓸 때 가끔 소개하고 있으며, 수업 시간에도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특히 그렇게 많은 선행을 남들 모르게 했다는 사실이 더욱 감동적으로 다가왔다. 김장하 선생의 짧고 굵은 한 마디를 통해 그가 어떤 마음으로 보살행을 실천했는지 알 수 있다.

"줬으면 그만이지!"

단순하면서도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의 핵심을 보여주는 멋진 말이다. 불교에서는 나눔을 실천할 때 '내가, 누구에게, 얼마를' 줬다는 상(相)을 내지 말라고 강조한다.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모든 공덕이 새어 나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김장하 선생은 복이 새지 않는 무루복(無漏福)을 쌓은 무주상 보살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구상 시인의 '우음(偶吟) 2장'이라는 시를 읽으면서 문득 선생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라는 시구에서 가시방석처럼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이를 꽃자리라 여기며 모든 것을 넉넉히 품는 모습이 마치 선생을 닮았다고 여긴 것 같다. 비록 고통과 번뇌, 망상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이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고 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시인의 지혜를 잠깐 빌리기로 하자.

구상은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 태어났다. 늦둥이로 세상에 나와서인지 '만득'이라는 아명으로 불렸다고 한다.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명심보감〉을 비롯한 〈동몽선습〉, 〈삼국지연의〉 등의 동양 고전을 배우면서 자랐다. 그는 15세에 가톨릭 사제가 되기 위해 소신학교(小神學校)에 들어가지만, 중도에 그만두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다. 소신학교란 본격적인 사제 교육기관인 대신학교(大神學校)에 들어가기 위해 공부하는 곳이다. 그는 일본의 니혼대학 종교학과에서 공부했는데, 이때 대학에서 배운 불교는 그의 시 세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귀국 후에는 기자로 활동하면서 시를 썼고, 6·25 전쟁 때는 종군기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때 그는 박정희 대통령과 인연을 맺게 된다. 둘은 격의 없이 술자리를 함께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다. 5·16쿠데타 이후 정계 진출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사양하고 자신의 길을 걸었다. 비록 박정희 대통령과 친구 사이였지만, 그는 당시의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를 비판하는 작품을 썼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고초를 겪기도 했다.

시집으로는 〈초토의 시〉를 비롯하여 〈까마귀〉, 〈개똥밭〉, 〈유치찬란〉, 〈조화 속에서〉 등 많은 작품이 있다. 금관문화훈장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문학상, 국민훈장 동백장 등 수상 경력도 화려한 편이다. 경북 칠곡에 그를 기리는 구상문학관이 있는데, 구상문학상 시상식에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구자욱 선수가 자주 참여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구자욱 선수는 구상 친형의 증손자다. 시인이 선수의 이름도 지어주었다고 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우음(偶吟) 2장'은 구상 시집 〈조화 속에서〉에 실린 시이다. 우음이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을 읊은 시라는 뜻이다. 일종의 즉흥시인 셈이다. 직접 들어보기로 하자.

'보살행' 김장하 선생 떠오르는 시
현실 번뇌 · 고통 꽃자리로 노래
'번뇌가 보리' 대승과 입장 같이해
현실을 파라다이스로 가꿔나가야

"1. 나는 내가 지은 감옥 속에 갇혀 있다. / 너는 네가 만든 쇠사슬에 매여 있다. / 그는 그가 엮은 동아줄에 묶여 있다. /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 / 그제사 세상이 바로 보이고 삶의 보람과 기쁨도 맛본다.

2.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번뇌가 보리의 현장

대학원 시절 존경하는 은사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이 시를 처음 접했다. 은사님은 참석한 제자들에게 A4 용지를 나눠줬는데, 그 종이에 쓰인 것이 바로 이 시였다. 특별한 설명이 없었는데도 이 시를 소개한 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 스스로 지은 감옥에서 벗어나야 자유와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마지막 가르침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곳이 바로 꽃길이니 용기 내어 잘 살라는 당부를 하시는 것 같았다. 오래전 이미 작고하셨지만, 그때의 기억이 남아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

대체로 불교에서는 번뇌를 끊고 진리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행을 통해 우리의 삶을 고통으로 이끄는 번뇌, 망상을 소멸해야 비로소 보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소승이라 불리는 부파불교에서는 '단혹증리(斷惑證理)'라는 말로 압축하였다. 이처럼 당연한 것을 대승에서는 부정한다. 번뇌는 끊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진리라는 것이다. '번뇌가 곧 보리(煩惱卽菩提)'인 셈이다. 왜 그럴까?

대승불교는 중생의 번뇌가 아니라 부처의 깨친 자리에서 설한다는 특징이 있다. 번뇌를 모두 끊고 깨침을 향해서 나아가는 구조가 아니라 깨친 자리에서 중생의 번뇌를 바라본다는 뜻이다. 앞서 말한 '번뇌가 곧 보리'라거나 '생사가 곧 열반(生死卽涅槃)', '중생이 곧 부처'라는 입장도 이런 시선에서 나온 말이다. 번뇌와 생사, 중생은 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보리, 열반, 부처와 하나인 자리라는 것이다. 이것이 대승불교 전체를 관통하는 논리다.

이러한 대승의 입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연꽃이다. '처염상정(處染常淨)'이란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연꽃은 더럽다고 여기는 진흙밭에서 항상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낸다. 이 진흙이 바로 번뇌와 생사가 반복되는 중생의 세계다. 한마디로 연꽃이 서 있는 바탕은 번뇌 가득하고 시끌시끌한 시장이라는 뜻이다. 진리를 상징하는 연꽃과 세속을 상징하는 진흙이 결국 '한 몸(同體)'인 셈이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허공에서는 연꽃이 피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부조리와 모순이 가득하다고 세속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대승과 맞지 않는다. 그들이 부파불교의 단혹증리(斷惑證理)를 비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구상 시인 역시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현실의 번뇌와 고통이 바로 꽃자리라고 노래하였다. 번뇌가 곧 보리라는 대승의 입장과 같이 하고 있다. 번뇌가 보리의 현장이며,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다름 아닌 꽃길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현실이 지옥으로 느껴질 만큼 힘들더라도 이를 외면하거나 피하지 말고 온몸으로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때 유행했던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인사는 이곳에서 통하지 않는다.

이처럼 부조리하고 번뇌 가득한 현실을 온몸으로 포용하려 할 때 사회의 변화 또한 기대할 수 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삶의 터전이니 말이다. 현실을 떠난 파라다이스는 없다는 것이 눈뜬 선지식들의 공통된 가르침이다. 저 높은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파라다이스로 가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서두에 소개한 문형배 재판관이 김장하 선생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이 사회에 있던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갚으려거든 내가 아니라 사회에 갚아라."

들을수록 감동적인 말이다. 이처럼 선한 영향력이 우리 사회를 조금씩 맑히고 있다. 이런 어른이 있기에 그나마 우리 사회가 지금처럼 유지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를 일이다. 필자 역시 소리 없이 보살행을 실천한 한 어른에게서 오랜 기간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덕분에 불교와의 인연도 깊어지고 불교 공부도 할 수 있었다. 김장하 선생이 최근 다시 주목받으면서, 작고하신 그 어른이 떠올랐다. 서랍을 뒤져보니 그분이 미국에서 보낸 편지 몇 장이 남아 있었다. 내게는 귀하디귀한 유산이다. 편지를 다시 읽으며 마음을 다잡아 보았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학인들과 편지를 돌려 읽었다. 아마 그분이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다.

'갚으려거든 내가 아니라 불교에 갚아라.'

꽃자리는 따로 있지 않다. 내가 발 딛고 있는 현실이 바로 그곳이다. 이곳을 정토로 장엄하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더 쉽고 의미 있게 전하는 일이 어쩌면 그분의 은혜를 갚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전북불교대학 학장〉

해광산업
해광양초는 특별한 양초로 양초에 정성과 향을 담습니다
"자연친화적향의 향기가 법당에 스며들다"

침향향을 담은 양초
육각 원기둥 돈타레 밀대 1호

약쑥향을 담은 양초 (강화도 사자발 약쑥)
원기둥 돈타레 밀대 1호 2호 3호

PC 팜 원통초
대 중 소

연꽃향을 담은 양초
육각 원기둥(중) 원기중(소) 1호

밀랍향을 담은 양초
원기둥 돈타레 밀대 1호 2호 3호

밀납향을 담은 초
대 중 소

해광산업 주문전화번호 031-333-0242, 010-5848-0189

(구)삼환양초가
중국 대련에서 40년 기술 노하우를
현지 공장에 전수하여 관리 생산한
최고급 중국산 대련양초를 자신있게 소개합니다.

WWW.SHCANDLE.COM

NAVER 삼환양초
원기둥 돈타레 밀대 쌍대

*유통 마진 없이 소비자 여러분께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삼환양초 주문전화번호
031-337-0243, 010-2308-0189

2025년 6월 4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33호 | 15 | 전면광고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을 좌선이라 할 수는 없다. 현실 속에 살면서도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좌선이라 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유마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서울
- 부지: 300평
- 건평: 150평 외
- 산 밑 차량진입, 주차가능
- 매가: 15억

- 위치: 경남
- 면적: 700평, 전통사찰
- 법당: 30평 외
- 매가: 30억
- 산 밑, 주차가능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 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 요양원 (급) 안내

- 위 치: 경남 밀양시 부북면 퇴로로 171-8
- 사찰 요양원 일체 매매(명당터) / 주차장 포함 대지 900평
  사찰 2층 총 54평, 황토방 포함 요사채 42평
  요양원 2층 180평(25명 정원 및 신도 많고, 요양원 베드 만석)
  인수시 원장, 부원장 바로 월급 받음
- 건강상 이유로 내놓습니다 • 앞 저수지 뒤 황학산 배산임수
- 가 액: 13억원(절충 가능)

010-9234-0811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세권 5분거리)
- 대지: 2종근생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대웅전 30평-1동 / 공양간 30평 요사채 23평 2층-1동 / 종무소 · 객방 13평-1동
- 용도: 사찰 · 사찰음식 · 명상센터 · 다원 최상입지
- 가액: 12억원(답사 후 절충)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시
- 아주 고요하고 조용한 사찰
- 총 평수 453평, 현대식 건물 3동
  1층 요사30평, 14평, 산신각 2평
  2층 법당28평
- 건물 대지 종교건물
- 가액: 3억7천만원

010-5804-5100

포교당 안내

- 위치: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 67평 동불 삼존불
  시설물: 2500만원 상당
-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1번 출구 300m
-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남녀화장실
- 문의, 가격 절충

010-3102-5102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화상대리
  *서울에서 약106㎞ 1시간 30분, 동홍천 IC에서 17㎞ 25분거리
- 총토지면적 : 546평
  *대지 199평, 건평 25평 1동, 임야 247평 (산지전용 토목공사 완료), 도로 약 100평
- 가액 : 1억 8천만원
- 사방이 국유지에 쌓인 천연 휴양지로 개인 토굴, 전원주택, 선방용으로 추천

010-8833-6949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시 고경면 논실리82
- 230평
- 가액: 2억3000만원(가격절충)
- 종교부지 / 주차 5대
- 법당 20평 산신각 요사채 등

010-9389-7457

사찰(급)안내

노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고령군 덕곡면 인곡1길33-12
- 대지 310평 / 법당 20평 산신각 / 요사, 별채 50평
- 가액: 2억2천
- 수도 가스난방

010-2369-3382

사찰(급)안내

- 위치: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9억5천만원

010-6325-511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사천시 새고개2길 47 (삼천포)
- 대지: 265평 (법당20평 정동향)
- 요사: 30평 (방3, 화장실2, 정남향) 3평(황토 찜질방 1동)
- 특징: 대형e마트 도보3분 위치 30대주차, 마당까지 진입
- 가액: 2억3천(地價만 계산했음)

010-8868-7017

포교원 건물(급)안내

- 위치: 강원 원주시 학성동
- 면적: 82평 실평(3층 건물)
- 대로변 주차 가능
- 매가: 4억8천만원
- 통화 안 될때는 문자·문의

010-2708-6972

부동산 모든문제(사찰)를 해결해 드립니다

못파는 부동산(사찰)을 팔아드립니다. (무료상담)
못사는 부동산(사찰)을 사드립니다. (무료상담)
(사찰: 5천만, 9천만, 2억, 5억, 9억, 12억, 15억, 30억, 75억 매물보유)
정성 부동산문제해결연구원 원장 행정학박사 정 용

정용 원장 약력

부동산평론가 (전국최초), 부동산 중개경력 40년 / 영남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 부동산경영최고위과정 책임교수 / 대구과학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겸임교수(역임), 방송인 /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겸임교수 (역임), 영남일보객원기자(역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 9대 지부장, 대구광역시 7대 시의원

대구 동구 제27140-2021-00097호

정용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010-2512-7777

사 찰 안 내

- 위 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
- 대 지 : 700평 (실사용 천평)
- 건 물 : 법당 (25평) 산신, 칠성, 용왕
- 요사채 : 슬라브 2동, 황토방 2동
- 해우소 : 1동. 차량진입, 주차장
- 금 액 : 4억

산이 병풍처럼 쌓인 도량, 남향이라 따뜻하고 앞이 탁트이고 살기좋은 도량, 큰비가 와도 물 배수잘됨. 도량에 과일나무 자두, 호두, 은행, 오디, 감나무, 매실, 두릅, 머위, 고사리 등

010-9203-1165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600평 / 임야 : 3600평
- 건물: 대웅전55평 공양실35평 종무소10평 요사30평
- 천연 지하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7억원

010-6764-0034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고령군
- 땅 대지 86평 대웅전 목재 20평 삼존불
  산신각 2평 요사채 20평 마당
  약사여래불 방3 화장실 3
- 가액: 1억 6천만원

010-9137-383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시 금호읍 황정리
- 대지: 210평
- 건물: 법당, 삼성각, 요사채(방 4개), 주차장
- 가액: 보증금 300만원/년 500만원

※집기류, 가전제품, 모든 기물 양도
경내 영험있는 서낭나무 있음
무속인, 철학인, 기도승 대환영

010-5333-8905
010-5022-2187

사찰 요양원 (급) 안내

- 위 치: 경남 밀양시 부북면 퇴로로 171-8
- 사찰 요양원 일체 매매(명당터) / 주차장 포함 대지 900평
  사찰 2층 총 54평, 황토방 포함 요사채 42평
  요양원 2층 180평(25명 정원 및 신도 많고, 요양원 베드 만석)
  인수시 원장, 부원장 바로 월급 받음
- 건강상 이유로 내놓습니다 • 앞 저수지 뒤 황학산 배산임수
- 가 액: 13억원(절충 가능)

010-9234-0811

사찰(급)안내

- 위치: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9억5천만원

010-6325-5112

사 찰 안 내

사찰(기부)회향매매하려합니다.

- 위치: 경남사천
- 3,500평이상 / 극락전30평
- 산신각/용왕당/미륵불
- 약사전/종각/ 부도탑20기
- 요사채(방7개)

(부재시문자주세요!)

010-8961-5489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3억 3천(대출 2억 1300만원)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사 찰 안 내

- 화왕산 국립공원 입구
- 현대식 건물 2층
- 건평 1000평
- 봉안당 사업 같이 하실분

010-3549-2270

사찰(급)안내

- 위치: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 대지: 130평
- 법당, 소불당 삼성각 용왕당
- 사시사철 자연수, 상수도 전망 아주좋음
- 매매 또는 전월세 가능

010-5033-1422

사 찰 안 내

- 정말 아름다운 사찰 급매물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 대웅전 등
  11억에서 현재 8억 대출 6억
- 영천 최고급 사찰대웅전 등등
  종교용지 조경최고1700평 9억
- 경북 청도 이서 아름다운 사찰
  전통양식 대웅전 등 5채 6억5천
- 대구 동구 000종단본부
  대웅전, 종무원, 산신각 등
- 대구사찰: 12억 땅 7백평
  신도 일천명, 대웅전 등등
- 진주시내 중심사찰 20억원
- 팔공산암자 : 2억원 호조건
- 고령사찰 : 2억원 건평 170평

053-745-9999, 010-2512-777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시 쌍계동 321번지
- 대지: 230평
- 건물: 법당18평, 뒷편 방1, 창고 요사채20평(방2,거실,부엌,창고) 용왕당, 산신각, 법종, 탑 등
- 이마트 영천점 4분거리
- 가격: 3억6천만원

010-5204-8176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 총평수: 690평(대지330평, 밭360평)
- 대웅전 36평, 요사채, 공양간 30평, 산신각8평
- 김천아포스마트시티아파트에서 3분
- 김천아포덕일아파트에서 5분
- 매가: 2억8천

010-9048-6611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도청 부근
- 부지: 약 1300평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요사채2동
- 석등 포대화상 황토방
- 명혈 명당 경관수려함
- 납골당 · 봉안당 허가 가능
- 가액: 8억 절충

010-4599-0103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밀양시 청도면 요고리 산334
- 종교부지(대지) : 약 462평(대웅전, 산신각 등 다수)
  법당평수 : 약 133평(1층, 2층, 3층) / 불상 다수 외
  요사채 : 약 82평(1층, 2층)
- 기타대지 : 3,238평(도로, 답, 전, 임야, 주차장 등)



- 장점 : 1. 도로는 대형버스 이용 가능하며, 사찰까지 포장됨(주차장 넓음)
  2. 주변 경치가 좋고, 하천(계곡)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음(사진 참조)
- 가격 : 협상(2025.2 종교시설 제외 감정평가액 12억원)

010-3862-0398(스님) / 010-4196-6070(관리자)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광고 접수 번호 안내

국내 최대 사찰 생활 정보 안내지로 2000만 불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02-2004-8204
010-4648-820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533호 | 16 | 전면광고

이 세상에서 으뜸가는 재산은 믿음이다.
덕행을 쌓게 되면 행복이 찾아온다.
진실이야말로 맛 중의 맛이며 지혜롭게
사는 것을 최상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법구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 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전수장학생 한시적 등록추천)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사찰전문 건축공사

1. 사찰 지붕공사(칼라 강판 · 판넬)
2. 일반주택, 빌라, 상가 (기와/슬레트, 슬라브) 지붕공사
3. 요사채 창고 등 신축 및 수리
4. 전기판넬, 보일러 등 난방 공사
5. 전기배선, 조명 공사
6. 진입로, 옹벽, 기타 토목공사

*공사관련 모든 사항 상담 가능
대성 010-3817-8075
개발 010-3824-08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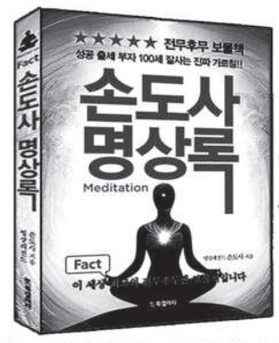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사찰행사(불교의식)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 나비무, 전통살풀이
정성껏 해드립니다
연암당 스님
010-6219-4757

손도사 유튜브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요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승가 유품정리 안내

스님 일반인 유품정리
사찰 법당 철거 해드립니다
최대한 정성껏 최소의 비용으로 부담없이 해드립니다
주소 : 부산시 동래구 동래로 159번길 58-7 동호(A) 309호
010-5507-7080 이주현

범음 · 범패 학인 모집

• 각단의식 및 예불, 천수바라, 작법
• 사물 법고, 정근북, 송주북
• 각 사찰 행사 합니다
• 진주 금륜사 법현 . 대진합장
• 주소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1528-7 금륜사
010-7579-820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장생탕제원

암, 당뇨, 백혈병, 전립선, 조루, 발기부전
한밤중에 자다가 뒷다리에 쥐가 난다
(혈액순환을 잘되게 하세요)
농협 : 352-0632-0488-93,
하나은행 : 577-910361-13007
예금주 : 김 정 태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33길 18
식이요법 · 자연요법 · 면역요법
010-2046-0260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1kg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1kg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전화 02-732-1520 , 팩스 02-737-0696
▣ 계 좌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바이넥스 / 원산지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사찰 및 재단법인 추모공원 대표 및 주지 하실분 찾습니다

땅 만평 정도, 관광사찰 납골 현 600기정도
부전스님 구합니다 010-2078-9595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 태고종 스님 우대
• 법력 무관
010-2650-5852

누구나
인생의 기로에서 지표가 되는,
그리고,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는 삶의 나침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치 : 창원시 · 경남 고성



상담 : 010-2090-4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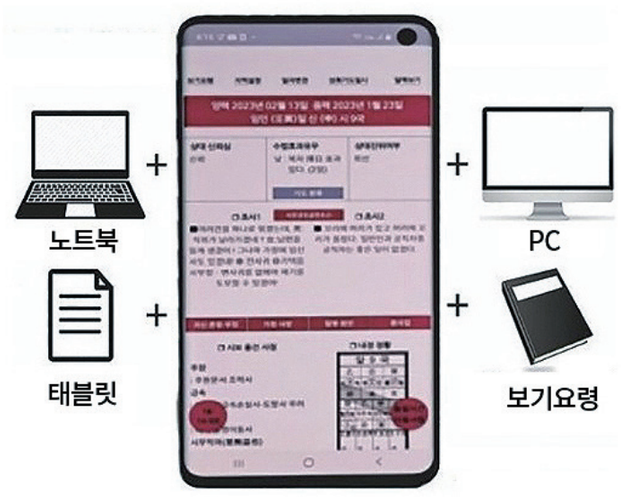
육임 정확도 효과성 착목도 속도성 보장

익명성 지피(知被:감추는 상대의 비밀 · 고민사 판단됨-생년월일시 불필요함)

검증 30년의 신뢰! 분실 파손 재실행 영구사용!

1. 상대(방문 전화)가 누구든, 언제 어디서든, 무슨 문제이든 실시간으로 미리, 또는 즉시 판단됩니다.
2. 오늘 몇 시, 내일 몇 시, 방문, 내방, 전화이든, 지난 또는 다가올 당시의 연월일시든, 상대 속마음, 용건, 사안의 대소, 가부 호악 진퇴 희비 및 감추는 비밀사까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3. 상대가(전화포함) 해당 사안에 대한 이익 될 人 인지, 피해줄 人 인지, 손해나게 할 人 인지, 무력 人 (지위고하세력 막론, 해당사안 위주) 인지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4. 동일한 시간에 여러 사람이 오거나 찾아가거나 전화통화를 하더라도 '다음사람'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해당인의 여러 내용이 즉시 나타납니다.

• 왜 왔는가?
• 상대의 신뢰심(진위고집불성등) 여부
• 주요상담성취 안좌방위 및 회의 안건 반대자 여부
• 교섭 전후난이 상대진위 여부
• 소송 승패(구속 불구속) 여부
• 주식 이익종목 선택 및매도 매입 시기
• 상대 충성배신 여부
• 남여 성력(性力) 및 선호 태위 여부
• 주요 공사책임자 선정 및 무사고 개시 일시여부
• 깃발 착복색 선택 당선 승진 취직시 험사 여부
• 생업가정흥쇠여부
• 남녀 독신 고독 생사별자 여부
• 부부 동시 색정 1남2녀 1녀2남 삼각관계 여부
• 사안의 대소규모 여부
• (상대 현재실정)
• (상대구체 사안)
• (상대적확성)
• 상대 계획 도모사 측정 여부
• 전화 친견 상담용
• 면접사 여부
• 모망사 여부
• 구재사 여부



50일간 특별할인가격 90만원(업데이트 완성)
카드 3개월 결제 – 결제 즉시 소지 휴대폰에 실행파일 전송



50일간 특별할인가격 200만원(완결판) 교환 30만원
육임 USB 프로그램 – 인터넷 없이 영구 사용
02-567-3850 / 010-7596-5146
한국육임학회(육임쇼핑)

• 귀신침해 부정 침범 산소탈(묘지속水蛇)여부 및 해소 방편
• 수법(천도 시식기도) 효과 유무
• 효과기도 분류
• 이혼 승패(유리 불리 여부) 운세 명암 지점 여부
• 임대 임차 이해친소 가옥 사옥 이전 길방여부
• 상대 신분(대통령, 장관급, 차관, 고위급, 지방관서장, 사계실력인, 우고인) 여부
• 목적 성취기도 일시 지정
• 금융재 금액 대소여부
• 선출직 성격 실적 사전 판단
• 뇌물 증여 가납 효과 여부
• 질병치유 여부
• 가출 귀가사 여부
• 혼인사(용모 가문 시기)
• 연년세세 1년 월별 신수
• 친화 구해 자녀 여부
• 혼인 부부 성격-궁합 여부 등등
• 우고사 해소되는 방문(전화) 시간 명시
• 무성(無聲:헛소리)에 불과한 방문(전화)시간 명시
• 임신사 여부
• 출산 길일 길시 선택 지정

위 육임 프로그램과 육임Ai와 육임 각 활용서 극대 효능을 위한 저, 효사 개별 직접 방문 전국 순회 일정입니다.
서울지역 월요일 14시 대전지역 화요일 14시 전주지역 수요일 14시 광주지역 목요일 14시 부산지역 금요일 14시 대구지역 토요일 14시 강원지역 일요일 14시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인증업체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흑염소진액 골드





할인행사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원섭의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⑪ '호텔 델루나'(2019)

달의 본래 모습은 변한 적 없다

우리의 신화와 전설을 잘 담아낸 드라마로 '전설의 고향'을 꼽지 않을 수 없다. 현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세계를 거쳐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사후세계로 이끌어 주는 저승사자가 술하게 등장했다. 긴 머리를 풀어헤치고 나타난 처녀 귀신들의 한을 풀고자 하는 염원이 있었고,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구미호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 그렇게 '전설의 고향'은 우리 문화 속에 살고 있던 캐릭터를 TV에 구현해낸 훌륭한 SF 드라마였다.

이 드라마가 구현하는 이야기는 〈삼국유사〉나 〈조선왕조실록〉이나 〈연려실기술〉 같은 고전에 실린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다. 드라마로 고전을 리메이크한 셈이다. 리메이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전의 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 맞게 얼마나 설정을 제대로 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드라마 '호텔 델루나'는 무척 흥미롭다. 다른 이의 목숨을 빼앗은 벌로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죽지도 못하고 나무에 영혼이 묶여 사는 주인공. 마냥 애잔하기만 할 것 같은 그는 온갖 사치를 즐기면서 화려하게 사는 호텔 사장님이다. 더욱이 이제 막 호텔에 도착한 신규 고객에게서 이승에 남겨둔 재산을 서비스 요금으로 뜯어내는 능수능란한 인물이기도 하다. '찬란하고 쓸쓸하신 도깨비'가 그랬듯이 이 드라마는 전설 속에나 있을 법한 캐릭터를 이 시대에 맞는 개성 넘치는 인물로 훌륭하게 리메이크했다.

1300여 년 전 고구려 유민 출신의 무사 장만월(배우 이지은)은 자신이 죽인 사람들의 유품을 관에 담아 끌고 다니며, 죽은 이들의 영혼을 쉬게 한다는 객잔을 찾아다니다가 마고신(배우 서이숙)을 만난다. 마고신이 건네준 월령주를 마시는 순간, 만월의 검인 만월검이 월령수에 꽂혀 흡수되면서 만월은 불로불사의 존재가 된다. 그와 동시에 달의 객잔의 주인으로서 죽은 자들을 저승으로 인도해야 하는 벌이 시작된다.

한편 달의 객잔은 13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다가 지금은 호텔 델루나가 되었다. 이곳은 죽은 이들을 위한 호텔이지만 현실 세계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살아있는 사람이 지배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 평생 만월을 위해 일한 지배인의 수명이 다해가는 상황에서 바통을 이어받은 새 지배인은 하버드대학교의 MBA를 수료한 초엘리트 호텔리어 구찬성(배우 여진구). 이들 외에 500년째 일하고 있는 바텐더 김선비(배우 신정근), 200년째인 객실장 최서희(배우 배해선), 70년째인 프론트맨 지현중(배우 표지훈) 등이 호텔을 찾아온 다양한 죽은 이들을 맞이하여 사신(배우 강홍석)이 저승으로 인도하도록 돕는다.



전설 속 신 등장·죽음 매개 이야기 담겨
2019년판 '전설의 고향' 리메이크인 셈
시대·근기 따른 불교 진리 리메이크 기대

만월과 찬성은 갖가지 사연으로 호텔을 찾아온 이들의 억울함이나 한을 풀어주고, 때로 마고신이 나서서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살아있는 자에게 응당의 처벌을 내리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호텔 델루나는 '전설의 고향'의 2019년판 리메이크라 해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호텔 델루나이기 때문에 드라마에는 그동안 잘 모르고 있던 '마고신'부터 너무도 익숙한 '사신', 그러니까 '저승사자'까지 전설 속의 다양한 신들이 등장하고, 죽음을 매개로 신들을 만나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시대 배경은 달라도 '전설의 고향'에서 본 듯한 인물의 상황과 에피소드들, 전하려는 주제도 분명하다. 매회 등장하는 인물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제대로 못 살면 세세생생을 거쳐 그 과보를 반드시 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달과 관련한 유명한 게송이 있다.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보신(報身)을 달에 비유한 '보신송'이다.

달이 은하수를 오가면서 점점 둥글어지니
(月磨銀漢轉成圓)
하이얀 달빛 대천세계를 밝혀 주네
(素面舒光照大千)
성성이가 팔을 이어 부질없이 그림자 잡으려 하나(連臂山山空捉影)
둥근 달은 본래 청천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네.
(孤輪本不落靑天)

초승달을 매일 은하수에 갈아서 희게 만드는 일이 수행이고, 수행이 완성되어 보름달이 되면 둥근 달빛이 세상을 환히 비친다는 내용이다.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면 그 수행의 공덕을 삼천대천세계 모두가 누린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강에 비친 달을 본 성성이는 그곳에 달이 있는 줄 알고 팔에 팔을 이어 달을 건지려 한다. 하지만 달은 강에 내려온 적이 없이 항상 하늘에 있으니 어쩔 것인가.

사실 달은 강에 내려온 적도 없지만 둥글어지거나 검어진 적도 없다. 우리 눈에는 초승달, 반달, 보름달 등으로 보일 뿐, 달의 본래 모습은 변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게송은 보름달로 나타난 보신이나 강에 비친 화신(化身), 변하지 않는 애초의 달인 법신(法身)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장만월이 이끄는 달 객잔의 근본적인 역할은 죽은 이들이 쉬다가 편안하게 저승길로 나서게 하는 것이다. 시대에 따라 만월당에서 만월관으로, 또 호텔 델루나까지 이름과 모습을 바꿀 뿐이다. 달의 속성 또한 그렇다. 매일매일 우리가 보는 달의 모습이 바뀔 뿐 애초의 달은 변한 적이 없다. 불교의 진리 역시 변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지만 시대와 사람의 근기에 맞게 팔만사천 가지 불교로 '리메이크'할 수 있어야 한다.

장만월은 1300년을 월령수에 묶여 있었으니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이 활약하시던 모습을 보았을지도 모르겠다. 혹시나 지나는 길에 만월(滿月)이를 만나셨다면 '보신송' 한 구절 전해주셨을 텐데. 그랬다면 만월도 훨씬 일찍 자신을 묶어두었던 속박에서 벗어났을지도 모를 일이다.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말세의 파계 비구 옹호
지장보살 출중 역량 주장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㉑ 〈지장십륜경〉의 주요 내용

〈지장십륜경〉의 서문과 함께 책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경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세의 파계 비구를 옹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내용을 열 가지로 따로 간추려서 위해(危害)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점이지요.

그러한 이유 중 하나는 말세의 파계 비구가 계율을 깨뜨리고 악(惡)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비구의 출가한 계덕(戒德)의 힘이 오히려 세어서, 그것은 마치 우황이나 사향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계율을 깨뜨린 말세의 파계 비구라 할지라도 일체의 하늘, 용, 야차, 건달,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인비인(人非人) 등이 그들을 옹호하고 지켜내려 하는 것은 그 파계 비구 등에게는 무량한 공덕 보배의 복장(服裝)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경전에서 '지장보살의 역량'은 승려에 대해 대·소승의 계율을 엄격히 지켜야 함을 명령함과 동시에, 속인의 삼보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장십륜경〉의 시대 배경이 말법시대인 불법 쇠멸의 시대로, 계율적인 면을 엄밀하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 법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법을 따라 출가한 자라면 계행을 지킨 비구이든 계행을 깨뜨린 비구이든 계행이 없는 비구이든 간에, 나는 오히려 전륜성왕을 비롯한 다른 국왕과 대신들이 세속의 법에 의지하여 채찍과 몽둥이로 그 몸을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어 갖은 모욕을 더하거나, 내지 팔과 다리를 베어 그 생명을 끊는 것을 허락하지 않거늘, 하물며 법에 의지하지 않는 일이겠느냐?"라고 말세의 비구를 향한 강력한 옹호의 교리가 설해져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지장의 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력(定力)에 의해 그 불토의 일체유정들의 모든 고통, 투쟁, 질병, 기근 등을 소멸해서…오탁악세의 부처가 없을 때 일체의 유정들을 성숙시키면서 삼계에 도달할 때까지 그 몸을 출현해, 대법륜을 굴려 구제하는 것을 그 본원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지장보살의 본래 서원은 모든 중생의 구제와 함께 성불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지장보살의 공덕과 교화력이 여타 보살들을 능가하는 모습도 살필 수 있습니다. "선남자여, 가령 어떤 이가 미륵, 관자재, 묘길상, 보현 등을 공양하여도…일식경(一食頃) 동안 지장보살을 지심 귀의하여 칭명, 염송, 예배, 공양하며, 원하는 바를 구하여 속히 만족한 것만 같지 못하다. 왜냐하면 지장보살은 일체 유정을 이익 안락하게 하여, 모든 유정으로 하여금 소원을 만족하게 하기 때문이다." 즉, 지장보살의 위신력은 여타의 보살들보다 유정들을 이익 되게 하며, 그 희구하는 바 소원을 성취시키는 힘이 더욱 출중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인과를 부정한 과보와 또 참회를 하여서 멸죄 받아 얻는 이익의 과보를 상세하게 설하였습니다. 또 〈지장십륜경〉을 수지 독송하면 소원이 빨리 성취된다고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관음경〉과 같은 곳에서도 비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 즉 독각승과 성문승이란 어떠한 이들인지 보살들과 성문, 독각승들의 차이점을 밝히고, 각자의 설법의 다른 점을 상당한 양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전의 번역 당시의 상황을 살필 수 있습니다.

〈지장십륜경〉의 내용 중 더욱 중요한 점은 설법사의 인지사항에 있어서 그들이 읽어야 할 부분, 상대에게 법문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에 관한 설명, 불교를 신앙하는 이가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될 5무간대죄 중 4종의 근본대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결코 무간지옥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차로 〈지장십륜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며 이야기를 펼쳐 나가겠지만, 다른 경전에서는 볼 수 없는 특색 있는 한 가지를 더 들어봅니다. 가령 수행대중이 같은 공간에서 정진할 때 계를 어긴 파계승의 '빈출법(가려내는 법)'은 당시 율법과도 관련되어 동거승들의 생활상에 있어서 상당한 지혜를 요구하는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지장십륜경〉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의 열 가지 정책인 왕륜(王輪)에 대하여 불법(佛法)의 열 가지 내용인 십불륜(十佛輪)에 의하여 열 가지 악업(十惡業)을 뒤집어야 함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 경(經)의 제목이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어 경이 설해지는 배경과 그 동기에 대한 설법이 제1장의 서품(序品)에서 설해지고 있습니다.

〈송림사 주지〉



미래를 여는 세계적 불교성지 탄생에 함께해 주십시오.

크게 제도할 도량 거제도 제석산에 천연 와불이 수호하며 거북이가 알을 낳고 대붕이 내려앉는(대붕안착형) 영험한 명당에 더븀비전센터를 창건합니다.

세계 건축 명장이 초현대적 감성으로 불교 우주관을 녹여 남섬부주에서 9산 8해를 지나 수미산 정상에서 설법하시는 부처님을 찾아가는 여정을 구현했고,
33수행계단을 오르며 비우고 또 비워서 비로소 참나를 찾아 붓다로드에 자화상의 도예 원불을 모시도록 하였습니다.
부처님을 상징하는 흰 코끼리 건축물, 수미산 형상의 코, 제석천 위 허공에 뜬 불상, 바다 위에 떠 오른 해수관음보살상, 구품연지, 금강저, 종이로 만든 법당 기둥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찰건축 작품입니다.

창건불사 하십시오.

도예원불 동참으로도 창건 공덕주가 됩니다.
삼천 불자들의 소망을 모아 대작 불사를 시작합니다.
자손 대대로 거북이 같은 장수와 부귀를 누리게 될 위대한 불사에
불자님의 정성과 원력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도예원불 108만원(100일 기도축원)
해수관음보살 1080만원(1000일 기도축원)
계 좌 부산은행 101-2083-6727-07
문 의 010-5514-1002 경남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525-3

더븀비전센터 평천 범혜 합장
(부산불교교육대학장,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이사장, 영산대학교 동양상담학과 교수)



이승혜의 그녀, 붓다를 만나다 ⑪ 미륵 세상을 꿈꾸며

▶한줄 요약
14세기 후반 혼란의 고려 사회를 살아가던 민중은 미륵불이 하생하여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기를 고대했다. 이성계와 함께 사리장엄구를 봉안한 그의 둘째 부인 강씨 역시 마찬가지였다.



금강산에 묻은 어느 부부의 특별한 염원

1932년 산불 저지선 공사가 진행 중이던 금강산 월출봉(月出峰)에서 한 석함이 우연히 발견되었다. 석함 안에는 금속과 백자 기물 등으로 구성된 사리장엄구가 모셔져 있었는데, 그 중 백자발 한 점의 안쪽에는 대명 홍무 24년(1391년, 공양왕 3년) 4월 1만여 명의 사람들이 미륵을 기다리며 금강산의 비로봉(毗盧峯)에 부처님 사리를 모신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함께 발원하여 봉우리에 사리장엄구를 모신 사람 중에는 후일 조선을 건국하는 문하시중(門下侍中) 이성계(李成桂, 1335~1408)와 그의 둘째 부인인 삼한국대부인 강씨(三韓國大夫人 姜氏, 1356~1396)도 있다.

이 사리장엄구는 발견 이듬해인 1933년 7월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소장품으로 정식 등록되었다.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한 이후에는 국립박물관에 인수되어 고려 말기 금속공예의 높은 수준과 불교 신앙을 보여 주는 귀중한 유물로 중시되었다. 이 점은 2017년에 이 사리장엄구가 보물로 지정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금강산 출토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 일괄', 나라에서 정한 이 보물의 명칭이다. 발원문 중 스님을 제외하면 이성계의 이름이 가장 먼저 열거된다는 점에서는 발원의 주체를 명확히 드러낸 적절한 명칭일 것이다. 그러나 함흥 출신의 무장 이성계가 조선의 태조(太祖, 재위 1392~1398)로 거듭나기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도왔던 삼한국대부인 강씨, 즉 실질적으로 조선의 첫 번째 국모였던 신덕왕후(神德王后)의 존재가 지워졌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명칭이기도 하다. 이 두 사람이 금강산에 함께 묻었던 비밀스러운 염원은 무엇이었을까.



금강산 출토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 일괄, 고려 1390~1391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사진 제공=e뮤지엄

사리장엄구에 새겨진 염원

일제강점기에 우연히 발견된 이 사리장엄구에 대해서는 발굴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비로봉에 모셔져야 했을 사리장엄구가 왜 월출봉에서 발견되었는지도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알 길이 없다. 그러나 그간 발표된 여러 연구를 통해 조성과 봉안 당시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다.

사리를 직접 모신 그릇은 모두 5중에 달하며, 여기에 지금은 전하지 않는 석함까지 포함하면 6중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바깥쪽 그릇으로는 백자 사발이 사용되었다. 백자 사발 안에는 유기완(鍮器垸)이 포개져 있었을 것이다. 이 유기완 안에는 은제도금 팔각당형 사리기(銀製鍍金八角堂形舍利器), 은제도금 라마탑형 사리기(銀製鍍金喇嘛塔形舍利器)를 차례로 넣었고, 이와 함께 사리를 옮기는 데 사용했을 귀이개 모양의 은제이소(銀製耳搔)가 함께 들어 있었다.

팔각당형 사리기는 따로 제작한 연화형 대좌와 팔각형 은판, 팔각당형의 뚜껑을 결합하여 만들어졌다. 몸통에는 두 손을 모아 합장한 불입상이 각 면마다 새겨져 있다. 여래의 상호는 넓적하고 귀가 크며, 양쪽 발을 벌리고 선 정면향의 모습이 독특하다.

라마탑형 사리기도 팔각당형 사리기와 유사하게 별도로 만든 연화형 대좌, 원통형 은판, 라마탑형 뚜껑을 결합하는 구조이다. '라마탑'은 티베트 불교미술에서 유래한 탑의 형식으로, 몽골족이 중국대륙을 지배했던 원대(元, 1271~1368)에 본격적으로 조성되었다. 기본적으로 수미좌, 탑신, 상륜, 탑찰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가운데 부분이 볼록하게 나온 탑신의 모습이 특징적이다. 고려가 원의 간섭을 받게 됨에 따라 원 황실에서 숭앙했던 티베트 불교와 티베트 불교미술의 양식이 고려에 수용된 결과이다. 탑신에는 4구의 불입상을 돌아가며 새겼다. 팔각당형 사리기에 새겨진 불입상과 마찬가지로 정면을 바라보며 양발을 벌리고 선 모습이다.



은제도금 팔각당형 사리기(분리한 모습), 고려 1390년, 전체 높이 19.8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사진 제공=e뮤지엄



은제도금 라마탑형 사리기와 유리제 사리병(분리한 모습), 고려 1390년경, 전체 높이 15.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사진 제공=e뮤지엄

라마탑형 사리기의 원통형 구조 중앙에는 가느다란 원통형 모양의 유리 사리병이 봉안되어 있었다고 전한다. 무색투명한 석영유리를 주재료로 만들어진 이 병이 사리를 직접 모신 가장 안쪽 그릇에 해당한다. 유리 사리병은 금속 재질의 연화대좌로 안정감 있게 받치고, 금속 재질의 연꽃 모양 마개로 봉인하도록 고안되었다.

석함 안에는 이와 같은 5중의 사리장엄구 외에 대형 백자 4점이 함께 들어 있었다. 이 중 1점은 구연부에 테두리가 달린 완(垸) 형태의 향로이며, 다른 1점은 향목을 봉안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백자 사발이다. 그리고 나머지 2점의 백자는 아래보다 위가 넓은 주발이다. 이 두 점의 주발은 앞서 살펴본 명문이 있는 두 점의 백자에 각각 포개어 뚜껑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기물 중 사리장엄구의 가장 바깥쪽 그릇인 백자 사발의 안측과 굽, 향합으로 추정되는 백자 사발의 외면, 유기완의 구연부, 팔각당형 사리기 안의 팔각형 은판, 라마탑형 사리기 내부의 원통형 은판에는 조성 경위를 기록한 명문이 각각 남아 있다. 이 중 라마탑형 사리기 안 원통형 은판에 새겨진 '분충정난광복섭리좌명공신 벽상삼한삼중대광 수문하시중 이성계, 삼한국대부인 강씨, 물기씨(奮忠定難匡復燮理佐命功臣 壁上三韓三重大匡 守門下侍中 李成桂 三韓國大夫人 康氏 勿其氏)'라는 명문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사리와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새겨진 명문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이는 호칭은 이성계가 1389년에 창왕을 폐하고 공양왕을 옹립한 공으로 받은 것이다. 이 위호를 통해 라마탑형 사리기가 1389년 이후에 제작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왕을 능가하는 권력자 이성계의 위상도 엿볼 수 있다. 이 명문에서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점은 이성계 다음으로 그의 첫째 부인인 한씨(韓氏, 1337~1391)가 아니라 둘째 부인인 강씨가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이다. 당시 한씨가 와병 중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이처럼 중요한 불사에 그녀의 이름이 빠졌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라마탑형 사리기 외에 뒤에서 살펴볼 다른 기물들에서도 한씨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 점은 이 불사에서 강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물기씨'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보가 없어서 정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이성계 부부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새 세상이 열리는 그날

사리장엄구의 가장 바깥쪽 그릇인 백자 사발의 안쪽에는 '금강산 비로봉 사리안유기(金剛山毘盧峯舍利安遊記)'라는 장문의 명문이 새겨져 있다. 1391년 5월에 이성계와 부인 강씨, 승려 월암(月菴), 몇몇 신분이 높은 여성들이 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비로봉에 사리를 모시고 미륵의 하생을 기다린다는 내용이다. 이 여성들 중에는 나라에서 받은 칭호와 스승에게 받은 법명을 이용해 자기를 표명한 낙랑군부인 묘선(樂浪郡夫人 妙善/禪)과 강양군부인 이씨 묘청(江陽郡夫人 李氏 妙情)처럼 불자로서 뚜렷한 자의식을 가진 여성도 포함되어 있다.

14세기 후반 혼란의 고려 사회를 살아가던 민중은 미륵불이 하생하여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기를 고대했다. 전장에서 왜구와 홍건적을 토벌하며 자신의 이름을 만들어 나간 함흥 출신의 무장도, 그에게 운명을 건 몰락한 귀족 집안 출신의 강씨 역시 민중과 함께 새 세상을 꿈꾸었다. 이 사리장엄구를 봉안하고 일 년 후에 마침내 도래한 새 세상에서 강씨는 이성계의 옆에서 조선의 첫 번째 국모 자리에 올랐다. 라마탑형 사리기에 나란히 이름을 올린 것처럼 말이다.

〈동아대 역사문화학부 교수〉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술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유독시 석결명죽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 루 자 죽 염 125g 45,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82,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50,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대행 스님

아는 거든 모르는 거든 그냥 무조건 공에다 놔버리세요

어떻게 해야 탁 놓을 수 있을지

질문 스님들께서는 자꾸 놓으라 하시는데 저는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게 많아서 그런지 분별이 많아 탁 놔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탁 놓을 수 있을는지요.

답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모두 각자가 다 이게 물건이 있으면서도 공입니다. 아는 거든지 모르는 거든지 머리에서 좀 아는 거는 다 공에다 놨으면 좋겠습니다. 놓는 것도 믿어야 놓을 수 있습니다. 덜 믿기 때문에 못 놓습니다.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오직 들고 나는 것은 한군데밖엔 없습니다. 구멍 없는 구멍. 나고 드는 곳은 오직 그거 한군데밖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군데를 노리고 거기에다, 놓는 것도 거기에다 놓으면 됩니다. 그건 무조건, 그냥 무조건이에요.

차라리 무지막지하게 모르는 사람 같으면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는 게 머리에 너무 많단 말입니다. 꽉 찼어요. 그러나 그 아는 것도 똘똘 한데 뭉쳐서 그냥 공에다 놓으세요. 놔도 그 자리가 그 자리니까요. 머리에서 아는 게 떠올라도 처음에는 놓으셔야 합니다. 그럼 그걸 얻다 놓느냐?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없다면 공도 없다는 거. 바로 내가 공이니깐 나한테 놔야죠. 그것도 이름해서 '당신 주인공에다 놔!' 하거든요. 내가 공인데 거기에 무슨 화두가 또 붙느냐 이겁니다. 내가 공이고 내가 화두인데, 그 화두에다 놔라 이거예요.

놔 버리다 보면 자연적 싹이 트게 됩니다. 그때에 의정이 나게 되죠, 정말 의정이. 그저 생활 속에서 의정이 아닌 게 없어요. 그때 딴 사람은 모르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다 놓을 수 있어서 다 놓게 되면, 그때 싹만 난다면 그때는 그 아는 거를 써먹게 되는 거죠. 저절로, 아니까 저절로 나오는 거지만 그건 이차입니다. 이차로 돌리셔야죠. 자꾸 그게 앞서기 때문에, 앞설 것이 자꾸 뒷서기 때문에 이게 엇갈리고 아리송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발견하는 거는 상당히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좀 미련한 듯해야 쉽다이겁니다. 그러니 아예 그냥 무조건 놔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머리에는 억만 가지로 이 실이 두리두리 두리두리 그냥 엉켜서 잔뜩 쌓여 있거든요. 이걸 풀려면 이 인간으로선 보이지 않는 실밥이 뭉친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데서 풀어야지, 보이는 데서는 절대로 풀 수가 없어요. 도저히 풀 수가 없습니다.

그냥 놔야 그 실밥은 한순간에도 풀릴 수 있는 거죠. 그 한순간에 풀린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모든 거를 쌓았기 때문에 탑 위에 봉우리가 올라가는 거지, 탑을 쌓지도 않고 그게 올라가나요? 그러니까 그냥 놔 보십시오. 오늘부터, 놔지나 안 놔지나. 그 본래 놔져 있다고, 놓고 간다 이런 것까지 아시는 분이 그 실천을 하지 못하시면 어떡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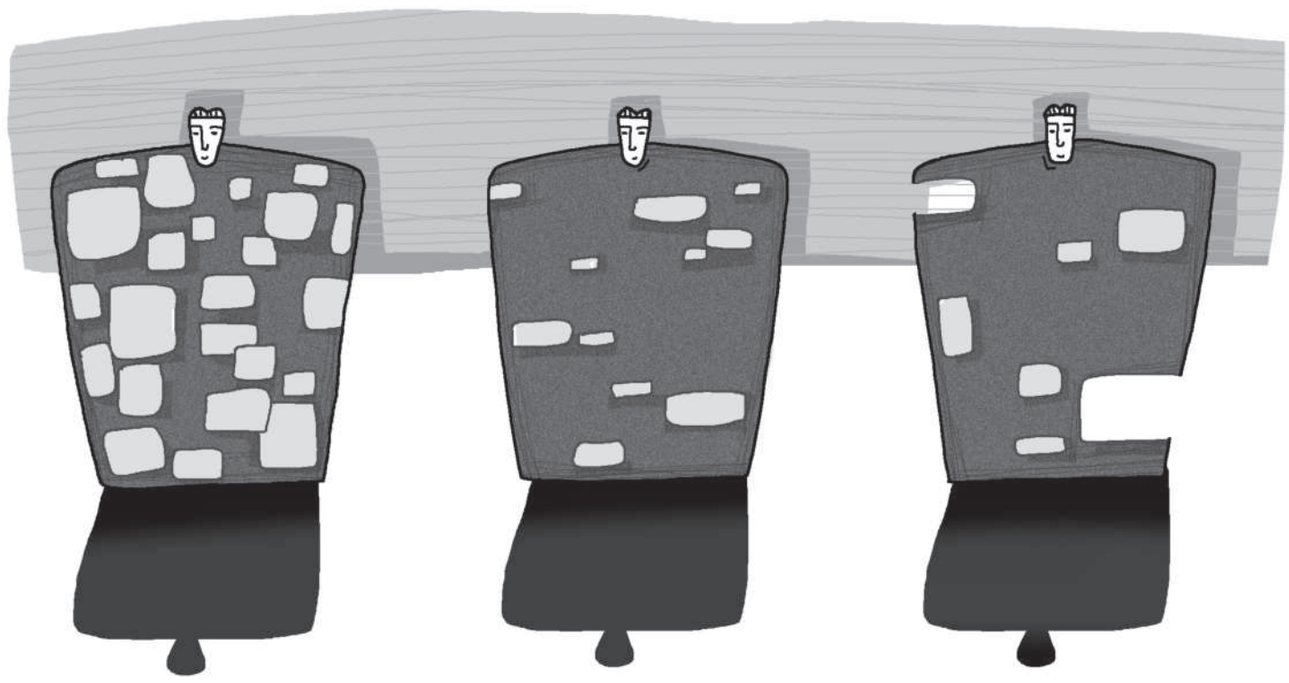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제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질문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인데 그동안 아득바득 살아왔던 제 인생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여해지고 싶은데 아직은 믿음이 부족한가 봅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늘날 우리 불교가 기복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그 모든 일체 만법을 맛을 모르고 먹을 줄 모르고 줄 줄도 모르고 이거는 막막하기가 한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 생겨도 어떻게 처리해야만 낫는지 그것도 모르고 누가 그러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만 가는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죽는다 산다 이것이 사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들도 여간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굼벵이가 매미가 될 수 있는 것도 그 근본 축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자기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대의적으로 봤을 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매미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매미가 돼서도 스스로 자기 마음의 차원이 조금 '나는 왜 기어 다니기만 할까? 왜 저렇게 날지 못할까?' 할 때 날 수 있는 진화력이 생긴단 얘깁니다. 그런데 자기는 굼벵이가 매미가 된 것도 모르고 매미가 굼벵이였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도 어디서 왔는지, 내가 이걸 어디로부터 어떻게 해야 처리가 되는지 그것조차도 여러분이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인생이 늙어가면서, 벌써 이 세상에 생겨났다 하면 뚜벅뚜벅 죽으러 가는 형편이니 얼마나 허무합니까, 인생이? 고생은 고생대로 죽도록 하고, 쳇바퀴처럼 말입니다. 돌아가면서 자식 기르느라고, 아니 햇빛 주랴 묵은 빛 갚으랴, 이건 여념이 없이 그냥 돌고 돌고 또 돌고 돌다가 머리는 허옇게 세어지고 인제 수족은 못 쓰게 되니 얼마나 허무한 문제입니까?

허무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면 이 도리를 꼭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늙으나 젊으나 이 몸이 있을 때 바로 그 도리를 알아야 진화력이 생겨서 바로 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지 않는 도리를 알게 되고 바로 끄달리지 않는 도리를 알게 되고 업을 지니지 않는 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날 기복으로만 그저 밥이나 해 놓고 떡이나 해 놓으면 부처가 잘 먹는 줄 알지만 여러분의 부처가 다 먹어치우고 가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처가 "더 가져오너라. 덜 가져오너라. 많이 가져오너라. 맛있는 거 가져오너라. 다 내가 먹겠다." 이럽디까? 그러니 기복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 말들은 좋죠.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있죠." 이런 말들이야 뭐, 누군 못 합니까? 실천이 문제지. 그 근본의 실천이 문제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놓을 때 공짜로 떼어 놓지 말라 이겁니다. 말을 하면 그 뜻과 말과 행이 같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자가발전소가 그대로 있으면서 가설이 된 데에 용도대로 자기가 스위치 눌러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의 능력을 기르시라 이 소립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인이요, 그것이 바로 자유인의 법칙이며, 그것이 부처며 그것이 보살의 행위며 그것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부처는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생각 냈다 하면 법이고 법신이고 움죽거렸다 하면 화신인데 어째서 화신 따로 있고 법신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공짜로 떼어놓지 말고 실천하라

☞ 19면에서 계속

따로 있고 부처 따로 있습니까? 아니, 중생이란 이름 따로 있고 그렇게 이름이 많으나 그것은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서 조화를 이루려니까, 회전을 하려니까 이름을 지어 놓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두를 그렇게 해서 자유권을 얻으시려면 첫째, 모든 건 주인공을, 자기 참주인공을 믿으셔야 합니다. 항상 얘기하죠. 주인공이란 꽉 찬 나라고. 이 안테나와 같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거기에다 모든 것을, '안 되는 것도 거기서밖에는 못 해.' 하고 맡기고 또 되는 거는 감사하게 거기다 놓고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다면, 그러면서 부지런히 뛰면서 생각하고 그런다면 앞으로 머지않아서 그런 여건이 주어질 거라고 봅니다. 자기를 꼭 반드시 찾게 됩니다. 그것은 찾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병고에 휘달리는 것도 해결할 수 있고 또 '내가 자빠져도 코가 깨져. 왜 이렇게 안 돼?' 그러는 것도 해결할 수 있고요. 껄껄 웃으면서 '참 즐겁구나.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즐거울 줄이야. 허무함이 없이 이렇게 즐거울 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갈 수 있는 그 느긋함이 생길 것입니다.

외계의 존재에 정신을 뺏긴다는…

질문 스님께서는 외계의 존재가 있어 우리의 정신을 뺏어가기도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만약에 다른 혹성에서 마음세계로 치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지구의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발전하고 이러는 것을, 지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지구를 방문을 해서 모두 돌아보고 가도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계발되지 못하면 아마 다 송두리째 뺏겨도 뺏기는 줄 모르게 뺏길 수도 있다 이 소립니다. 뺏긴다고 해서 죽는 것은 아닙니다만 두뇌가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보고 있는 그 자체를 그냥 빼 가도 여러분은 어디다가 호소 한마디 못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술을 가졌든지 다 빼서 자기들은 마음으로 한생각에 해결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몇십 년을 연구해서 비행기를 하나 만드는데 이건 물질과학이지만, 그들은 심성 과학이기 때문에 한생각에 비행기를 만들어서 타고 다니다가도 그냥 없애 버릴 수가 있죠. 우리가 말을 하다가도 말을 중지하면 말이 끊어지고 없어지듯이, 타고 다니다가도 그냥 내리면 없어져요. 그것뿐입니까? 자기가 만 가지 모습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의 실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실체를 가지고 살지 않기 때문에 실상이 없고, 실상이 없기 때문에 무법천지같이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뭐가 있느냐? 해롭게 하려면 한없이 해롭게 하고 이익하게 하려면 한없이 이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무서운 도리다 이런 소립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부처님 자리냐. 그게 아닙니다. 깨쳐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은 모습으로 탄생하게끔 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뜨겁고 춥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지구처럼 사계절이, 온기와 공기 등 모든 게 구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실체가 나오지 못했을 뿐이지 그대로 자기다 이거죠. 그것은 공기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겁니다. 뜨거워도 뜨거운 게 없고, 차도 찬 게 없고, 공기가 있으나 마나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실체가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동물들도, 우리 인간의 마음보다도 더 높은 차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체로 나오진 못했어도 여러분을 하나하나 집어삼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자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 해로울 일이 너무도 많이 앞으로 닥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동네만 동네가 아닙니다. 지금 지구로 봐도 작지만, 우리나라로 봐도 똑 손가락 반쪽만 한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마음들이 공부를 해서 잘된다면 땅을 더 차지할 수도 있고 또 우리들이 세계적으로도 융성하게 되고 참, 조그마한 나라이지만 보고 배울 게 있다는 소리를 듣고, 또 조그마한 나라지만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모습 없는 모습들이 항간에 모습을 해 가지고도 나타난 것이 있었습니다. 6·25 때 저는 똑똑히 내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비행기 접시도 봤습니다. 그건 어디서 온 걸까요? 우리 지구 안에서 생기지 않은 건데 어디서 났을까요? 둥글둥글하고 또 이것이 고슴도치처럼 생긴 것도 나타났죠.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있다가도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거나 그러면 그냥 없어져요. 지금 비행기 뜨는 것처럼 쭉 가서 이렇게 뜨는 것도 아닙니다. 또 불이 퍽퍽 나면서 뜨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환하게 눈이 부셔서 그냥 그쪽을 볼 수 없게 하고 없어지는 그런 자체. 그건 어디서 났을까요? 그런데 여기 과학자들은 그런 거 한 예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서든지 지금 모습 없는 모습들이 살고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를 증명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헛되게 생각하실까 봐 그런 얘기를 중간에 넣는 겁니다. 사실대로요. 제가 똑똑히 보지 않은 건 말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스물세 살 땐데, 참 잠을 못 자고 곰곰이 생각했던 겁니다.

한 손이 말입니다, 손가락이 다섯 개 있다고만 하면, 우리 손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손 아닌 손은 이 손가락 하나를 떡 올리면 저 다른 혹성에까지 그 손가락이 가요. 가선 이렇게 옮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자비라면 그렇게 해서 옮아 와도, 죽여도 살리는 것이고 살리는 것도 죽이는 거지만 아, 이놈의 물체들은, 물체 없는 물체들은 말입니다, 그렇질 않아요. 빼 먹어요. 힘을 빼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지구 안에서 힘을 다 빼 먹고, 꺼내 먹을 거 다 꺼내 먹고, 다 꺼내서 땔 거 때고 그런다면 자력과 광력은 어디서 다 나며, 우리가 인구는 점점 늘어 가는데 어디서 나서 다 먹고 살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도리, 부처님 도리의 공부를 안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달마 대사께서도 육조 대사께서도 혜가 대사께서도, 어느 스님 쳐 놓고 대덕이신 스님들은 면벽 안 하신 분이 없어요. 무슨 면벽을 했다고 해서 꼭 어디 죽치고 앉아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오줌 누고 밥 먹고 똥 싸고 움죽거리면서 움죽거리지 않고 면벽을 했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우리 한 생각이 무르익어서, 즉 말하자면 여러분이 나무라면 제 나무에서 제 열매가 열려서 그 열매가 무르익는다면 만 가지 맛이 날 수 있고 만 가지 열매를 열리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에 제 나무에서 무르익지 않은 열매라면 한 가지 맛이나 낼지 말지 그렇죠. 한 가지 맛을 내 가지곤 아니 됩니다. 이 천칠백 공안도 한 가지, 두 가지 그것 좀 알아 가지고선 대답해 봤자예요, 그거는.

정말 뿌리 없는 기둥이 하늘을 받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뿌리 없는 기둥을 자루 없는 도끼로 다듬어서 받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만이 발 없는 발이 두루 할 거고, 손 없는 손이 두루 할 거고, 말 한마디 아니 하고도 한마음으로 돌아갈 것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 돌아가는데도 그렇게 무수히, 무시무시하게끔 땅속이나 물속이나, 들이나 허공이나 도대체 이 실체 없는 생명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우리는 그래도 생명이기 때문에 제재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리를 몰라서 이 집을 비워 놓는다면 누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해도 도대체 이거는 가늠을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은 몸을 망가뜨릴 수 있고, 그 속에 들어가서 난리를 치면 그 속에 들어간 놈이 주인이 돼서, 온통 괜히 신경질 나게 하고 말입니다, 괜히 차분한 사람을 그냥 신경질 나게 하고, 막 그냥 달아나가게 만들고, 그냥 답답하게 해서 나가서 바람 쐬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자기 집을 비워 놓았기 때문에 딴 놈이 들어와서 자꾸 그런 짓을 하는 거니 그걸 알고 절대 그러지 말라 이겁니다, 속지 말고.

그러나 '주인공! 만 놈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한 놈이니까.' 하고선 용광로에다 넣는다면 거긴 그냥 한 놈밖에 없어요. 그 한 놈도 여러 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한 놈도 한 놈이란 말을 못 하리만큼 돼 있지만 말이에요. 그러니 내 마음을 기르는 데 조금도 쉼이 없이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생선 장사 하는 게 걸립니다

질문 저는 생선을 잡아다 파는 생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절에 다니면서 살생을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려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이제 와서 다른 길을 찾기도 막막한데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그것을 이 안으로 자꾸 맡겨 놓아야 합니다. 벌어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맡겨 놓고 하면 그게 무명이 벗겨져요. 그럼으로써 죄가 되지 않는 거지, 만약에 무명을 벗기지 못하고 남의 생명을 앗아간다면 그거는 뭐, 에누리 없이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깐 관하는 도리를 아셔야 합니다. 그 마음 도리를 조금이라도 알고 관하셔야 됩니다. '야, 너도 둘이 아닌 까닭에 네 살은 약으로 내가 먹고, 이 산 사람들이 먹고 네 마음은 내 마음이고, 모두가 생명이 내 생명과 둘이 아닌데…, 무명을 벗어라.' 이럭하면은 무명이 벗겨지죠. 그러니까 모든 그 도리를 알고 해야지 모르면 한 치도 그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주인공 당신만이, 저런 그 생물들도 당신만이 무명을 벗길 수 있어.' 하고 거기다 맡기라는 거죠. 하여튼 기복으로 믿거나 바깥으로 찾는 분들에 한해서는 여지없이 그게 살생이 됩니다. 그냥 살생을 하게 돼서 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꼭 관하는 도리를 배우셔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이 그냥 자가발전소가 그대로 있으면서 가설이 된 데에
> 용도대로 자기가 스위치를 눌러서 쓸 수 있는
> 그러한 여건의 능력을 기르시라 이겁니다.
> 그것이 바로 자유인의 법칙이며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건강식품 대특가! 단 100세트 한정 특별할인판매

기간 : 오늘부터 ~ 2025년 6월 16일까지

세계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모방불가능! 세계 최초 기술력!
관절·연골·칼슘을 한 번에 챙기세요!

① 에이펙셀 관절연골튼튼
✔ 세계최초 기술력! 관절+연골 집중 케어
사은품: 본추관절정 2통 증정
정가 40만원 → 특판가 34만원
→ 하루 3,0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관절 지키기!



② 한국칼슘왕 (나노칼슘)
✔ 세계최초 나노입자 칼슘으로 흡수력 UP!
사은품: 본추관절정 2통 (2개월분)
정가 40만원 → 특판가 34만원
→ 나이 들수록 중요한 칼슘! 뼈부터 챙기세요!



③ 본추관절정 2+2 행사
✔ 관절과 연골에 딱 맞는 4개월 구성!
1세트(2통)+사은품 2통 → 총 4통 (4개월분)
정가 396,000원 → 특판가 15만원
→ 무릎, 어깨, 허리까지! 50% 할인 찬스!



■ 지금 전화주세요! 선착순 100분 한정판매!
■ 수량소진 시 예고 없이 종료됩니다!
■ 택배무료 (신용카드 및 휴대폰 결제는 인터넷 마하몰 www.mahamall.co.kr에서 주문시 가능)
■ 상담 : 1688-9099 ■ 신한은행100-036-429749(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하성미 기자의
心 心 talk talk

천천히 크는 마음에 햇살을

㊴ 불가촉천민 니디를 바꾸신 부처님, 부모 교육 '자존감' (4)

"요즘 아이가 자꾸 혼자 있으려 해요. 친구들과 잘 지내고 싶어 하는데, 말을 못 걸고 속상해하네요."

상담실을 찾은 어머니는 조심스레 말을 건넸지만, 눈빛에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다. 초등학교 5학년 딸아이는 말수가 적고 조심스러운 성격이지만, 또래와 어울리고 싶은 마음은 컸다. 몇 번이나 용기 내어 친구에게 다가갔지만 아이들은 금세 다른 무리로 흩어졌고, 아이는 그때마다 위축돼 집에서 짜증을 내거나 울먹였다. 처음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었던 어머니도 점점 움츠러드는 아이를 보며 불안해졌고, 결국 자신도 아이에게 소리를 쳤다며 울먹였다.

많은 부모가 이런 아이를 두고 "내성적이다" 혹은 "너무 소극적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런 단어 하나로 아이의 내면을 설명하긴 어렵다. 내성적인 아이는 단순히 조용한 것이 아니라, 감정이 섬세하고 생각이 많으며 관계에 신중하다. 그들은 쉽게 상처받기 때문에 다가가기 전부터 마음속에서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거절당했을 때는 자책부터 한다. '내가 이상한가 봐.', '나랑은 안 놀고 싶나 봐.' 이런 생각은 자존감을 갉아먹고, 결국 자기 존재에 의문을 품게 만든다.

내성적인 아이는 말수가 적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감정이 크고 깊기 때문에 더 말을 아낀다. '말을 해도 안 알아줄 것 같아서', '괜히 오해를 살까봐', '더 마음이 상할까봐' 혼자 마음을 감춘다. 그럴수록 표현은 줄고, 관계는 더 어려워진다. 내성적인 아이에게 자존감은 스스로를 믿는 힘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이기도 하다.

모든 아이는 저마다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누구는 조용하고 신중하며, 누구는 충동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또 어떤 아이는 걱정이 많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에 앞서 수많은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 똑같이 '자존감'이라는 말로 설명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이마다 전혀 다른 모습과 이유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자존감'을 주제로 아이의 성향에 맞춘 시리즈를 소개하려 한다. 내성적인 아이, 충동적인 아이, 불안이 많은 아이, 완벽한 성향의 아이 등 서로 다른 기질에 따라 자존감의 모습도 다르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조용하고 감정이 깊은 내성적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

내성적인 아이에게 "왜 말을 안 하니?", "조금 활발하게 해봐"와 같은 말은 상처가 된다. 그보다는 "천천히 해도 돼"라며 기다려주고, "그 친구와 친해지고 싶었구나"라는 마음 알아주기가 도움이 된다. 자존감은 아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사랑하고 소중히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아이마다 다른 자존감, 기질로 이해하기

내성적인 아이에게 꼭 필요한 다섯 가지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길가에서 똥지기 불가촉천민 니디를 보셨다. 사람들은 그를 피해 지나갔지만, 부처님은 다가가 손수 씻기고 옷을 입혀주셨다. 그리고 니디를 스님으로 출가시켜 제자로 삼으셨다.

사람들은 놀랐지만 부처님은 출신이 아니라 마음과 가능성으로 사람을 본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다. 니디는 존중받는 경험을 통해 존재의 존엄을 회복했고 마침내 스스로를 수행자로 살아가게 되었다.

내성적인 아이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안전한 공간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때때로 아이를 더 잘되게 하려는 마음으로 아이를 더 작게 만든다. 자존감은 "잘해냈다"는 평가가 아니라, "그 자체로 괜찮다"는 인정에서 시작된다.

그렇다면 내성적인 아이의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해 부모가 갖춰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

첫째, 성급하지 않은 기다림이다.

내성적인 아이는 머릿속에서 생각을 충분히 정리한 뒤에야 말을 꺼내기 때문에 부모는 "말 좀 해봐"와 같은 재촉 대신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라는 말로 아이의 속도를 존중하고 기다려주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둘째, 감정을 대신 짚어주는 민감성이다.

말보다 눈빛과 행동에 감정을 담는 아이에게 "속상했지?", "그 말 듣고 마음 아팠겠다"처럼 감정을 대신 짚어주는 말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라는 안도감과 함께 자존감을 지켜주는 힘이 된다.

셋째, 비교하지 않는 시선이다.

"그 애처럼 활발하게 해 봐" 같은 말은 아이를 위축시키므로, 부모는 신중함과 배려심 같은 아이의 기질적 강점을 인정하며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 경험을 쌓게 해 줘야 한다.

넷째, 부모 자신의 불안을 자각하고 다스리는 힘이다.

'이러다 친구 못 사귀면 어쩌지' 같은 부모의 조급한 걱정은 아이에게 압박이 되므로 부모 스스로 자신의 불안을 인식하고 내려놓을 때 자존감이 자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다섯째, 작은 시도를 응원하는 지지다.

내성적인 아이의 조심스러운 표현과 시도는 자존감의 씨앗이므로 "대단해!"보다 "해보려고 한 것이 멋졌어"라는 말로 결과보다 태도와 마음을 먼저 읽고 응원해 주는 태도가 중요하다.

자존감은 크고 화려한 성공에서 자라지 않는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너는 충분해"라는 말에서 자라난다. 그렇게 조용히 자란 자존감은 어느 날 아이가 조용히 세상으로 나아가는 힘이 된다.

*현대불교 부산주재기자이자 가족상담전문가로 지역 가족센터에서 상담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건강 365

㊵ 유방암

조기 발견이 생존율을 높입니다

유방암은 유방에 생기는 암세포로 이루어진 종괴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유방의 유관과 유엽에서 발생하는 암을 일컫습니다. 유방암은 한국 여성암 중 발생률 1위를 차지하는 암으로, 2018년 보건복지부의 국가암 등록사업 보고에 따르면 전체 여성암의 19.9%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방암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유방암의 최대 발생 연령층은 40대로, 서구와는 달리 폐경 전 여성의 유방암 발생비율이 높습니다.

유방암의 원인

아직 확실하게 유방암의 원인으로 밝혀진 것은 없으며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과다 노출은 유방암 발생의 위험성을 높입니다. 에스트로겐 과다 노출의 원인에는 빠른 초경, 늦은 폐경, 출산 및 모유수유의 감소 등이 있습니다. 가족력 또한 유방암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방암의 가족력은 보통 3대까지 살피며, 가족력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90%의 유방암 환자는 가족력 등의 위험인자가 없으므로 모든 여성들에게 유방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방암의 증상

유방암의 초기에는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환자가 뚜렷한 자각 증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유방 전문가의 진료와 유방 촬영술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방암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유두에서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유방암이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유방의 피부가 움푹 패이거나 염증이 생긴 것처럼 붉게 변하면서 통증을 동반하거나, 피부가 오렌지 껍질처럼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유방암의 진단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유방을 보존할 수 있으며, 95% 이상 완치율을 보이는 예후가 좋은 암입니다. 하지만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특징적인 소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방 병소는 자가 검진과 임상 진찰, 방사선 검사(유방 촬영술, 유방초음파), 조직검사(생검) 등으로 진단합니다. 유방에서 멍울이 만져진다고 해서 모두 유방암이 아니며 섬유낭성 질환, 섬유선종 등 양성 질환인 경우가 더 흔합니다. 유방암으로 진단이 되면 전신 전이 여부 등 수술 전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자기공명영상(MRI), 전산화단층촬영(CT), 뼈 스캔(Bone scan),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등의 검사를 필요에 따라 실시합니다.



한국 여성암 중 발생률 1위 암
조기 발견 위해 정기 검진 필수

유방암의 치료

유방암의 치료에는 국소적 치료와 전신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국소적인 치료에는 암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적 치료, 수술한 유방에 고에너지 방사선을 조사하여 재발을 막는 방사선 치료가 있습니다. 전신적인 치료에는 항암치료, 표적 치료, 항호르몬 치료가 있으며 최근에는 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항체 약물 접합체)와 같은 새로운 약물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어느 것까지 할지는 환자의 연령과 폐경 여부, 종양의 크기 및 종류, 겨드랑이 림프절로의 전이 정도,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두루 고려하여 의사가 정합니다.

치료 부작용

수술 후에 올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출혈, 통증, 체액 저류 등이 있습니다. 항암화학요법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탈모, 구역질(오심), 구토, 전신 쇠약, 백혈구 감소증(세균 등에 쉽게 감염), 혈소판 감소증(피가 쉽게 나며 잘 멈추지 않음), 조기 폐경 등입니다. 항호르몬 치료제인 타목시펜은 안면 홍조, 불규칙한 생리, 질의 분비물 등의 부작용이 있으며, 드물게 체액 저류(체액이 고임), 우울증, 피부 홍반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유방검진의 중요성

유방암은 다른 암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후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 치료한다면 높은 생존율을 보입니다.

초기 유방암은 잘 만져지지 않고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방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유방검진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에서는 매달 유방 자가 검진을 하고 만 40세 이상의 여성은 1~2년 간격으로 유방 촬영술 및 의사의 임상진찰을 받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대부분이 치밀유방으로 작은 종괴의 경우 유방촬영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방초음파 시행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유방초음파라고 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정확하지만, 비교적 과정이 간단한 유방초음파 검사 방법도 개발되어 유방암 조기 발견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하경
동국대 일산병원 외과 교수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함께 이룬 30년
다시 뛰는 BTN

BTN불교TV를 향한 성원에 감사드리며,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뜰 앞의 잣나무
본 목 12:00 재 목 22:30 / 일 15:00



문광스님의 한국학 에세이
본 화 07:30 재 화 19:30 / 토 12:00



진명스님의 지대방 시즌3
본 화 12:00 재 화 22:30 / 토 16:00



자현스님과 떠나는 붓다로드 시즌2
본 금 08:30 재 금 19:30 / 토 15:00



법장스님의 투게더
본 금 07:30 재 금 16:00 / 일 23:15



다여스님의 땅설법
본 월 13:00 재 월 22:30 / 토 19:30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
본 수 14:30 재 금 20:30 / 토 22:30



꽃보다 출가
본 화 09:30 재 화 21:30 / 수 16:30



마음 여행을 위한 GPS 명상
본 수 13:00 재 수 23:15 / 일 14:00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전법 일기

감사·명상·사랑 실천은 부처님 법 전하는 방편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스님과 불자들의 전법 방식은 참으로 다양하다. 각자의 불성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발현되듯, 다채롭게 펼쳐지는 전법의 모습은 늘 감탄을 자아내며 많은 깨우침을 준다. 부처님 법을 만나 행복의 길을 걷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하면 현대인에게 맞는 전법을 할 수 있을까'라는 화두를 늘 마음에 품고 있다.

지금까지 나의 전법 키워드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감사와 명상'이다. 미얀마 명상센터에서 수행하며 명상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 얼마나 큰 힘을 지니는지를 체험했다. 번뇌를 내려놓으면 마음은 저절로 평온해지고, 감사와 사랑으로 채워진다. 감사하는 마음이 자리를 잡으면 욕망, 분노, 두려움 같은 삼독심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기에 감사의 습관을 들이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임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체험을 바탕으로 네이버에 '100일 감사 일기' 카페를 열어 다양한 연령대의 대중과 함께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하루 세 가지씩 감사한 일을 적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화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힘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자 무여 스님과 함께 '그봄출판사'를 설립해 〈지금 여기 감사 일기〉를 출간했다. 제작비는 텀블벅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후원받는 새로운 방식으로 마련했고, 완성된 책은 전국 강원과 선방, 사찰, 군부대 등에 1,000여 권 보시했다.

대한불교진흥원의 수행 콘텐츠 공모전에서 '일상 다감사 명상과 감사 일기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이 선정되어, 강연과 템플스테이를 통해 감사와 명상의 전법을 넓혀갔다. 또 작년에는 불교크리에이터 5기로 뽑혀 '하루 하나, 일주일 명상' 콘텐츠를 유튜브에 공개했고, 선명상 지도법사로도 위촉되었다. 현재는 명상을 더욱 쉽게 알릴 수 있는 책을 기획 중이다.

두 번째 전법 키워드는 '사랑'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많은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린다는 사실을, 나 자신은 물론 신도님들과의 상담을 통해 깊이 체감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불평할 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내면의 갈망이 숨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 결핍은 외부에서 채우려 해도 끝이 없고, 대상만 바꿔가며 끊임없이 상처받고 분노하게 된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신도님에게 자기 마음에 귀 기울이며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연습을 권한다. "나는 지금 슬퍼", "지쳤어", "행복해"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 때, 스스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또 "괜찮아", "잘하고 있어", "지금도 충분해", "예쁘다"와 같은 따뜻한 말을 자기 자신에게 자주 건네며 스스로를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을 때, 타인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자비와 사랑의 마음 또한 자연스럽게 자란다. 결국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는 불이법문에 닿게 되는 것이다.

감사와 명상, 사랑의 실천은 곧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이자 부처님 법을 전하는 현실적이고 따뜻한 방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마음 등불을 밝히는 데 도움되는 친절한 전법을 인연 따라 펼쳐나가려 한다.



한산 스님
온라인법당 '친절' 운영



공일 스님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불교로 읽다** ⑯ 〈치선병비요경〉

'선병' 정의한 경전으로 마음 병 다스린다

〈禪病〉

〈치선병비요법(治禪病秘要法)〉에는 '심란한 병을 치료하는 72가지 방법(治阿練若 亂心病 七十二種法)'이 수록되어 있다. 원전에 따른 고증에 근거해 아란야에서 발생한 사건 중에서 채택한 내용이다. 독특한 전개를 보여주는 이 불전은 유송(劉宋)으로 알려진 북량(北涼)의 황족 안양후(安陽侯) 저거경성(沮渠京聲)에 의해 455년 역경되었다. 좌선을 바탕으로 수식관을 행하여 마음의 어지러움을 치료하는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치병을 위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약의 복용(治病服煖身藥)'은 우리시대의 난맥상에 적용하기 좋다. 냉소적인 태도와 차가워진 몸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중병을 앓는 사람이 좋은 의사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처럼(如重病人 隨良醫教)' 이 가르침에 의지하여 정진하라는 것이다.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 성현의 말을 따라야(如救頭燃 順賢聖語)'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마디로 중생심의 자리에 보리심이 생겨나도록 권면한다.

〈치선병비요법〉은 수행과정에 대한 올바른 지침임이 인정되어, 명대(明代) 지욱(智旭)에 의하여 편집된 〈열장지진(閱藏知津, JB271)〉과 청대(清代) 지관(咫觀)의 〈법계성범수육대재법륜보참(法界聖凡水陸大齋法輪寶懺, X1499)〉에서는 〈치선병비요경(治禪病秘要經)〉으로 기록된다. 좌선의 실참 과정에 나타나는 장애를 선병(禪病)으로 정의하며 이에 대한 비밀스런 요법을 제시한 것이 결국 경전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방법론 제시에서 경전의 권위 획득이라는 위상의 변화는 이 가르침에 내재된 가치의 충실성 때문이다.

법에서 경으로! 이 변화의 감동은 종교와 과학의 관계로 전환하여 검토할 수 있다. 종교의 영역이 과학적 논증

좌선 실참 과정 장애 '선병' 정의
마음 병 치료 72가지 방법 제시
번뇌, 색법과 연결 질병으로 파악

에 의하여 검증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 깨달음이나 구원이 과학적 사실로 규명되어야만 하는가? 이 문제는 역으로 다음과 같이 질문될 수 있다. 과학이 믿음의 대상이 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과학적 사실이 종교적 믿음보다 우위에 서게 될 때, 과학은 도그마로 작용하게 된다. 과학은 종교에게 이때까지 누려온 권위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이게 정답일까?

과학이 종교와 다투는 영역은 창조의 주제로 귀결된다. 창조는 최종적으로 멸망이나 심판의 개념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데, 최초 창조자의 의지가 심판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과 같은 창조와 심판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는 것이 현명하다. 과학적 방법이 현실에서 가장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부분은 의료 현장이다. 추상적 이론으로 질병을 다룰 수는 없다. 실효성이 바탕이 되는 의료만이 의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만큼 의료 현장은 생사의 문제를 비롯하여 실질적 효능을 장점으로 여기는 부문이다.

질병을 다루며 죽음을 최대 극복 대상으로 여기는 의학은 노화조차도 질병으로 바라보고 있다. 생로병사를 다루는 불교적 입장은 이 점에서 의학과 견주기에 용이하다. 불교는 인간 현상을 번뇌로 정의하며, 이 번뇌로 인한 고통을 제거하고자 한다. 심법의 현상인 번뇌를 색법과 연결하여 질병으로 파악하는 시선이다. 그리고 〈치선병비요경〉은 심과 색의 법을 연결하여, 어지러운 마음의 병을 다스리는 비법을 72가지로 세분하여 알려주고 있다. 과학과 종교를 결합시키는 이 불전을 되새겨 봄직한 시절이다.

〈봉은사 포교국장〉

기자칼럼

이젠 행동으로 조세이탄광 희생자 위로하자

일본 조세이탄광 수몰사고가 발생한 지 어느덧 83년이 흘렀다.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적인 사고지만, 그 존재조차 모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사건의 실상은 1970년대 후반, 양심적인 역사학자 야마구치 다케노부씨의 노력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1991년에는 시민단체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회'가 발족돼 지금까지 유골 발굴과 진상 규명에 힘을 쏟고 있다. 한국 불교계에서도 관음종을 중심으로 2017년부터 현장을 찾아 위령재를 올리고, 한일 양국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양심에 따른 이들 덕분에 더딘 걸음이지만 변화는 분명하다. 일본 정부는 오랫동안 '유해가 남아 있는지 불확실하고 조사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올해 4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조세이탄광 유골 발굴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 민간의 자기 책임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며 "정부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 정부는 전문가 의견 청취와 함께 잠수·탄광·토목 등 세 분야 전문가를 투입해 본격적인 내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우리 정부도 응답하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는 올 4월 유족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6월 18~19일 예정된 4차 수중 조사를 앞두고 유골이 발견될 경우 신원을 확인하려는 조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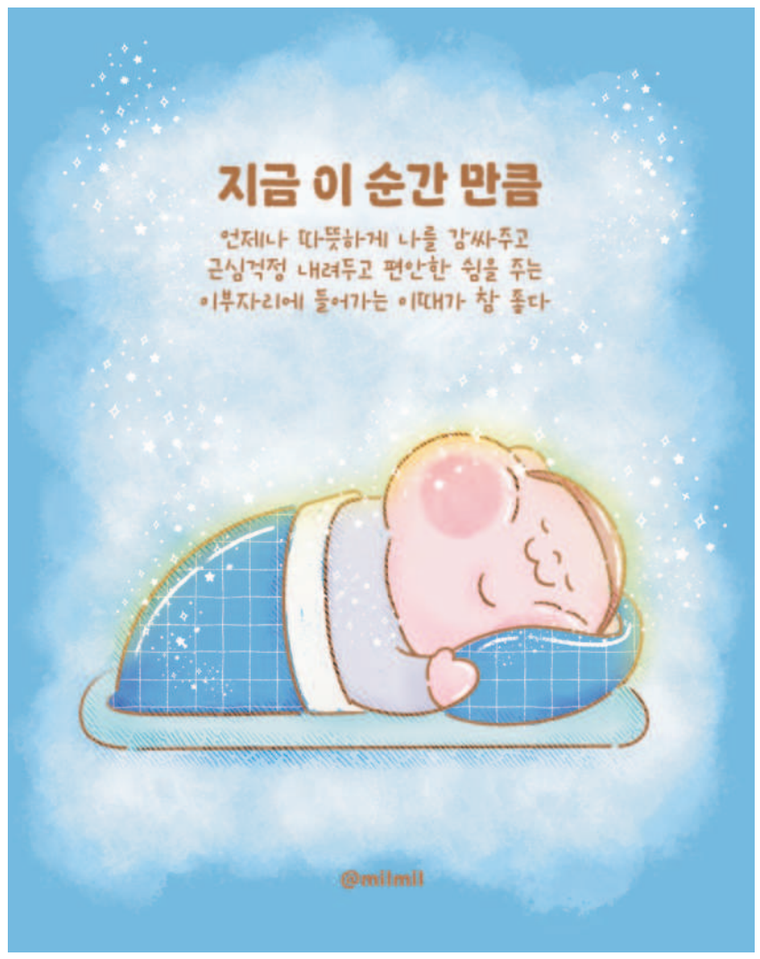
반가운 소식은 또 있다. 관음종이 5월 24일 일본 아마쿠치현 우베시에서 '일제 강점기 조세이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 위령재'를 봉행한 것과 관련해 5월 27일 이재명·김문수 대선후보가 메시지를 보내온 것이다. 이들은 "불교계의 헌신이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잊혀가는 아픈 기억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동시에 "유골 수습과 역사 정의 실현의 여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더는 늦출 수 없다. 말로만 기억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 이제는 행동으로 억울한 죽음을 위로할 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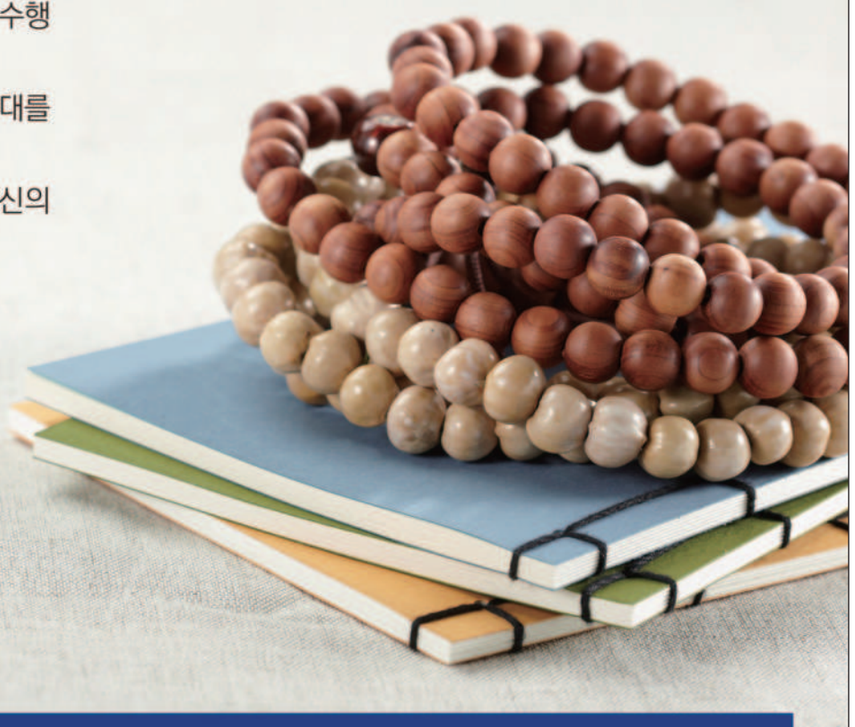
김내영 편집국 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

AI시대, 불교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

현불논단



김응철 교수
중앙승가대

미국의 인공지능연구소인 '오픈 AI(Open AI)'는 2022년 11월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인 '챗지피티(ChatGPT)'를 공개하면서 이 분야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 여러 가지 논란과 편향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의 발전과 이를 장착한 다양한 로봇의 등장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반도체 칩의 성능 향상, 모방학습의 축적과 전이학습, 논리적 추론과 복합적 사고 영역으로 발전하면서 점차 인간의 활동 영역을 잠식해 가는 중이다. 이미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업무 수행의 효율성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개방된 인공지능 소스코드를 활용하여 저가형 프로그램 '딥시크(DeepSeek)'를 개발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오픈 AI사에서는 인공지능(AI)이 인공일반지능(AGI)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5단계로 제시하였다. 시작은 대화형 챗봇이 대화형 검색엔진 기능을 통해 사용자의 질문을 이해하고 필요한 자료를 모아 주거나 요약, 번역해주는 일을 하지만, 최종 단계의 인공지능은 조직적 생태계를 형성하고 자율적 의사결정 등이 가능해진다.

이들의 예측대로 진행된다면 2030년경이면 인공지능의 기능이 인간의 능력 중 상당부분을 뛰어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교계는 어떻게 대응해야

AI 검색할 인터넷 불교사전 全無
불교아카이브 등 구축해 활용해야
AI 활용도에 미래 포교 성패 달려

할 것인가에 대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불교계가 해야 할 일은 인공지능이 불교를 이해하고, 각종 경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일이다. 실제 챗지피티로 불교자료 검색해 본 결과는 매우 부실할 뿐만 아니라 내용상 심각한 오류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인공지능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불교 자료 접근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또한 인공지능이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불교사전도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의 원인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인공지능이 경전 원문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설명이 오류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에 불교 교학 발전과 포교 활성화를 위해서 종단 차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권위 있는 인터넷 불교사전 구축과 더불어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에 등재되어 있는 경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색엔진을 제공하는 일이다.

그리고 다수의 사부대중이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인공지능의 학습과 훈련에 동참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고려대장경을 비롯한 한문경전과 한글대장경, 빨리어 및 산스크리트어 경전자료들을 비교 분석하고 내용을 추출하는 인공지능 2단계에 진입할 경우 불교학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앞으로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몇 십 배로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분야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불교계가 인공지능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잘 대응한다면 불교의 과학적 지혜와 철학적 사유가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종교적 대안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세간과 출세간



효록 스님
다르마심리상담명상센터 대표

매년 6월, 서울 중심가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린다.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올해의 슬로건처럼, 이 축제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비롯한 다양한 존재들이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등과 존엄을 향해 나아가는 살아 있는 외침이다.

나에게 이 축제는 단순한 문화행사가 아니다. 성소수자 불자 법회를 맡은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시작점에 선명히 남아 있는 하루가 있다. 10여 년 전, 나는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축제를 찾았다. 그러나 정작 나를 잊지 못하게 만든 건 축제가 아닌, 그 옆에서 축제를 막으려 모여든 수천의 사람들과 그들이 만든 혐오의 굉음이었다. 그들은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한 손엔 태극기를, 다른 손엔 동성애 반대 피켓을 든 이들은 고막을 찢을 듯한 소리로 외쳤다. "탈동성애가 진정한 인권이다" 등 혐오의 말들이 서울 도심을 메웠다. 숨이 막혔다. 2015년 봄, 나는 성소수자 불자들과 전법회관의 작은 법당에서 처음 만났다. 법회를 맡기 전, 그들을 이해하고 싶어 관련 책을 읽고 영화를 찾아보며 준비했다. 연등이 쌓인 조용한 법당은 긴장된 나와 달리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성소수자는 '특이하다'는 내면의 편견이 허상이었음을 깨달았다.

첫 만남에서 우리는 서로를 소개했다. 어색하면서도 따뜻한 시간이었다. 그들은 나를 만나기

퀴어문화축제 첫 참가 당시
기독교 단체 혐오 발언 충격
"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가"

전까지 15년 동안 자신들끼리 법회를 이어왔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을 깊이 소개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법회 시간을 단지 설법으로만 채우고 싶지 않았다. 이후 법회는 집단 상담 형식으로 바뀌어, 서로의 목소리가 오가는 자리가 되었다.

참여자 중엔 이미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도 있었다. 가족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신앙을 유지하거나, 모태신앙으로 살아온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자신이 믿어온 종교 안에서 성정체성 때문에 '죄인'이나 '하자의 존재'로 낙인찍히며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래서 존재 자체가 존중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을 찾다가 불교를 찾아왔다고 말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불교가 줄 수 있는 '무차별 자비'의 본모습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

우리 사회는 성소수자를 하나의 이미지로 단정 짓는다. 하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평범하고, 그래서 때로는 더 조심스럽다.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이다. 이런 두려움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왜곡된 인식 속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성소수자를 향한 공포와 거부는 무지에서 비롯된다. 알지 못하기에 두려워하고, 두려우니 배척한다. 진정한 평등과 공존은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퀴어문화축제는 한결같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일깨운다.

부처님은 〈화엄경〉에서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성품을 지녔다"고 말했다. 우리는 다르기에 아름답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존중받아야 한다. 부처님의 자비는 어떤 조건도 묻지 않는다. 바로 지금, 모든 존재가 존엄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함께 살아갈 길을 찾을 때다.

社 說

새 정부, 기후정책 최우선 과제 삼아야

앞으로 5년 이내에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견줘 2도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세계기상기구(WMO)가 5월 28일 발표한 '전 지구 1~10년 기후 업데이트(GADCU)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연평균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상 오를 가능성이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들의 공약과 TV토론에서 기후 공약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탄핵 사태로 치러진 조기 대선임을 감안하더라도, 기록적인 폭염과 역대 최악의 산불 등 기후 재난 현상이 이어지는 시점에 지난 대선보다 후퇴한 기후 공약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관련 정책을 요구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기후시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이번 대선 사회 분야 TV토론에서 '기후위기 대응 방안'이 공약 검증 주제로 처음 채택됐다. 그러나 막상 토론회에선 원전에 대한 공방만 주고받은 채 구체적인 공약 제시와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정치권에서 미적대는 사이,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시민단체는 자체적인 기후 정책을 담은 '기후재난 극복 정책 제안서'를 성안하고 시민 홍보에 나섰다. 새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정책을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민중불교운동을 다시 기억하자

올해는 5·18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는 해이자 불교 민주화 운동의 산실 '민중불교운동연합(이하 민불련)' 창립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5년의 차이가 나지만 둘은 연관성이 상당하다. 5·18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월주 스님은 교단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직접 광주에 방문해 천도법회를 봉행하고 성금을 전달했다. 이 같은 불교계의 행보는 전두환 신군부에게는 걸림돌로 보였고, 10·27법난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5·18과 10·27법난은 호국불교 담론에 대한 반성과 불교자주화를 촉구하는 1980년대 민중불교운동의 계기가 됐다. 이 운동의 결정체가 바로 '민불련'의 창립이다.

1985년 진관 스님, 성연 스님, 여익구, 고은, 최연 등 출·재가자 180여 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해 창립된 민불련은 불교사회운동사의 한획을 그었다. 민불련은 창립총회부터 당국에게 불순단체로 지목돼 105명이 연행되며 출범했지만 〈민중법당〉 등을 발행하며 불교계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다.

민불련은 1991년 조직 정리를 선언하기까지 약 6년 동안 활동했지만, 한국불교에 끼친 영향력은 컸다. 산중에만 머물렀던 불교를 다시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며, 교단 민주화를 이루는 데도 이바지했다. 5·18부터 민불련으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에는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다'는 대승의 정신이 담겼다. 이 시대 다시 민불련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일붕 서경보 존자
제29주기 추모다례재

대한불교일붕선교종은 세계불교초대법왕을 역임하시며 불법 홍포에 매진하신 일붕 서경보 존자의 제29주기 추모다례재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종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일시 : 2025년 6월 4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서울 세검정 일붕선원
• 문의 :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5월 28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2025하계수련회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종도 스님들의 화합과 종단 발전을 위한 2025년도 하계 수련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사암의 발전과 스님들의 법체 강녕을 기원하며, 많은 동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5년 6월 11일(수)~13일(금)
• 장 소 : 보현정사 (경북 경산시 와촌면 솔목길 15-5)
• 담 당 : 지화 스님 (010-3525-7190)
• 회 비 : 15만원
• 준비물 : 가사 · 장삼, 개인 세면도구, 간편한 복장 등
• 문 의 : 성혜 스님 (010-8082-9503)

불기 2569년(2025) 5월 28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9년(2025) 6월 4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황경환 21세기 불교포럼 이사장의 깨달음 여정에서 남긴 '108시집'

正知, 正念 하면서 sampajañña, sammāsati 미련없는 작별을



나는 알았네

나는 알았네!
나는 그동안 수없는 생을 윤회에 윤회를 거듭했다는 것을,

이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은 나 자신의 번뇌심이 만든
탐, 진, 치貪瞋痴 삼독三毒이
그 원인原因이고 원흉元兇이었다.

이제 그 무지無知의 업業을 타파하고 명지明知의 길을 가야지,
그래서 모든 번뇌에서 해방되고 금생에 남은 일 다해 마치면

나의 태어남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無塵悟道頌 II

無塵 황경환 지음 | 더종북스 | 175쪽 | 값 15,000원

인간의 몸을 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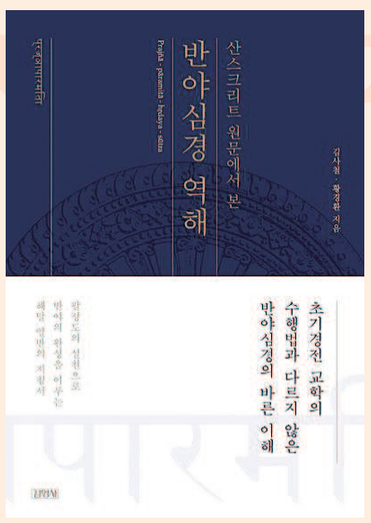
뒤돌아보고 되돌아보아도 세상이란 대도량(大道場)에
인간의 몸을 받아 왔다가 가는 길에 오직 의미 있는 일 하나, 그것은 담마의 법法 Dhamma를 만나 그 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익히고 따르고
실천하며 사는 삶이 최상의 행복이고, 미래의 비전이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 본문 중에서



황경환 불법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는 수행자이자 사업가이다.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윤리교육학과를 수료하였고, 현재 동국대 명예 철학박사이며 동국대 불교대학 석좌교수이다. 1977년부터 한국불교연구원에서 30여 년간 이사 및 연구위원으로 활동했고 국제 PTP(People To People: 세계 평화 구현을 위한 국제 민간 외교단체) 한국본부 총재직 및 울산불교방송 사장을 역임하였다. 1980년부터 지금까지 국제 PTP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고, 현재 초기불전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며 21세기 불교포럼 이사장이다. 저서로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2009), 〈산스크리트 원문에서 본 반야심경 역해〉(2020, 공저)가 있다.

초기 경전의 교학 이론과 수행법을 통하여 '공'과 '지혜'의 의미를 새롭게 밝힌다



산스크리트 원문에서 본
반야심경 역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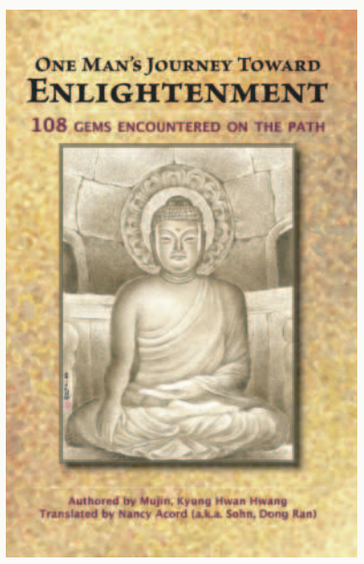
가장 짧지만 가장 많은 해설이 난무하는 《반야심경》
왜 이렇게 많은 해석이 필요할까?

《반야심경》이 어려운 이유는 한문 자체의 난해함과 한역의 부정확성 때문이다. 이 책은 산스크리트 원문을 우리말로 알기 쉽게 풀어내며, 초기 경전의 수행법을 기반으로 하여 《반야심경》을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한다. 《반야심경》은 다름 아닌 부처님의 명상 수행과 이를 통한 완전한 깨달음의 여정에 대한 기록이라는 참신한 시각에서, 초기 경전의 다양한 경문을 통해 이를 상세히 설명한다. '지혜의 완성', 즉 '반야바라밀다'란 계·정·혜 삼학, 즉 팔정도의 실천과 완성임을 명쾌하게 밝힌다.

김사철·황경환 지음 | 김영사 | 272쪽 | 15,800원

"《반야심경》을 초기불교 수행법에 따라 체득하겠다는 도전과 진솔한 체험이 담긴 이 책은 우리 시대의 방식으로 《반야심경》의 생명력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강성용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깨달음의 여정에서 건져올린 108가지 보석 같은 이야기"



ONE MAN'S JOURNEY TOWARD
ENLIGHTENMENT
108 GEMS ENCOUNTERED ON THE PATH

근본 불교가 가리켜 보이는 진리의 핵심 대의에서부터
양자물리학이 말하는 불교 사상에 이르기까지
초기불전연구원 선임연구원인 저자가
평생에 걸쳐 수집해 온 108가지 보석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 영원한 자유의 길을 펼쳐 보인다.

'깨달음의 여정에서 주워 올린 108개의 보석들'이라는 제목으로
영문판 발행, 아마존에서 페이퍼백, 전자책, 오디오북 발매중!

책 주문처 · 사)21세기불교포럼 경주시 알천북로 345 | 사무국장: 최진홍 010-9210-2959, 회계과장: 임정은 010-8562-7312